2017-2018
2년 연속 최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대한민국정부

2020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발 / 간 / 사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교육, 보건 · 의료, SOC 분야 등에 대한 ODA 확대, 취약국 및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글로벌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국제교육원(교육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현직 및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ODA 국가의 현지 초 · 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사를 파견하는 '교원해외파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21개국, 538명(교사 513명, 자문관 25명)을 파견하여 ODA 국가의 기초교육(수학, 과학, ICT, 한국어)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교사 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수원국 학생 · 교육관계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출 · 입국을 제한하고 모든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하였으며, 파견교사들의 교육활동 또한 많은 국가에서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견교사들은 수원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의지와 남다른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양적으로 풍부한 사례는 아니지만,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상황 및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현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SNS · 이메일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의 파견교사 한분 한분의 소중하고 생생한 노력의 성과물을 이번 우수사례집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각 국의 교육활동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파견예정자 뿐 아니라 교원해외파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교·사대생들에게 파견교사들의 주요 활동 및 파견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및 파견국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파견교사(자문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국립국제교육원장 **김 영 곤**

CONTENTS

Ⅰ. 교육활동 수기

최우수상	김 지 영 (말레이시아/한국어)	10
우수상	류 재 율 (키르기스스탄/한국어)	22
	채 송 이 (페루/수학)	32
장려상	김 보 경 (우간다/수학)	48
	송 영 은 (키르기스스탄/한국어)	56
	이 유 미 (말레이시아/한국어)	71

Ⅱ. 수업자료

최우수상	이 준 언 (말레이시아/한국어)	86
우수상	권 숙 경 (말레이시아/한국어)	120
	이 가 현 (에티오피아/수학)	135
장려상	김 지 현 (말레이시아/한국어)	148
	조 은 애 (파라과이/한국어)	161

Ⅲ. UCC(영상)

최우수상	**김 성 진** (우간다/수학)	170
우수상	**노 시 율** (피지/과학)	174
장려상	**김 인 규** (동티모르/ICT)	178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I

교육활동 수기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Ⅰ. 교육활동 수기

최우수상

지혜의 씨앗을 문 작은 새의 노래

김지영(말레이시아/한국어)

‘발자취 따라가기: 저는 17살 한국어 강사예요’

올해로 한국어 강사가 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에서 9년, 국방어학원에서 1년, 홍콩 대학에서 2년, 태국 대학에서 2년,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1년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한국어 강사가 목표이자 꿈이었고 운이 좋아서 24살에 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 사는 삶보다 많은 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5개국 7개 도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살 수 있는 행운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15년 동안은 국, 내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그중 6년은 국내 대학에서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석사, 박사 학위 공부를 하며 고군분투하기도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제가 가르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한 이유는 대학에 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해외에 있으며 한국어 강사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실력을 제대로 갖춘 강사를 만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국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해서 다시 나와야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 라왕이라는 도시의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살 당찬 새내기 강사의 포부와는 달리 저는 여전히 최고의 강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목표를 잊지 않고 자질과 실력 그리고 인품을 갖춘 교육자가 되기 위해 아직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작년 한국어 강사가 된 16주년에 학생들이 직접 구워 준비해준 한국어강사 16주년 기념 케이크로 학생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 라왕의 중학교에서 가르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 학습자를 가르치면서 단순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련한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강사로서의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2살에서 15살 남짓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지식 전달을 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 저와 학생들 그리고 이 학교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길 떠나기: 라왕으로 가래요

한국어를 가르치러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를 두 번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와 가까워서 방학 동안 4일 정도 쿠알라룸푸르를 여행했습니다. 잘 정돈된 대도시에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살며 어디를 가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봄, 국방어학원에서 가르치던 말레이시아 육군 대령님이 장군님이 되시면서 고향인 말라카로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말라카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말라카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다시 쿠알라룸푸르도 여행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국립국제교육원의 해외 교원 파견 사업에 말레이시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했고 선발되어 3주간의 국내 사전 교육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 직전까지 어느 지역, 어느 학교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여행하며 좋은 인상을 받았던 쿠알라룸푸르로 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견일이 다가오고 파견 직전 통보받은 부임 학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라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말레이시아 파견 11개교 중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11개교 중 아홉 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똑똑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숙학교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공립 중, 고등학교인데 제가 갈 곳은 이 공립 학교 중 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까지는 한 시간 거리이지만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임 교사와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하며 들은 이곳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파견 취소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가서 지내다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자.”였습니다.

파견 직전까지 한국의 대학에서 맡은 교환 학생 학부 강의가 끝나자마자 짐을 꾸려 2019년 1월 3일 라왕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길의 시작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라왕에 도착한 후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에 우선 짐을 풀었습니다.

도착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교장 선생님을 뵈러 갔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저의 이력을 확인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건네신 첫 마디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곳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근무했던 대학과는 모든 것이 다른 환경입니다.”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잠깐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은 저는 “네, 모두 알고 왔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며 지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될 어학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수납장 몇 개와 칠판 하나 그리고 플라스틱 책상과 의자가 어학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프로젝터는 있었지만, 수업에서 사용할 공용 컴퓨터도 프린터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가 수업을 할 곳이구나. 듣던 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구나. 하지만 분명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나는 그걸 찾아 일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레이시아 라왕, SMK Taman Bunga Raya 1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길 찾아주기: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나이는 13살에서 15살 사이,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 아이들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주눅 들고 위축되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을 3링깃(한화 약 850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들, 일하러 나가신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봐야 해서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 교통편이 없어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 낡을 대로 낡아 엄지발가락이 다 나온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이 학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빈곤하고 고단한 생활은 학생들의 마음에도 생채기를 내어 꿈을 꾸기도 전에 스스로 꿈의 싹을 잘라버리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무사히 졸업하고 마트의 점원으로 취직해서 빨리 돈을 버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시작한 다수의 한국어 학습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도 처음에는 BTS, 트와이스를 보며 막연한 호기심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공부가 점점 진행되면서 기숙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생깁니다. 기숙학교 학생들은 지금까지 그랬듯 정해진 수업시간에 결석 없이 근면 성실한 태도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숙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2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면 TOPIK 1 시험에 응시하여 1급은 무난하게 받고 2급 급수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또 한국 음악 동아리, 춤 동아리 등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특별 활동을 만들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대회에서 실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누구 하나 야단칠 수 없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기숙학교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석률도 저조한 학생들에게 학업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수업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소극적이며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특히 이곳에서의 한국어 수업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게 만들어야겠다. 나는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학생들을 한국어를 배우기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안내해야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운전(한국어 공부)의 즐거움, 운전하는 기술과 능력을 끌어올려 줘야겠다.'

1월 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에게 2019년 한국어 수업 및 활동 계획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연말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여는 말하기 대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 대회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 말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용감한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하기 대회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은 대회에 한 명도 못 나갔어요. 아마 올해도 우리는 대회에 못 나갈 거예요." 학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에 저는 학생들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의 말을 믿고 따라올래요? 올해 선생님은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면 올 연말에는 선생님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많이 이해하고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국어 단어와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믿어 줄래요?"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수업 운영 방식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파견 사전 교육을 받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수업 매개 교수 언어로 영어 사용을 권장 받았습니다. 저는 홍콩 대학과 국방어학원, 국내 대학에서 교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에서 계속 영어를 사용해 수업했기 때문에 교실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교사의 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1시간 수업 중 교사의 설명은 20분 이내로 할 것, 설명의 양을 대폭 줄이고 핵심만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할 것, 나머지 수업시간은 학생 활동 중심으로 학생이 쓰고 말하고 읽게 할 것, 학기 초에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되 학기가 진행될수록 한국어 사용의 비중을 높일 것'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한국어 수업시간의 80% 이상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등 학생 주도 활동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두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TOPIK 대비반 수업은 현재 15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학기 시작 3개월 정도 지난 후 학생들과 함께 어학실 환경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례 수업시간에 그랬듯 학생들에게 쉬운 한국어로 이것 저것 지시를 하고 학생들은 제 말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어학실에 들르신 교장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갈수록 한국어에 잘 적응해 가는군요.” 교장 선생님의 칭찬 말씀은 학생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학기 정도가 흘렀을 때 11월에 말레이시아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한국어 캠프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종 체험 위주였던 1회 캠프와는 달리 2회 캠프에서는 춤 경연, 노래 경연 그리고 말하기 경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학생들은 말하기 경연에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말하기 원고를 쓰고, 발음이며 억양을 자연스럽게 하고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까지 모두 학생들과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준비했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주중에도 매일 학교에서 따로 만나 연습한 것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모여 맹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2회 한국어 캠프 말하기 경연에 참가한 우리 학교 2명의 학생 중 한 명은 3등 다른 한 명은 1등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제 말을 믿고 기대 이상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 학기 초에 잔뜩 위축되고 자신감 없던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씩씩하게 합창하는 모습입니다.

▸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말하기 경연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제2회 한국어 캠프 말하기 경연에서 1위와 3위를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와 학생들은 큰 용기를 얻어 2019년 연말에 열린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주최 말하기 대회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학생들의 노력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019년 연말에 열린 제 14회 말레이시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자 중 최연소자였던 14살 우리 학교 학생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언니, 오빠들과 실력을 겨뤄 당당히 3등을 했습니다. 마침내 학생들의 땀과 눈물로 빚은 노력의 결과가 빛나는 열매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전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고 응원해요. 그리고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꼭 필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오직 여러분의 노력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학교 가는 길: 건넨 돈이 모두 되돌아온 기적

말레이시아 도착 후 교육부에 첫인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곳 라왕에서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있는 푸트라자야까지는 자동차로 두 시간이 넘는 먼 거리입니다.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학교 관계자와 방문을 해야 하나 여러 일정을 고려해보니 혼자 택시를 타고 다녀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택시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학교에서 차후에 교통비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를 방문하고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여 교장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질문은 “멀리까지 잘 다녀왔어요?”였는데 막상 교장 선생님께서 건네신 첫 마디는 “푸트라자야까지 교통비가 얼마나 나왔나요?”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학교의 사정을 생각해서 멀리까지 혼자 다녀온 사람에게 너무한 반응이 아닌가?’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육부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교통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손님으로 온 교사인데, 이 학교는 손님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며 이 학교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학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우리 학교 전체를 통틀어 어학실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20년도 넘은 것 같긴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 에어컨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외국인 선생님인 저를 위해 학교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더운 나라에서 정말 덥고 습한 날에는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도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마단이 끝나고 무슬림의 가장 큰 명절인 하리라야 기념 파티를 하며 우연히 일반 교실에 들어가게 된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에어컨은커녕 낡은 선풍기 두 대가 큰 교실 천장에 덩그러니 달려있었습니다. 그 선풍기 두 대로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더위를 식혀줄 순 없었습니다. 아! 이 학교는 정말로 가난하구나. 마음이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가난이 죄가 되는 곳이구나. 깨닫게 된 저는 다시는 교통비에 대해 학교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다른 곳에서 재정을 확보한 학교에서는 제가 지급한 교통비를 돌려주었습니다.

학교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그때부터 이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도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기획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교실에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공부하는 일이 생기자 학교에서 급히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가족들과 친구들, 예전 국방어학원에서 가르친 말레이시아 장군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조니 장군님,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했을 때 장군님은 “말레이시아 전체에 그런 학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은 봉사하러 온 그 학교의 외국인 선생님이니까 행사에 동참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장군님. 그런데 이 학교는 그냥 말레이시아의 가난한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우리 학교입니다.”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하신 장군님은 “선생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기부하겠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학교 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와 가족, 친구, 지인이 학교에 전달한 모금액은 총 800링깃입니다. (한화 약 22만원) 학교 교사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기부금액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감사장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장은 제 가족, 친구, 지인들을 대신하여 제가 받은 것입니다.

▸ 학교 기부금 모금 행사에서 전체 교사 200명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부하여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습니다.

▸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 받은 상금 중 일부를 어학실 화이트보드를 교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를 도울 기회는 우연히 공모한 어느 대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1등으로 당선되어 한화 5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상금을 3등분으로 나누어 1/3은 학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50링깃 (한화 약 18만원)으로 어학실 화이트보드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전 화이트보드는 낡기도 했지만, 자석이 붙지 않아 그림 자료 등을 이용한 활동 수업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학실 보드는 한국어 수업에서도 사용하지만, 어학실을 사용하는 영어나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선생님들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학교 물건으로 남게 되니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교체한 화이트보드를 본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무언가를 나누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지혜를 짜내어 가난한 살림 가운데 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에 말레이시아 세종학당 주최로 제 말레이시아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제2회 한국어 캠프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노래, 춤, 한국어 말하기 경연을 위해 한 달 가까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30명의 학생

들이 한국어 캠프 참가를 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캠프가 열리는 방이 세종학당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이고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또 학교 버스가 있는 기숙학교와는 달리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방이 세종학당까지 전세 버스를 빌리면 왕복 600링깃(한화 약 170,000원) 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숫자만큼 나누어 분담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캠프 참가비 10링깃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 있는데 일 인당 35링깃씩을 더 내라고 하면 분명 캠프에 못 갈 학생이 많아질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비 때문에 캠프 참가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비를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1/3은 부담을 해야 할까?"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분께 부탁을 드려 버스 대여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중등학생을 위한 제2회 한국어 캠프에 참가해 잊지 못할 추억을 가득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의 도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2학년 누르 시티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12명의 다른 말레이시아 중학교 학생과 함께 ASEAN 회의에서 부대행사로 기획된 제1회 아세안 중등학생 및 대학생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개교 이래 우리 학교 학생이 해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작은 소녀의 꿈을 이루게 해주어 고맙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누르 시티 학생에게 약 한화 250,000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모아주신 돈을 학생에게 전달하며 당부했습니다. "이 돈은 액수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멀리 외국까지 가는데 혹시 돈이 많은 부잣집 학생들과 비교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모아주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아주신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생각하며 한국에서 즐거운 기억을 많이 만들고 와요." 선생님들의 정성과 애정으로 누르 시티 학생은 한국에 가서 보석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마련해준 교통비로 말레이시아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제2회 한국어 캠프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 제1회 아세안 중등학생 및 대학생 말하기 대회 학생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모은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건넨 작은 정성들이 더 큰 감동과 함께 고스란히 되돌아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정성과 정성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하나 여러 사람의 진심과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길은 또 어디로 이어질까요?: 큰길로 이어질 작고 작은 길들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의 하루하루 생활은 새로움으로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최고의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학생들을 가르쳤던 일이나 국방어학원에서 각국 대령과 장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보다 더 보람이 있습니다. 그저 한국이 좋아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을 기억하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가난한 살림살이 가운데에서도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시는 학교를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선을 이루고 그 선들이 인생의 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의 작은 점들이 제 인생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 작은 길들을 열심히 지나가다 보면 어떤 큰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디작은 지혜의 씨앗을 물고 오늘도 내일도 내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날아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에 지혜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Ⅰ. 교육활동 수기

우수상

남이 안 하는 거 해봐!

류재율(키르기스스탄/한국어)

이제는 영어보다 한국어다!

아직도 내가 키르기스스탄에 파견을 갔다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꼭 다시 묻는다. “어디라고요?” 지도에서 잘 찾지도 못할 정도로 키르기스스탄은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나라다. 그러나 오랜 세월 영어 교사로 남의 말만 가르치고 살던 나를 한국어 파견 교원으로 처음 반겨준 고마운 나라다. 미국에서 만난 어느 재미 변호사가 쓴 책 ‘남이 안 하는 거 해봐’라는 제목에 마음을 뺏겨 산 지 거의 10년 만이다.

▸ 대통령 궁 앞 알라투 광장

영어 교사였던 내가 한국어 교사가 된 것은 먼 길을 애써 돌고 돌아 원래의 길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다. 왜냐하면 30년 전 대입학력고사에서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지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 합격자로 국어교사가 될 기회가 왔었지만 그 당시 자존심이었는지 서운함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공부가 싫었었는지 포기해버렸다. 대신 10년 넘게 안 맞는 옷을 입은 듯 영어를 가르치며 살았다. 그래서일까? 늦은 나이에 무엇에 이끌리듯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다시 전공했고, 소위 말하는 ‘철밥통’과 영어를 좀 이른 나이임에도 과감하게 버리고 퇴직하여 한국어와 동행을 해 보기로 한 것이다.

아련한 기억 속의 진로로 다시 들어선지 한참 후 처음 만났던 정부초청장학생들[1)]! 나는 일 년

1)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KGSP(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또는

과정의 두 개 기수, 60개국에서 선발되어 온 81명의 예비 대학원생들을 만났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온 젊은이들과 지내는 동안 나는 참 행복했다.

"선생님,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만나요."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의 일상이다. 한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헤어질 때 듣는 이 말도 한국어 세계화의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파견 기간 내내 학생들의 비전을 키워주고 나중에 어디서 다시 만날까 하는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소소한 교육활동 그 자체를 묘사하기보다 대한민국과 파견국을 연결해 줄 미래 자원으로서의 인재 양성, 한국어 보급 네트워크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보려 한다. 또한 목표 없이 유유자적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은퇴 전후의 중년들에게 '이제는 영어보다 한국어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해 주고도 싶다.

나도 마음만은 청년이다!

해묵은 꿈을 일깨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나에게 2019년 여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원 해외파견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데 마치 30년 전 그때처럼 예비합격자!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어린 시절 내가 살던 고향 같은 친근한 모습의 키르기스스탄이 나를 반겨준 것이다. 하지만 출국 직전까지도 어느 학교로 갈지 몰랐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가 합격인지라 원래 내가 희망하던 곳이 아니었고 정보도 거의 없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준비하고 공부를 잘 해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을 거라고 믿는 편이라 생활 환경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현실에 맞는 교재와 교구를 잘 준비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 수준과 학습 능력이 궁금할 뿐이었다. 그래서 기 파견자를 따로 만나 밥을 사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 과정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정부초청 유학생들이다.

▸ 키르기스국립대 외국어학부 한국어 전공 제1기 신입생들

결국 나는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키르기스국립대 외국어학부에서 두 분의 동료 파견 교원과 함께 한국어 전공 과정을 새로 개설하는 임무를 수행했다.[2]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터져라 손짓 발짓 해가며 나이는 잊고 살았다. 그들과 소통하며 항상 젊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그 어떤 것보다 좋았다.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어울려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어 선생님의 소소한 행복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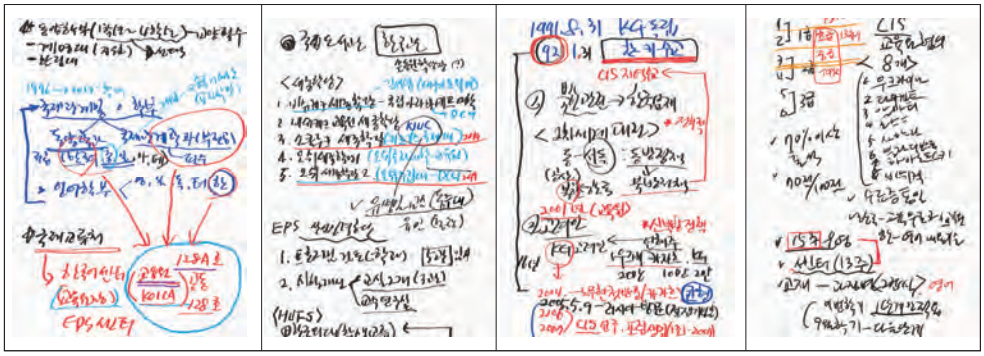
‘키르기스’는 나에게 도전이다!

‘키르기스(Кыргыз)’는 투르크계 언어로 40이라는 뜻이고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땅이다.[3]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인 투르크 계열의 40개 부족이 연합하여 세운 국가라고 한다. 이 숫자가 지금의 내 나이라면 좋으련만..... 나에게 40은 꿈의 재발견이나 새로운 목표 또는 시작을 상징하는 ‘도전’의 숫자다. 나이 마흔에 꿈을 업그레이드 한답시고 전공을 바꾸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어 교원으로 나를 품어 준 것이 바로 ‘키르기스!’ 그래서 이 나라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집을 나섰지만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보급 전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하였다. 중등 영어 교육에 오래 종사한 나로서는 갖가지 교수 기법보다 그 나라의 현황이나 현지 실정에 맞는 접근 방법, 또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상태 등이 더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해서 논문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어보급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나 후배 파견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랐다.

---

2)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 준 두 분의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3) 일반적으로 키르기스스탄으로 불리지만 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이 정식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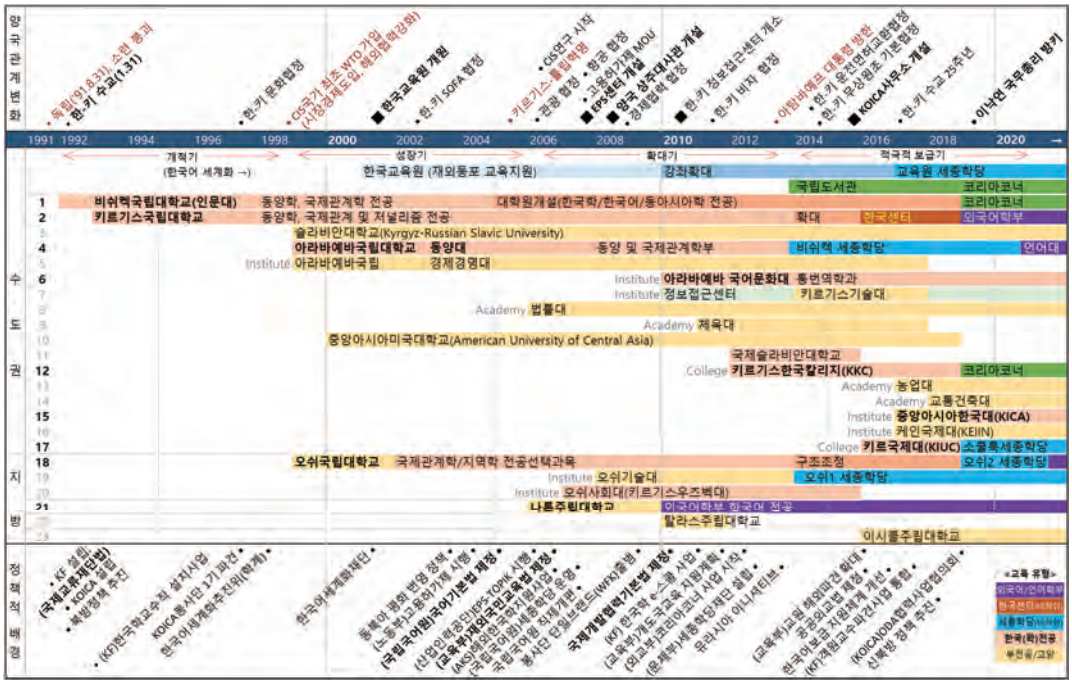


▸ 파견 기간 중 기록한 무수히 많은 메모 중 일부

파견기간 내내 사람을 만나거나 자료를 접할 때 휴대폰을 꺼내 열심히 메모를 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한 가운데에 있는 키르기스스탄! 나도 이제는 조금 안다. 지정학적으로 외진 곳이기도 하고 농업위주의 취약한 산업 구조로 인해 풍족한 삶은 아닐지라도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아직 미국의 직접 투자는 미미한 반면 러시아, 중국, 터키 등 인접국들과 유럽연합, 일본 등 여러 열강들이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겁다는 것도 확실히 안다.

더 나아가 시기별 정책적 이슈와 양국의 중대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어보급이 단계별로 확장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키르기스국립대를 포함하여 여러 대학에 한국어가 확대된 시기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논문을 발표했다.[4] 내가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할 때부터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았으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파견되는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4) 류재율(2020),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보급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연구. 한국어학 87, 31-63.
※ 키르기스스탄에 한국어(학)가 개설된 대학들은 학제에 따라 종합대(University), 아카데미(Academy: 특성화 대학), 단과대학(Institute), 그리고 한국의 전문대학과 유사한 칼리지(College)로 구분된다.



▸ 정책 환경과 키르기스스탄 내 대학의 한국어보급 현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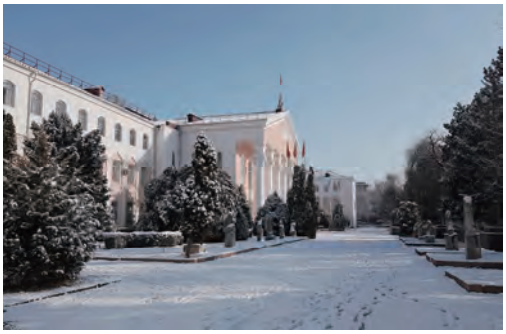
실제로 한국의 모 대학 국제교류팀이 방문했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학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앞으로도 한·키 대학 상호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검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긴 하나 우리 정부는 2020년을 신북방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이 지역에 대한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5] 나도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비밀리에 러시아어를 좀 배워볼까 싶다.

한국어보급 네트워크는 하나다!

내가 근무했던 키르기스국립대학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해온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이다. 교내에 2016년 하반기에 개원한 '한국센터'가 있다. 이것은 한국어 보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한 한국교육원과 코이카, 그리고 키르기스국립대학교의 3자 협력 사업에 해당한

5) 신북방정책의 협력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4개국이다(출처: bukba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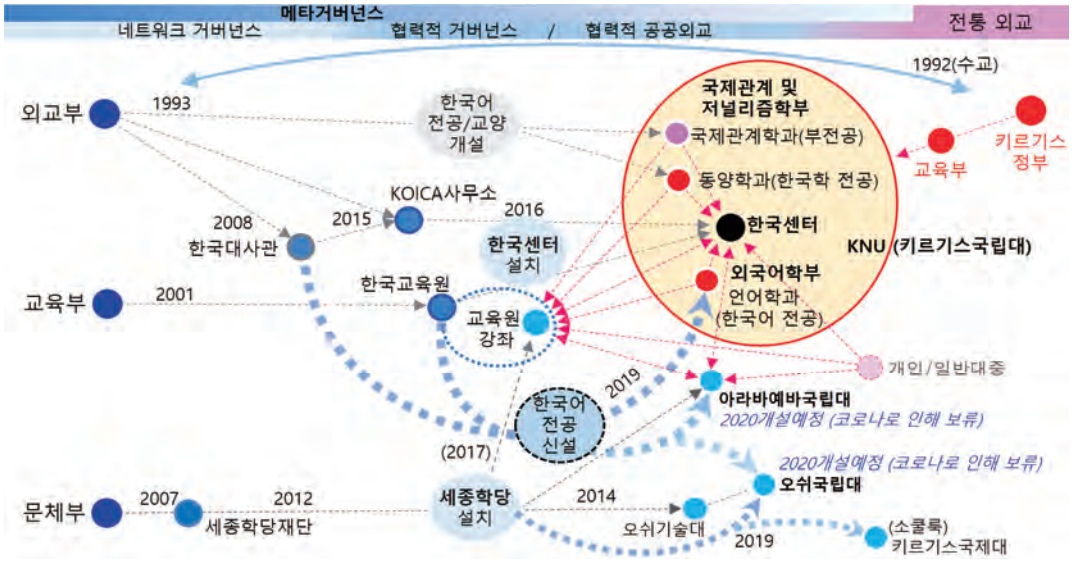
다. 그리고 2019년에는 외국어학부 내에 한국어 전공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이것이 내가 추가합격한 고마운 계기(?)였던 듯하고 파견 학교가 빨리 정해지지 않은 이유였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다.



▸ 키르기스국립대의 겨울 전경과 교내에 있는 한국센터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는 일은 조용한 소프트파워 외교, 즉 공공외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 거점을 둔 기관들 상호간의 협업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키르기스국립대의 외국어학부에는 공통 기본 과목인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 외에 제1외국어 전공으로 영어, 불어, 독일어, 터키어가 있었고 여기에 한국어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어를 배우는 '동양학과', '국제관계학과', 그리고 '언어학과'가 한 지붕 세가족의 위태로운 공존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조용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초연결성, 초지능화 사회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고도의 네트워크시대다. 한국어보급 구조가 한 겹 두 겹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속 교육부 파견 교원, 코이카 봉사단원, 대학이 직접 채용한 교원 등 동료 교원 상호간에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해서 논문에도 삽입하고 이런 고민을 공론화 해보고 싶었다.



▸ 키르기스국립대와 세종학당 주변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한국센터의 강좌는 기존의 한국교육원 강좌나 대학 연계형 세종학당 강좌와는 약간 다른 새로운 형태다. 그런데 "한국교육원과 코이카가 합작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럼 센터장이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원의 흐름이나 운영 방식에 약간의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교구나 기자재 지원, 시설물 사용 등 사소한 문제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곳 한국센터에서는 교직원, 일반인, 쉬꼴라(초중고)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비학점 과정으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 반대로 학과 수업 후 한국센터, 교육원 강좌, 인접 아라바예바대학에 있는 비슈케크 세종학당 등 여러 곳을 순환하는 학생도 많다. 그런데 이런 중복의 문제는 키르기스국립대의 외국어학부에 한국어 전공이 추가로 개설된 후 더 심화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보류중이지만 당장 국립아라바예바대학교와 오쉬국립대학교의 언어(외국어)학부에 한국어전공이 추가로 설치되면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세계적인 언어 한국어가 하나이듯 거시적 조직론의 관점에서 한국어보급 네트워크를 바라보면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틀 속에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내부를 조망해 보는 것은 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여 시정하기 위함이지 구성 요소간의 경쟁구도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다. 한국어 세계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어 교원 모두가 국가적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적 공공외교의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교원해외파견사업’은 꿈과 사랑이다!

출국 전후에 내가 가르쳤던 KGSP(한국정부초청장학생과정) 대학원 과정 두 개 기수 중에 키르기스스탄 출신 제자가 세 명이나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 보았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도와 줄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했던 기억만 난다. 그런데도 그들 덕분에 파견 사업에 참여했고, 지금도 더 많아진 제자들 덕분에 이 글을 쓴다. 그들을 보면 나의 대학원 유학 시절이 떠오르고, 내가 어학연수를 받으며 느꼈던 그런 답답함을 똑 같이 느끼겠구나 싶어 종종 마음이 아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예전의 내 꿈과 희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한다.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우리 정부 초청 장학생을 추천하는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 시에도 그들의 꿈과 비전에 더욱 관심이 갔다. 파견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나는 늘 한국어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많은 행사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KGSP 출신(한양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 선배에게 특강을 요청하여 선후배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준 일이다. 선배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특강이후 상담을 자청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다.

▸ KGSP 선배(Embassy Track) 초청 특강 및 장학생 추천 면접 심사

“나중에 여러분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학생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나의 화답이다. 그리고 이번에 '교원해외파견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과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아니, 세 명의 키르기스스탄 제자 중에 두 명을 비슈케크에서 만났고, 아직 한국에서 대학원 재학 중인 한 명은 똑같이 생긴 언니를 대신 만났다. 한국에 있는 동생이 전화를 해서 꼭 "우리 선생님 만나서 불편한 거 도와주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파견 기간 중 도울 일은 없는지 수시로 안부를 물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가!

대학원을 졸업한 두 명 가운데 나머지 한 명도 밥을 사 주고 봄에 선후배 만남의 날 특강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무산된 것이 못내 아쉽다. 그 외에도 아래의 2020년 상반기 주요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었다. 남이 안 하는 거 많이 해볼 기회를 앗아간 코로나가 밉다.

- 키르기스 교육부 주최 '외국어 올림피아드' 참가(3월)
- 한국어교수협의회 주최 '퀴즈대회', '대학생 연극제' 참가 예정(3-4월)
- 69회 토픽 시험 관리관-제2도시 오쉬 지역 출장(4. 12)
- 2차 KGSP 대학원 장학생 선배(Univ. Track) 초청 특강(4월 말)
- 한국어교수협의회 주최 '대학생 말하기 대회' 심사(4. 25)
- 한국어교수협의회 주최 '대학생 민속놀이(체육대회)' 참가(5. 9)
- 현지인 한국어 교사 대상 집중 연수(한국교육원)(5월 말)

꿈과 사랑은 계속된다!

코로나로 인해 키르기스국립대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우리는 신속하게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대처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어학회' 외에 '국제한국어교육학회'에도 한 편의 논문을 더 게재하는 등 격리기간을 밤낮없이 바쁘게 보냈다. 그러나 정든 제자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온 것이 여전히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어는 좀 늘었는지..... 그래서 귀국 후 온라인 교육과정을 챙기고 있는 교육원장과 통화하여 한국의 모 대학과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사업'을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긴 하지만 IT강국 대한민국은 저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해서든 뜨거운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이어가리라 믿는다.

이제 일 년 남짓 후(2022.1.31.)면 한·키 수교 30주년이다. 그런데 해외파견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한국어 교육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 우리는 또다시 만날 것이다.

▸ 〈세계 언어의 날 등 행사 참가를 마치고〉

벌써 위의 사진 속 학생 한 명이 모 기업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6개월 한국 연수 과정에 지원한다고 해서 추천서를 써 주었는데 얼마 전에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 잊어버렸던 꿈을 마흔이 훌쩍 넘어서 되찾은 나보다는 다들 나을 것이다. "얘들아, 나도 마음만은 여전히 청년이란다!" 젊은이들에게 뒤질세라 아직도 나는 남이 안 가본 길을 열심히 걸으며 남이 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중이다. 지금은 한국어 교육 분야를 잠시 떠나 지방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을 하고 있다. 예전의 영어 선생님은 여기서도 제자를 만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 했던가? 모든 것이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의 교육경험을 공유합니다

채송이(페루/수학)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남미 페루로 파견을 나와, 올해 3년째 COAR CUSCO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 채송이입니다. 남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페루 정부는 3월 중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말이죠. 이에 따라 개학은 미뤄지고, 모든 교사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일 년 내내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페루 쿠스코의 아르마스 광장은 지금도 휑하니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고요합니다. 곧 괜찮아지겠지, 몇 달 후면 학교에 갈 수 있겠지 하던 게 어느새 11월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 얼굴을 한 번도 못보고 이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가신 선생님들도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쿠스코 전경

▸ 국가 보건 비상사태 이전, 2월에 찍은 학교 사진

코로나에 대응한 COAR 학교들의 결정

국가 보건 비상사태에 따른 통행 제한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에서는 4월부터

aprendo en casa(집에서 배워요!)라는 프로그램을 라디오, tv, 웹페이지를 통해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ebs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수업을 방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COAR 학교는 국제 IB 디플로마 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페루국가교육과정에 기반하여 방송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OAR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자면, COAR는 페루 교육부에서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의 차원으로, 페루의 미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공립기숙영재학교입니다. 전국에 28개의 COAR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COAR 차원의 연이은 회의에 거쳐, 28개 COAR 학교들은 4월 16일부터 구글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학과의 경우에는 기존 수업시간에 활용하던 칸아카데미를 더욱 적극 활용하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 4월 16일 온라인 개학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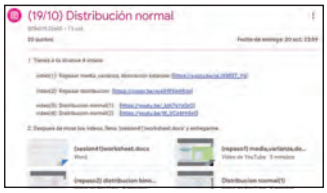
구글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인터넷이 가능하고 전자기기를 보유한 학생들만이 구글클래스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AR학교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집은 페루 전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생활환경도 천차만별입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전화통화를 위해 40분을 걸어 나가야 하는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노트북, 스마트 폰 등의 기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형제들과 핸드폰 하나를 나눠 써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각 COAR 학교는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룹 1은 오직 전화통화로만 수업이 가능한 그룹, 그룹 2는 인터넷, 전자기기 등의 환경이 갖춰진 그룹, 그룹 3은 전자기기는 있으나 인터넷이 불가한 그룹입니다. 그룹 2의 경우에는 구글클래스룸으로, 그룹 1과 3은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활용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메신저와 전화통화로만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인쇄된 교재를 학생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COAR 차원에서 IB 커리큘럼에 맞춰 과목, 단원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 각 COAR의 교사들이 학교 상황, 학생 수준에 맞춰 교재를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한 나의 수업 계획

저는 5학년 전체 네 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주 24시수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반을 통합해서 수업을 하게 되어 공식적인 수업 시수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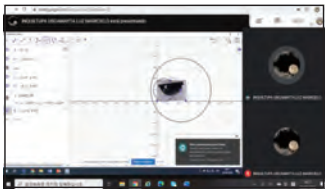
온라인 개학날에 맞춰 먼저 그룹2를 위한 구글클래스룸을 정비하고 그룹1과 3을 위한 교재를 편집했습니다. 그룹1, 3 학생들은 자료를 따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을 감안해 교재에 최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 풀이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룹2의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문제나 활동 위주로 교재를 편집했습니다. 그룹 2의 경우 구글클래스룸을 과제관리 플랫폼으로 쓰되 수업방식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영상을 사전 제작하여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먼저 개념설명 및 문제풀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수학 시간표에 맞춰 구글 클래스룸에 학습지와 함께 영상을 공유합니다.
2. 학생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학습지를 해결한 후 제출합니다. 그리고 칸아카데미로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3. 저는 수업 시간동안 구글 meet에 들어와 있고, 학생들은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meet에 들어와 질문을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4.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확인 후 틀린 부분에는 코멘트를 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짚어줍니다. (그래프나 수식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피드백 합니다.)
5. 학생들은 코멘트를 보고, 과제를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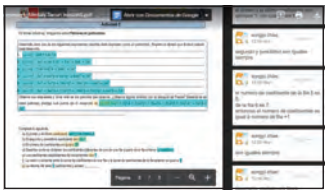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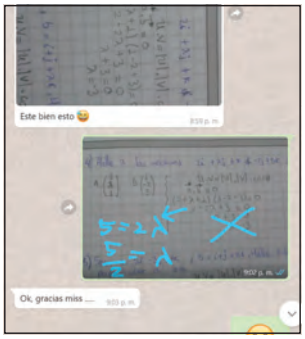
▸ 1. 영상과 학습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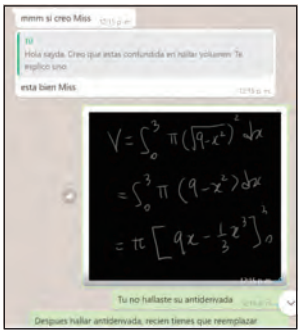
▸ 2. 학생 과제 제출



▸ 3. 궁금한 점은 meet으로







▸ 4. 과제 확인 후 코멘트 또는 메신저로 피드백하기

구글 meet을 활용해 실시간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중간에 실시간 수업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다음의 이유로 계속해서 사전 영상 제작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1. 우선 학생 수가 많습니다. 수학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해 5학년 전체 반을 맡게 되면서, 주어진 수학 시간표 안에서 네 반을 통합하여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룹 2의 학생들이 45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 90분 정도의 온라인수업에서 45명의 학생들 모두에게 피드백 해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사전 제작한 영상을(20~30분) 공유하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준 후에, 피드백은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학생들마다 수준차가 상당합니다. 5학년 네 반 중 두 반은 문과, 나머지 두 반은 이과입니다. 네 반의 수준이 다 다른 상황에서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이 힘들뿐더러, 수업은 보통 대답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 수업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 영상을 제작하면 학생들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을 반복하고, 반면 습득이 빠른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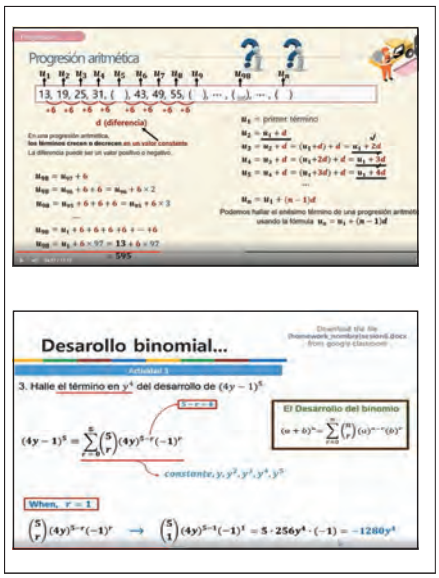
3. 인터넷 상황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어느 누구 하나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실시간 수업

은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힘듭니다. 사전 제작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수학 시간에 인터넷 문제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날 오후에라도 영상을 보고 과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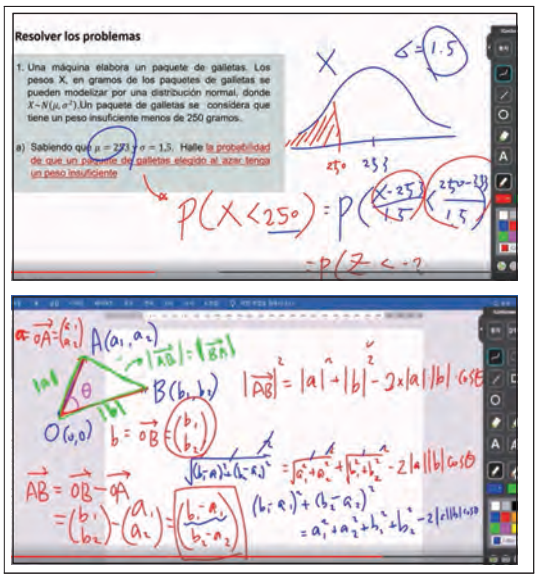
물론 이 방법의 단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 간의 토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니 생각을 쌓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교사-학생 간 즉각적인 피드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제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는 사전 제작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점 보완을 위해 구글 meet이나 왓츠앱 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피드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룹 2 학생들 반응에 따른 수업의 변화

학생들의 피드백에 따라 수업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제 수업 영상은 미리 ppt에 과정을 다 써놓은 후 그것을 짚어가며 목소리로 설명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 문제를 직접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정을 미리 써놓지 않고, 직접 필기하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 초기 수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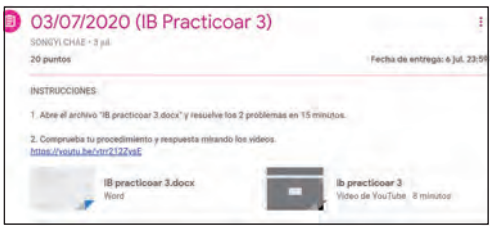


▸ 바뀐 수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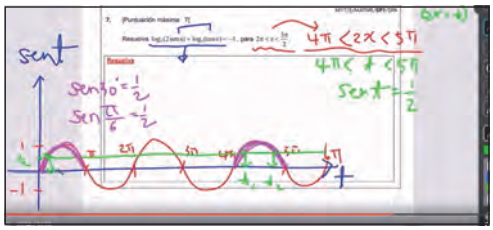
그리고 처음에는 영어로 영상을 제작했으나, 스페인어로 수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스페인어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식 수업에서는 영어를, 개인 지도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 공식 수업도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제 편의를 위해 그 부분을 무시해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곳이 영재학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페루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거나 아주 기본적인 문장, 단어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COAR에 입학합니다. 5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회화 능력을 갖추기는 하나 수학용어나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확실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어에 집중하느라 내용 학습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스페인어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더 많은 준비시간을 투자해야 했지만 확실히 좋은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수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는 반응을 보면서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한 수업 전략 변화

5학년 학생들에게는 10월 말에 치루는 IB 지필시험이 큰 부담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IB 디플로마 성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지필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규 수업과는 별개로, 10~15분 동안 2문제를 풀어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사전제작한 풀이영상을 보도록 했습니다.



▸ IB 기출문제 학습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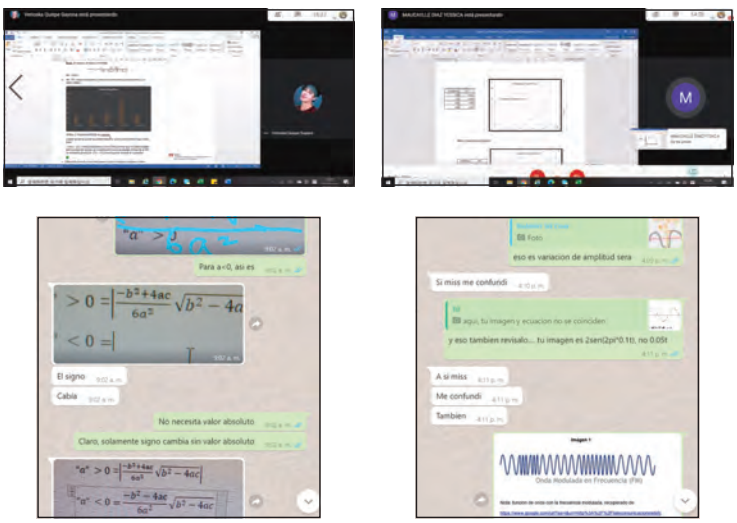


▸ 기출문제 풀이 영상

그런데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필시험이 취소되고 수학탐구보고서(exploracion matematica)로만 성적이 판가름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수학탐구보고서 지도에 더 힘을 실어야 할

이유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개인별 일대일 지도에 들어갔습니다. 약 85명 학생들의 탐구보고서를 매주 일대일로 지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른 학년을 담당하는 수학 선생님들께서 일부 학생들을 맡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5학년 담당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서 저는 36명의 학생들만을 집중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수학 보고서 작성을 뒤로 미루고 미루다 기한이 다 와서야 급하게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도도 떨어지고 내용도 미흡한 게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 방해 요소가 학교생활을 할 때보다 많고, 학생들도 덜 긴장한 상태로 학업에 임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5월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학생 개별로 구글 클래스룸에 진행상황을 올리도록 하고 코멘트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meet을 통한 일대일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본인의 화면을 공유하여 보고서의 진행상황이나 현재 수학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면, 함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하거나 문제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분석 내용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수식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회의 이후 학생은 보완할 점을 보완하면서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재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meet을 통해 회의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탐구보고서의 제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긴 과정 동안에 학생들 개개인의 의지가 참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여러 난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꾸준하게 수학탐구보고서 작성에 공을 들였고, 지금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구글 meet, 왓츠앱 메신저 등을 통한 수학탐구보고서 지도

그룹 1과 그룹 3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

그룹2 학생들과의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큰 학업적 손실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들의 고민은 항상 그룹1, 그룹3 학생들을 위한 수업방법이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노트북이나 책을 대여하는 방안들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한 통행 제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룹1, 3 학생들에게는 전화통화를 통해 학습상황을 파악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 중 데이터로 왓츠앱 메신저 사용이 가능한 학생들과는 메신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학과에서는 단체 왓츠앱 채팅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룹 1, 3 학생들 중 왓츠앱 사용이 가능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교사는 단체 채팅방에 그 날의 수업 주제와 관련한 짧은 비디오, 용량이 작은 사진 등을 올리고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각자가 갖고 있는 교재로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도록 지도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점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상황이나 데이터 상황에 따라 제 시간에 채팅에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채팅 내용을 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시대 학력증진 방법 모색을 위한 전체교직원 회의(좌) COAR 수학과 교사들 회의(우)

▸ 그룹 3 단체채팅방. 용량이 작은 이미지, 비디오를 활용해 수업하기

일부 교과 선생님들은 왓츠앱을 통해 5명 정도가 동시에 전화통화를 진행하면서 짧은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매번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학생들의 학업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며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봅니다. 5학년 학생 중에 쿠스코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그것도 통화 신호가 잘 안 터지는 마을에 사는 학생이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 인쇄된 자료를 전할 길이 없어 교사들이 몇 달을 전전긍긍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문방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문방구에서 교재를 인쇄해서 학생에게 전달해 주도록, 거기에 더해 학습에 필요한 모든 필기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변한 상황을 마주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COAR 학생들은 정말 능력 있고 비전이 있는 학생들인데, 올해는 이를 뒷받침해 줄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학업보다는 생계문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학생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가슴 한 켠을 찡하게 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COAR CUSCO에 파견나온 해, 이 여학생도 COAR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생은 페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저 역시도 파견 첫 해라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제 역사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 주관도 확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버지가 일을 잃고 이 학생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느라 학업은 뒷전입니다. 공부할 상황이 안 되니 학업의지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학업 이전에 생계가 우선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계문제만 해결되면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화도 나고 허무한 기분도 듭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올해 1년을 그냥 버리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씁쓸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덕분에 COAR 학교가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나라의 리더가 될 만한 인재들을 뽑아 교육

비는 물론, 주거, 식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탄탄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COAR 학생들은 그동안 큰 걱정 없이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온라인 수업을 만드는 데 더욱 정성을 다하기, 꼼꼼한 과제 검사를 통해 학생 한명 한명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 주기, 학생들이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꾸준히 응원해주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파견 마지막 해를 돌아보며

아쉬운 점이 많은 한 해입니다. 수업 면에서는 그룹 활동을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규수업 시간 외에 개설하려고 생각했던 수학 보드게임반, 수학 퍼즐반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준비해 온 체험교구, 교재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얼굴을 보며 상호작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니 학생들의 이름과 목소리는 너무 친숙한데 정작 학생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유선상으로는 꽤 친한 사이인데, 길 가다가 만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는 우스운 생각도 듭니다.

대면수업에 비해 힘들었던 점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다보니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업무의 끝은 6시지만,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의가 대부분이고, 또 학생들에 따라 밤 시간에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밤이나 새벽에도 메신저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만 가능한 그룹1 학생들과의 수업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학수업을 육성으로만 진행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스페인어가 유창하지도 않은 제가 필기 없이 말로만 수학개념을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비대면 수업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대일 피드백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그룹2, 3 한정). 그날그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한 후, 앉은 자리에서 바로 왓츠앱 메신저를 활용해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오개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영상 링크를 보내거나, 바로 부연설명을 작성해 사진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대일 피드백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들과 유대감도 생기고 정도 깊어짐을 느낍니다.

나의 소망

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사업체가 업무를 중단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학교는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등 모든 구성원이 사회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현장이 마주한 한계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일 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없으니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동료교사들과 비대면 수업에 대해 더 고민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상황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도 천천히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그립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그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페루의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자료]

* 구글클래스룸 주소

1단원 : https://classroom.google.com/c/NjgyNzIyOTgzMTda

2단원~현재 : https://classroom.google.com/c/MTMzMTAwODczNDAw

* 사전제작 영상 링크 (2020.11.02.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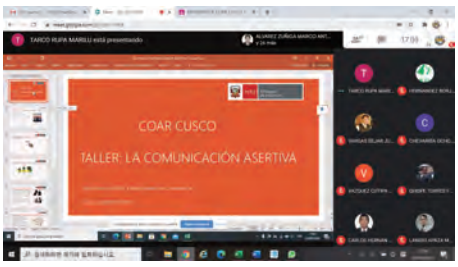
0_INTRODUCCIÓN	https://youtu.be/fU2Czvtnzml
1_PROGRESIÓN (총 3개 영상)	https://youtu.be/q5f4XP7CzSc https://youtu.be/NUGTsltDVzQ https://youtu.be/SJnqkHZ3Qvl
2_SERIE (총 3개 영상)	https://youtu.be/b8PbK-LIJoo https://youtu.be/b0YFhBbL0as https://youtu.be/fpal_mVjLDE
3_CAPITALIZACIÓN (총 3개 영상)	https://youtu.be/gArFiyHzEDc https://youtu.be/x5NZ1syrRWI https://youtu.be/1xu9QVszNLE
4_SERIE CONVERGENTE (총 2개 영상)	https://youtu.be/RcE5WvgbYOk https://youtu.be/4W7_cdryAc0
5_TEOREMA DEL BINOMIO(1) (총 2개 영상)	https://youtu.be/j3f9d14YOS8 https://youtu.be/etj8ldQwCd0
6_TEOREMA DEL BINOMIO(2) (총 2개 영상)	https://youtu.be/5pFfnqRbcB4 https://youtu.be/-NzdoILhZiw
7_(REPASO)DERIVADA	https://youtu.be/dyB9F9dF6Tk
8_LA DERIVADA Y SUS GRÁFICOS (총 2개 영상)	https://youtu.be/7YmIuJKFe_A https://youtu.be/UAjtCKs9TNQ
9_USO DE HP PRIME CALCULADORA	https://youtu.be/v6E0ncmk48k
10_APLICACION DE LA DERIVADA(1)	https://youtu.be/ykPJ7bl405k
11_APLICACION DE LA DERIVADA(2) (총 2개 영상)	https://youtu.be/TE2XCZF3vBg https://youtu.be/1Yf7AfsIzqI
12_ANTIDERIVADA Y SU REGLA (총 2개 영상)	https://youtu.be/VgU9EO-RimY https://youtu.be/CIaWr8PIv7w
13_INTEGRAL DEFINIDA (총 2개 영상)	https://youtu.be/FHOXIy3w_Zc https://youtu.be/NMIvHLOex80
14_Integral definida:el area bajo la curva	https://youtu.be/nnJMeVKBe2A

(총 2개 영상)	https://youtu.be/z8sRR2K0Fqk
15_volumen de revolucion(총 2개 영상)	https://youtu.be/64NDd4BnCLY https://youtu.be/75gt2-1_zUc
17_Concepto de vector+IB기출문제풀이 (총 6개 영상)	https://youtu.be/izT82tWhPNE https://youtu.be/XW1FIfdvHIA https://youtu.be/fuNDdUaeRzY https://youtu.be/QbbZG40Oep8 https://youtu.be/j2mluQSDP9M https://youtu.be/0HljynSTdWM
18_Operaciones de vectores+IB기출문제풀이 (총 5개 영상)	https://youtu.be/5jU6tA2q5jg https://youtu.be/GiSfkHybdcA https://youtu.be/8bDzGeijH94 https://youtu.be/NccwwcLD7Ps https://youtu.be/HIuvNjmox8k
19_Producto escalar+IB기출문제풀이 (총 6개 영상)	https://youtu.be/TJln6owO3Sc https://youtu.be/pByvH0517YQ https://youtu.be/9tWn35CgmVI https://youtu.be/PyCy8UPz7Ak https://youtu.be/vtrr212ZysE https://youtu.be/4xGBQf0gXD8
21_Repaso(producto escalar)+IB기출문제풀이 (총 4개 영상)	https://youtu.be/tboWzMvn3jI https://youtu.be/jW_xEkJ41F8 https://youtu.be/fFWT8auhfII https://youtu.be/eIwXFgdD2eU
22_Ecuacion vectorial+IB기출문제풀이 (총 6개 영상)	https://youtu.be/I8X-PzF3x4A https://youtu.be/sROzPx4O3CQ https://youtu.be/4Qy1SKkHpoI https://youtu.be/63bVjT0KW88 https://youtu.be/BxIIQjAuahU https://youtu.be/G-FL4hWVmSQ
23_Repaso(ecuacion vectorial)	https://youtu.be/0Hc0h6aUeGs
27_Probabilidad1 확률기본 개념 (총 2개 영상)	https://youtu.be/a7vV2P7avEo https://youtu.be/OeKEY1qPHkY
28_Probabilidad2 확률계산, 다이어그램 (총 2개 영상)	https://youtu.be/7QCe7QX0esw https://youtu.be/Vj6MMYI-qPM
31_Probabilidad condicional (총 3개 영상)	https://youtu.be/nsnWkO7WByU https://youtu.be/mDF3X8Wv3Ls https://youtu.be/dia3yxB_M9M
37_variable aleatoria, distribucion de probabilidad, esperanza matematica	https://youtu.be/aH6OnysfJqg https://youtu.be/N_-kIFz768g

(총 3개 영상)	https://youtu.be/MYam7U8OfvU
38_Distribucion binomial (총 3개 영상)	https://youtu.be/bMOkeDT3UG8 https://youtu.be/UjBcO0LIkXM https://youtu.be/Z6yuwQI19Eo
41_Distribucion normal (총 4개 영상)	https://youtu.be/oLIX8fGT_Yg https://youtu.be/ycyIHRXmHUw https://youtu.be/_kbI7gYzGrQ https://youtu.be/W_VCz4Hr6v0
42_Distribucion normal estandar (총 3개 영상)	https://youtu.be/XFIYT5pCV80 https://youtu.be/fHlZA2KXkfI https://youtu.be/3IkrUW14TGM
43,44_tipificacion (총 2개 영상)	https://youtu.be/GObEriu335U https://youtu.be/GNWvWAr_KtA
45_Repaso(las ecuaciones de las rectas)	https://youtu.be/cqOcNSc2coM

* 비대면 회의, 행사 캡쳐 사진 (일부)

〈학생 소논문 관련 교사 연수〉
(과목별 교사 연수, 워크샵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회의〉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 전교직원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 맞이 행사〉
(학생의 날을 맞이해 모든 교사들이 각자 짧은 영상(춤, 노래, 코믹, 연기 등)을 준비해 학생들과 공유했습니다. 개교기념일, 스승의 날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행사들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공연 및 전시회 행사〉
(학생들의 미술 작품, 노래와 춤, 연극 등의 문화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학생들의 교과 학습에 따른 결과물들은 비대면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Ⅰ. 교육활동 수기

장려상

전화위복

(코로나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들)

김보경(우간다/수학)

어느날 갑자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처럼 1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하면 동물의 왕국, 구호사업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마음에 자리 잡은 아프리카에 대한 로망과 쉬지 않고 달려온 12년의 교사 생활에서 전환의 필요성은 ODA교사 파견사업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2020년 1월 10일 내 생에 처음으로 나는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리는 우간다에 서 있었다.

7주간의 학교 수업

2월의 시작과 동시에 Kololo High School에 출근을 시작했고 운 좋게 둘째 날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 반에 일흔 명씩, 다섯 개 반의 S2 (우리나라 중3) 수업을 일주일에 80분씩 들어갔다. 칠판과 분필이 전부인 교실 환경에서 일흔 명의 아이들을 수업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관계를 만들어야 했다. 학교 시스템, 교직원 문화, 교실 인프라 등 모든 것이 한국의 학교들과 달랐지만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기에 초임 교사의 마음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변화를 제안하고 싶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단어 외우듯 외워서 수업 시간마다 불러줬다. 다수학급에서 불가피한 일제식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외국인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 문화가 형성되는 듯 느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려던 그때, 아프리카에도 코로나가 찾아왔고 학교

의 문은 닫혔다.

15주의 록다운

코로나는 쉽사리 지나가지 않았고 학교의 문도 열리지 않았다. '일시 출국'을 결심하기까지 15주간을 보냈다. 현 상황에서 일시 출국은 즉 프로그램 종료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7월 7일, 정확히 반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록다운 시절을 돌아보면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것을 성취한 것으로 스스로는 생각한다. 현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짚고 15주 동안 본인이 파견교사로서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살펴보자.

우수한 한국 교원 파견을 통하여 ①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② **인적자원 개발**과 ③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 외국어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과외 수강

외국 생활의 경험 없이 평범하게 자라 10년 넘는 수학 교사 생활을 하면서 영어로 유창하게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란 어려웠다. 그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우간다에 올 수 있게 해주었는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면서 유창한 언어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지식이든 문화든 삶의 태도이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언어였기 때문이다.

록다운으로 시간이 생기자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마침, 이웃에 사는 '현지 영어 교사'를 길에서 마주쳤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60차시(약 75시간)의 수업을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했다.

날짜	구분	횟수 시간	세부 내용
4/9~4/18	영어 수필	10회 각60분	An Amazing Journey to Africa 파견 사업에 지원하여 우간다에 오기까지의 과정
4/21~5/22	영어 수필	14회 각70분	The Genesis of African Dream in Uganda 우간다에서의 다양한 첫 경험들을 통해 돌아본 나의 삶
	주제별 말하기, 듣기 연습	14회 각90분	공통주제에 대한 두 나라의 경험 비교 (결혼문화, 해외여행, 음식, 가족문화, 교사-학생 관계, 식민지 역사, 교사가 되는 과정, 학생의 성취도의 요인들, 삶의 어려운 순간, 좋은/나쁜 선생님, 대학생활, 취미 등)
5/25~5/30	소통하기	6회 각90분	인사와 소개하기, 인터뷰 주고받기, 토론하기(코로나에서 정부의 개입), 주어진 상황에서 말하기
6/1~6/20	발표하기	14회 각60분	환송식에서 감사인사, 장례식에서 애도사, 프로그램 제안하기, 조회 훈육, 졸업식 감사인사
6/22~6/30	시제 말하기 연습	6회 각60분	총 아홉 종류 시제 사용연습하기

60분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시간이 두 시간, 복습시간이 한 시간 가량 들었으므로 하루의

꽤 많은 시간을 영어로 생각하며 보낼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느낀 변화는 내가 만든 영어문장이 어느 정도는 나의 생각과 그 의미가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또, 주제별 대화에서 두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다양한 차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의 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주제에서 한국교사인 나는 동기부여 기회, 꾸준한 노력을 이야기했지만 우간다 교사는 가족환경 결핍, 가난 등 훨씬 기본적인 요인들을 말했다. 또 두 나라 모두 식민지배를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간다가 영국을 대하는 시각은 전혀 달랐다. 이처럼 우리의 영어 수업은 한국 교사와 우간다 교사 사이의 각 나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나. 동네 수학교습소 운영

휴교가 길어지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현 상황에서 가능한 아이들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동네에서 수학을 좋아한다는 P7(우리나라 중1)학생과 마음을 맞추어 만나기 시작했다. 사실 록다운 기간에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을 돌봐줄 여력은 없었다. 그렇기에 이 수업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첫 주는 P6 수학 문제들을 통해 결손난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을 복습했다. 그러던 중 길을 지나던 수학을 좋아하는 다른 학생이 수업에 합류했다. 동네 골목에서 하는 수업이지만 시간, 숙제 등 규칙과 약속을 정하고 책임감 있게 수업에 임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두 명의 학생이지만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가정방문도 한 번씩 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놀기만 하던 아들이 집에서 숙제하는 모습에 기뻐하시면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 한 달간 수업에서 아이들이 배운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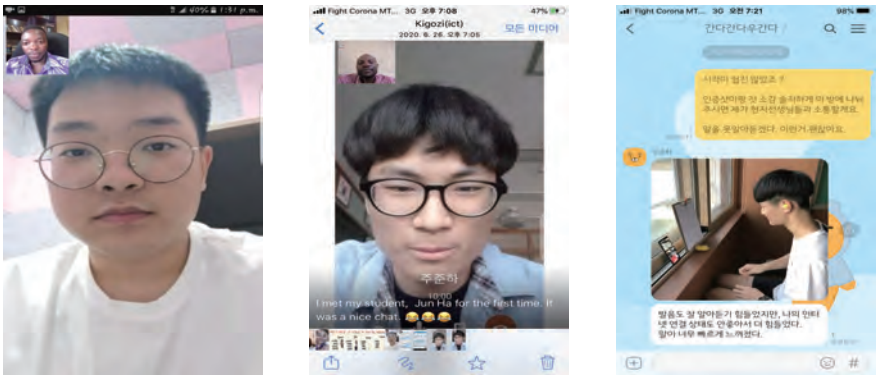
갑작스러운 귀국이 결정되면서 한 달을 겨우 채운 수업이지만 좌표평면부터 시작하여 일차함수 그래프까지 큰 주제 하나를 다 배울 수 있었다. 현지 학교 수업에서는 불가능한 기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 아이들에게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직접 사용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 세계지도를 줌인, 줌아웃하며 한국에 대해 우간다와 비교하여 알려주고 그동안 여행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우간다 서민층은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꿈을 꾸기 어렵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불가능한 꿈은 없다.

다. ‘GO, GO, UGANDA’ 교류 프로그램 운영

5월 중순, 한국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 다섯 명 고3 학생들이 ‘간다, 간다, 우간다’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대략 현지 학생들과 연결하여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3월 말부터 시작된 록다운 상황에서 현지 학생을 섭외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는 현지 교사들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사실, 동아리 부원 친구들은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즉, 영어 회화 실력이 그리 원활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기에 현지 교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친하게 지내던 다섯 분의 선생님들을 한국식당으로 모셨다.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의 배경에서 동아리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하고 싶도록 제안했다. 모든 선생님이 흔쾌히 수락했고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그 주제들은 동아리 부원들의 진로 희망과 연관되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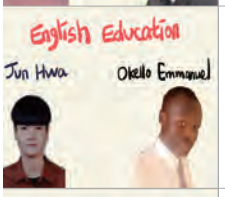
▸ 한국식당에서의 첫 미팅

첫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다. 비디오 콜로 인사를 나누는데 시차, 네트워크 환경 등 물리적인 상황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음 검은 피부의 사람과 아프리카 악센트의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당황스러워했다.



▸ (첫 화상통화 경험)

그 피드백을 일일이 물어보고 상대측에게 전달하고 독려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며 그들이 조금씩 적응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주제와 참가자	화상통화 내용(수시로 문자 대화)	느끼고 배운 점
	1차 화상통화: 공통 관심 주제인 패션과 서로의 취미를 소개함. **2.3차** 화상통화: 사진을 공유하며 한복의 디자인과 하동의 섬진강, 송림 등 한국의 자연미학을 소개하고, 선생님께서도 우간다의 전통 옷을 소개함.	**학생들**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타파 언어로서 영어의 효용성을 실감하고 회화위주의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가 생김 신발이 없는 우간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의 소비생활을 돌아봄.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됨. **선생님들** 각 주제별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각 나라 교육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이해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방법 연구
	1차 화상통화: 자기 소개, 응원하는 축구팀에 대해 이야기, 우간다의 'posho'라는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그 후 검색해 보니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가루였음. **2차** 화상통화: 공통취미인 축구선수, 축구팀에 대해 소개. **3차** 화상통화: 우간다의 소방관에 대해 질문하여 양쪽 나라의 소방관의 차이점을 비교.	
	1차 화상통화: 자기소개, 좋아하는 책, 음악관, 일상 나눔 **2차** 화상통화: 레게, R&B, Soul, 재즈 등 구체적인 장르에 대해 나눔, 선생님께서 기타리스트를 추천해줌. **3차** 화상통화: 서로 연주를 보여줌. 선생님이 부른 노래를 한국스타일의 기타반주에 얹는 숙제를 해옴.	
	**1차** 화상통화: 간단한 인사, 각자 취미에 대해 대화. **2차** 화상통화: 선생님의 전공인 영문학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과 영어 문학 교육을 비교함. **3차** 화상통화: 각 나라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 고3의 의미 설명.	
	1차 화상통화: 진로를 중심으로 자기 소개를 함. **2차** 화상통화: 공통 관심 분야인 심리학 안의 공동체나 성별간에 차이에 대해 나누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힘. 관련된 한국의 문화도 알려줌. **3차** 화상통화: 한국 고등학교의 시스템을 알려줌. 심리학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을 이야기함. 남녀관계에 있어 양쪽나라의 인식을 비교함.	

적어도 다섯명의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우간다는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섯명의 우간다 선생님들에게 한국은 그들의 친구의 나라이고 학생의 나라가 되었다. 그들의 넓은 시각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우간다 교사들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쌍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이 가장 좋았냐고 물어온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어쩌다 자연스럽게 참여한 프로그램이지만 한국을 떠날 때, 마음속으로 정한 목표들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인으로 나고 자라면서 가지게 된 고정관념을 알아차리고 버리기' 그리고 '한국에서 당연한 것으로 누려온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 알기'가 그것들이다. 우간다에서 지낸 매 순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 다름을 틀림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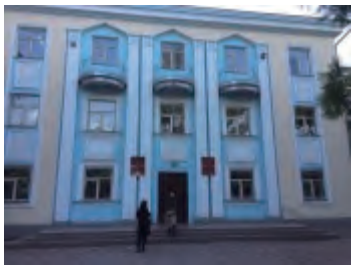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도 이겨낼 만큼 따뜻한

송영은(키르기스스탄/한국어)

2019년 9월 7일, 나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도착했다.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세 명의 파견교원에게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들었던 키르기스 문화 수업과 언어수업은 어느새 먼 과거의 일이었다. 어둑해진 하늘과 낯선 글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지를 찾고 근무지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도착 다음날 한남식 현지지원요원은 새로 온 파견교원들을 위해 현지적응 투어를 해 주었는데 근무하게 될 키르기스 국립대학교 본관 건물 앞에는 때마침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있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반기는 것만 같았다. 1년 동안의 비슈케크 생활이 꽃처럼 화사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되었다.

▸ 마나스 국제공항

▸ 키르기스 국립대 본관 앞



▸ 키르기스 국립대 외국어대학 건물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은 2019년 6월에 이낙연 총리의 방문으로 구체화되기 시작

하였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 등 타과에서 한국어를 교양과정으로 배우고 있었으나 '한국어'를 전공으로 졸업하게 될 학생들은 언어학과 한국어 전공생들뿐이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는 2019년 9월, 키르기스스탄 전국에서 총 24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립대 내 한국어 전공 과정의 역사적인 한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에는 나를 포함한 3명의 파견교원이 배정되었다. 우리는 한국어전공 교과과정과 교수 내용 등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공생을 지도하였다. 동시에 기존 코이카 파견단원과 함께 이끌어가던 비전공자를 위한 한국센터 수업도 함께 맡아 근무하였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새 파견교원이 전담으로 한국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파견자와의 근무지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 키르기스 국립대 한국어 전공 학기별 교육과정

▸ 한국어 전공 학생들 (학생의 날)

▸ 한국센터 초급반 수업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식쿨, 추이, 나른, 탈라스 등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뽑힌 학생들이었다.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다수의 학생들은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이나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온 학생들이 많아 전공생 24명의 수준 차이가 극심하였다. 속담을 사용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가나다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 수업의 난이도 조정이 언제나 문제가 되었다. 2019년 1학기에는 학생들도, 파견교원들도, 관련 담당자들도 수업의 난이도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한국어를 잘하고 성실한 학생을 반장(수업 도우미)으로 선출하여 서로의 말을 통역하도록 하였다. 반장이 없었으면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끝냈을지도 모르겠다.

2019년 1학기를 보내면서 우리 파견교원들은 고민이 생겼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와 수업 난이도 문제였다. 2학기 수업은 한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포함), 문화 간 의사소통 입문, 쓰기였는데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한 반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무리였다. 지난 학기와 같이 반장이 설명하는 모습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우리는 2020년 1월 13일부터 시작된 2학기의 수업은 1학기와는 다르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한국어 수업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수업하였다. 고급반의 경우 고급 어휘를 사용하고, 수업시간에는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빈도를 높이는 등 교재의 진도는 맞추되 심화학습을 진행하였다. 반면 초급반은 한생들이 배우지 않은 단어를 한정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하였다. 초급반 학생들도 "선생님 말 알아요."라며 수업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파견교원들은 이제야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눈에 보인다며 키르기스 국립대 생활에서 보람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두에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교원들과 학생들의 일상을 앗아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모두는 3월 14일까지도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하지 못 하였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는 갑작스레 휴교령을 내렸다. 우리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보다 일찍 개강했던 터라 휴교령이 반갑기도 하였다. 휴교령 동안 미니 시험 출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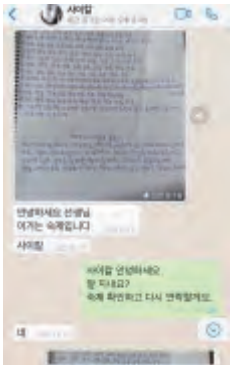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오래 지속되었다. 일주일 후 휴교령은 해제되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름하야 비대면 수업. 키르기스스탄의 인터넷이 포함된 휴대폰 비용은 일주일에 천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나 집안에서 쓰는 인터넷은 가장 저렴한 요금이 13,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키르기스스탄의 평균 임금이 약 25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학생들이 만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왓츠앱(WhatsApp)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소유 및 컴퓨터 수업 가능 여부를 질문해 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가 없었다. 컴퓨터도 없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국립대에 파견된 류재율, 조윤효 선생님과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의논해가며 수업 과정도 짜고 진도도 논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 혼자만 파견되었더라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을 텐데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류재율 선생님은 자신이 홈페이지를 만들테니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는 왓츠앱이나 메일로 학생들과 일대일 소통 및 피드백을 제공하자고 제안하였다. 각자 맡은 반과 수업 과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고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학생들이 교사들의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매 수업마다 과제를 부과하되 그 과제를 피드백하기로 하였다. 홈페이지를 만든 초기에는 학생들이 "홈페이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라는 말들을 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계속 과제를 부과하고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듣고 함께 고민하자 학생들도 수업의 방향성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비대면 수업 전에는 한국어 시간만 분반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나 대면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엔 맞추어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고자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실은 우리 파견교원들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국어로만 작성된 과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겼었다. 하지만 영민한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우리에게 연락을 하여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기까지 했다. 학생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국립대 한국어 전공 홈페이지

▸ 홈페이지 내 수업 설명 및 과제 전달



▸ 과제 제출 및 확인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에서는 수업뿐만 아니라 시험도 비대면(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국립대의 모든 과목은 모듈 시험 2번, 중간, 기말 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간시험부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파견교원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행정실에 넘기면 행정실 담당자가 시스템에 한국어 문제를 입력하여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도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시험 문제

▸ 비대면 쓰기 시험

▸ 비대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시험

키르기스스탄에는 다양한 행사도 많았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대사관과 비쉬켁 한국교육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에 우리 파견교원들은 한국을 알리기 위해 자주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1월에 설날맞이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설날맞이 행사는 타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뽐내고, 한국 관련 담당자들이 대학교에 방문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세뱃돈을 건네는 행사라고 했다. 올해 설날맞이 행사는 1월 23일에 개최되었는데 하태역 주키르기스 한국대사와 김대관 비쉬켁 원장이 세뱃돈을 주기 위해 대학교에 방문하였다.

▸ 학생들의 부채춤 공연

▸ 우수 학생 세뱃돈 수여

▸ 기념 촬영

파견 교원들이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전공생들은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재능을 뽐내지는 않았지만 참석하여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였다. 키르기스 국립대 학생들은 한국의 부채춤과 K-pop 댄스와 더불어 한국의 판소리와 같은 키르기스 전통 문화 공연을 함께 선보였다. 나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보

니 키르기스스탄의 영웅인 마나스에 관한 서사시였다고 했다.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문화는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뱃돈 수여식이었다. 세뱃돈을 받는 학생들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기에 조윤효 선생님과 나도 한복을 차려입기로 했고 우리도 학생들과 많은 사진을 찍었다. 조윤효 선생님은 두루마기를, 나는 배자까지 입어 학생과 관계자들이 처음 보는 한복이라며 많은 칭찬을 해 주었다. 강의 시간에는 수줍어하던 학생들도 선생님이 예쁘다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 한복을 입고 행사에 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KGSP 정부초청장학생 면접

▸ KGSP 서류 검토

▸ KGSP 면접

3월11일에는 김대관 비쉬켁 한국문화원의 부탁으로 대한민국 정부초청 장학생을 선발하러 강의가 끝난 후에 류재율 선생님과 한국교육원으로 향했다. 정부초청장학(KGSP)은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 촉진 및 국가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2020년도에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1명의 키르기스인과 1명의 고려인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였다. 서류 심사 및 면접에는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류재율 선생님, 주 키르기스 한국대사관 서기관, 김대관 한국교육원장 그리고 내가 참여하였다. 서류를 확인한 후 면접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서류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들이라 그런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면접관의 질문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기도 뜨거웠는데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조사를 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의 질문 중에서 한국에서 수학하고 키르기스스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하는 질문에 한국의 선진 교육을 잘 배워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서 식품공학을 배워서 키르기스스탄의 꿀을 한국에 들여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인 학생의 경우, 키르기스스탄에 돌아온 후 고려인 센터를 지어 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에게 한국역

사와 문화를 가르치겠다는 포부를 알려 면접관들에게 키르기스스탄의 한국문화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나는 파견 교원으로서 면접관 앞에서 수업을 시연하고 면접을 보았던 지난 6월이 떠올랐다. 시연 전 덜덜 떨리던 손, 예상 질문을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마음, 합격 후의 미래를 향하던 성급한 머리를 기억한다. 면접관으로서 마주 앉아 면접자들의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감회가 새로웠다. 면접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해 보였는지.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모습은 마치 내 어릴 적 모습인양 하여 두 손 모아 응원해 주고 싶었다.

우리가 KGSP 장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이들이 모두 8월말이나 9월에 출국하여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바랐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바이러스는 파견 교원뿐만 아니라 노력의 결과로 선발된 장학생들의 일상에도 커다란 강제 쉼표를 선사하였다. 부디 장학생들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본국에서 포부를 당차게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문화 수업 과제

▸ 캘리그래피 수업

▸ 생일 파티

나는 한국문화 전공자이지만 한국문화에 관한 수업을 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한국어 강의 시간에는 주로 문법, 말하기, 쓰기 위주로 수업했기 때문에 한국문화 수업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그런데 2학기부터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 배정되어 마침내 한국 문화 수업을 할 기회가 생겼다. 수업의 내용은 강의를 맡은 교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한국문화 관련 아이디어를 모두 쏟아내었다. 류재율, 조윤효 선생님과 의논하여 주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에 사용할 수업 교재는 재외동포진흥교육재단에서 만든 "한글학교 학생용 한국문화"였는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수업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고,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전달하였고 키르기스 문화와 비교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아직 한 학기 밖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 하여서 한국 문화와 키르기스스탄 문화를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밝고, 명랑하고, 꾸밈없는 학생들은 심지어 문학성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국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한국의 무궁화에 비교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에 관한 시를 다시 적기 해 보았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않지만 한정된 어휘로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 하나를 소개하겠다.

제목: 아이굴[6] 꽃

지은이: 알트나이

A반에 타자굴/ B반에 아이다 굴/ C반에 박티굴[7]/ 굴, 굴, 굴, 모두 굴.

누군가 "시인은 가장 먼저 울고, 가장 늦게까지 견디는 사람"이라고 했듯이 학생들 키르기스스탄에 처음으로 방문한 우리를 가장 먼저 기쁘게 맞이하고 가장 나중까지 연락을 주었다. 1년 동안 골고루 조윤효, 류재율, 나의 생일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생일이 언제인지 알리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었던 학생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일을 챙겨주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백만장자인 학생들은 꽃다발과 선물 그리고 연습했던 한국어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 파견 교원 모두는 학생들의 따뜻한 정을 눈과 귀와 입으로 가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를 봐 주지 않았다. 키르기스스탄은 국가를 봉쇄하고 통행금지를 시행했다. 엄격한 규제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은 폭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

6) 굴은 키르기스스탄어로 꽃이라는 뜻이다.
7) 타자굴, 아이다, 박트굴은 모두 사람 이름이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파견교원의 안전을 우려하여 일시 출국을 권장하였다. 의료기술이 낙후된 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파견교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우리가 키르기스스탄에 처음 도착한 것은 9월이었다. 초록으로 푸르던 가을은 하얗게 덮인 눈과 어두운 건물들로 대비를 이루는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봄으로, 아니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빼앗긴 2학기에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비대면 따뜻함이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왔다. 품행을 포함한 기말고사 성적을 행정실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파견 일정을 끝내며 우리는 학생들의 1년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학생들의 열정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뚫고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행 전세기에 몸을 실었다.

[참고 자료]

키르기스 국립대학교 언어학부 한국어 전공 학기별 교육과정

학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1	전공필수	외국어『한국어』	8	전공필수	실용제1외국어1	9
	전공선택	외국어음성론의입문 『한국어음성론의입문』	3		고대및클래식언어 『중세한국어→한국한자어의이해』 ↔쓰기(2학년/2학기)	2
		제1외국어의실용문법 『형태론』	3	전공선택	문화간의사소통의입문	3
2	전공필수	실용제1외국어2	7	전공필수	실용제1외국어3	9
	교양선택	한국학(지리및경제)	6	전공선택	쓰기↔고대및클래식언어(1학년/2학기) 『중세한국어→한국한자어의이해』	3
		관광외국어			음성론의이론『음성학』	3
				교양선택	비지니스언어『비지니스한국어』	3
					전문외국어『실무한국어』	
3	전공필수	실용제1외국어4	7	전공필수	실용제1외국어5	7
	전공선택	어휘론	4	전공선택	19-20세기 한국문학 『근현대한국문학』	3
		통번역의이론및실습	5		문법『한국어문법론』	3
	교양선택	외국어교육에서의디지털방식 『매체한국어의이해』	6		언어의역사『한국어의역사』	3
		외국어교수법			의사소통중심교수법	3
				교양선택	한국학(역사및문화)	3
					외국어교육에서의영영별접근법 『한국어이해교육론』	
				실습	실습(교육실습)『한국어교육실습1』	4
4	전공필수	실용제1외국어6	7	전공필수	실용제1외국어7	6
	교양선택	통번역실습	7	전공선택	평가론『한국어평가론』	7
		법률및경제텍스트번역 『한러(키)시사번역』		실습	자격실습 『한국어교육실습3』	4
	실습	인턴제(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2』	4	논문	제2외국어	3
					제1외국어또는논문발표	3

[참고 자료]

2019년 2학기 2차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시험

날짜:
범위: 1-2단원 이름: _____
출제: 류재율, 송영은, 조윤효

1. 한국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④

① 단일기 ② 만국기 ③ 성조기 ④ 태극기

2. 키르기스스탄의 국경일은 언제입니까? ③

① 3월 1일 ② 4월 19일 ③ 5월 9일 ④ 8월 15일

3. 누가 한국의 국가를 만들었습니까? ③

① 방정환 ② 방효중 ③ 안익태 ④ 안정환

4. 한국 국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① 무궁화 ② 봉선화 ③ 수선화 ④ 해당화

5. 한글날은 언제입니까? ②

① 9월 9일 ② 10월 9일 ③ 11월 9일 ④ 12월 9일

6. 한국의 전통 인사는 무엇입니까? ③

① 전 ② 점 ③ 절 ④ 정

7. 아기가 태어나서 입는 옷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① 배내옷 ② 여름옷 ③ 우주복 ④ 작업복

8. 아기의 한 살 생일은 무엇입니까? ②

① 돈 ② 돌 ③ 돔 ④ 동

9. 아버지의 동생은 누구입니까? ②

① 큰아버지 ② 작은아버지 ③ 할아버지 ④ 작은할아버지

10. 전통 결혼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①

① 신부 집 ② 신랑 집 ③ 우리 집 ④ 친구 집

11. 제주도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③

① 고인돌 ② 미추홀 ③ 돌하르방 ④ 호랑나비

12. 한국에서 설날에만 먹는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④

① 고기 ② 송편 ③ 팥죽 ④ 떡국

13. 설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④

① 실 ② 씰 ③ 살 ④ 쌀

14. 한국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④

① 내복 ② 양복 ③ 하복 ④ 한복

15. 한국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③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국민학교 ④ 초등학교

16. 한국의 여름 방학은 언제입니까? ③

① 1월 ② 5월 ③ 8월 ④ 12월

17. 키르기스스탄의 돈은 솜(som)입니다. 일본의 돈은 무엇입니까? ②

① 동 ② 엔 ③ 원 ④ 킵

18. 한국 사람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①

① 밥 ② 빵 ③ 만두 ④ 피자

19. 한국에서는 무엇으로 밥을 먹습니까? ②

① 손 ② 수저 ③ 포크 ④ 나이프

20. 키르기스스탄 국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②

① 박트굴 ② 아이굴 ③ 굴나라 ④ 굴자낫

21. 어머니의 동생은 누구입니까? ②

① 고모 ② 이모 ③ 큰어머니 ④ 작은어머니

22. 한글의 옛날 이름은 무엇입니까? ④

① 군계일학 ② 수어지교 ③ 주객전도 ④ 훈민정음

23. 한국 국기에 없는 색은 무슨 색입니까? ①

① 노란색 ② 파란색 ③ 빨간색 ④ 하얀색

24.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③

① 중국 안 ② 중국 앞 ③ 중국 옆 ④ 중국 뒤

25. 서울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④

① 명동 ② 홍대 ③ 경복궁 ④ 해운대

26. 내가 태어난 날은 무엇입니까? ④

① 생선 ② 생신 ③ 생얼 ④ 생일

27. 옛날에는 아기의 생일에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①

① 금반지 ② 금팔찌 ③ 금 귀걸이 ④ 금 목걸이

28. KTX는 무엇입니까? ①

① 기차 ② 버스 ③ 택시 ④ 비행기

29.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④

① 배 ② 기차 ③ 비행기 ④ 얼룩말

30. 교통비가 필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③

① 비행기 ② 자가용 ③ 자전거 ④ 지하철

31. 설날에 먹는 전통 음식 국물에는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③

① 닭고기 ② 말고기 ③ 소고기 ④ 돼지고기

32. 설날에 먹는 전통 음식은 맛이 어떻습니까? ③

① 달다 ② 맵다 ③ 맛있다 ④ 싱겁다

33. 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③

① 소 ② 쥐 ③ 고양이 ④ 원숭이

34. 한국 음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① 그라탕 ② 비빔밥 ③ 삼계탕 ④ 생선찜

35. 한국 소스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③

① 간장 ② 된장 ③ 소금 ④ 젓갈

한글 캘리그라피 전시에 담은 한국의 가을과 미소의 선물

이유미(말레이시아/한국어)

Covid 19로 얻은 교육활동의 소중함과 노력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켜 갈 수 없었던 Covid 19 바이러스로 인해 3.21일부터 6월 8일까지 5차에 걸친 락다운 MCO(movement Control Order)이 실시되어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과의 대면수업 대신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활동을 겨우 이어나갈 수 있었다. 다만, 학생들과 유일하게 만나는 온라인 수업 준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파워포인트 제작, 티칭앱(Explain everything)에 녹음, 그리고 원활한 스트리밍 처리를 위해 유투브 링크와 구글미트에 직접 수업자료를 링크하고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무엇보다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외출도 안 되는 이동통제제한(MCO)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고립과 외로움은 학생들과의 온라인에서 만남과 수업준비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온라인 수업만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 이유이기도 하였다. '나는 이곳에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왔으니 온라인상에 만나는 학생들의 웃음과 학생들의 어설픈 한국어 발음도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MCO의 해제 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 하루 버티며 지낸 기억 또한 까맣게 타버린 필름의 생생한 하나의 생존인 기억이다. MCO가 6.9일 이후 해제되면서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발표로 6월 24일 2440개의 학교와 수백 개의 국제학교 학생들(Form 5, 국제학교 11학년,12학년)의 등교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 이어 순차적으로 일주일 후 Form 4 학생들의 학교 등교와 2주 후 Form 3, Form 4 등교로 오랫동안 바이러스로 침체되고 조용했던 학교는 학생들의 활기와 북적대는 공간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옴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물론 KPM의 운영 표준 운영절차(SOP)에 따라 현지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전교 학생들의 온도를 체크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감염 방지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통해 대면 수업에 비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며 교실 내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웃음 소리를 듣는 학교 수업과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9월 1일 이후 KPM의 발표로 그동안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로 제한되어 왔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신체 활동 등이 허용 단계로 완화되었다. 그동안 수업만 겨우 가능하여 미루어 왔던 한국어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과 소중함을 느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좌절되고 실시되지 못했던 활동들을 나름의 방법과 아이디어로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한글 축제 활동 준비와 행복의 서막: 떡볶이와 민속경기, 한글 카드와 시화만들기

10월 9일 한글날 기념 활동을 위해 한국 음식 만들기, 윷놀이, 한국 민속 경기 체험, 그리고 한글날 체험 활동을 위한 한글 카드 준비 등으로 세부 단계활동을 나누었다. 따라서 9월 셋째주부터 한글 축제 활동을 위한 시작을 우선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어 음식 만들기부터 시작하였다. 9월 셋째 주부터 한국 음식 만들기 시간을 마련하여 떡볶이와 시원한 수박 화채를 만들기 메뉴로 정해 요리하는 영상을 보며 레시피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한국 유투버들의 재미있는 '먹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 또한 문화 수업의 스토리텔링의 주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떡볶이 소스 만드는 비법과 레시피를 알려주고 비좁은 교실에서 좁은 프라이팬에 떡볶이가 익혀지는 시간 동안 해맑게 기대하는 학생들은 마치 엄마의 소중한 밥상을 기다리는 아이들 같았다. 그리고 더운 말레이시아 날씨에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화채는 코로나로 8월 말 이후 두 달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밥과 쉬는 시간에 학교 매점에서 사먹을 수 있는 군것질이 전부인 학생들에게 단비같이 촉촉하고 달콤한 이국적 음식임에 틀림없었다. Form 2, Form 4는 교실의 콘센트를 연결하여 어렵게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Form 3는 교실의 전원 불량으로 겨우 교무실에서 만들어 쉬는 시간에 한국어 학생들에게 종이컵에 배달하여 마치 이곳 말레이시아의 그랩 배달 문화를 연상시키는 해프닝 속에 함께 담소를 나누며 잠깐 떡볶이 먹는 시간을 함께하기도 하였다. 전원 공급 문제로 떡볶이마저 해먹기 힘든 하나의 웃픈 현실이었지만 어렵게 만들어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이기도 하다. 그리고 간절하지만 큰 울림으로 학생들은 한마디 외쳤다. "종이컵 한 컵 대신에 한 그릇씩 만들어 먹어요 선생님" ("teacher, next time we want one bowl of tteokbokki

instead of one paper cup of tteokbokki”) 하지만 나의 팬은 작아 25인분 학생들의 떡볶이를 한 그릇씩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꼭 해주마”하고 함께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다졌다. 그리고 음식 만들기 활동이 끝난 다음 시간에는 윷놀이 게임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전통 놀이를 교실 안에서도 충분이 활용 가능 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윷놀이 규칙을 알려주며 한국 전통놀이의 ‘도, 개, 걸, 윷, 모’의 명칭과 진행 방법 설명으로 윷 게임을 하였다. 역시 과학 학교 학생답게 금방 이해하고 바로 ‘도, 개 , 걸, 윷, 모’를 외치며 각자 조에 할당된 ‘말’을 윷판에 잘 표시하였다. 물론 우승팀에게는 1링깃(280원 정도)하는 학교 매점 아이스크림이 선물로 증정되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먹는 아이스크림만큼 달콤한 유혹이 어디있을까?

그리고 9월 넷째 주는 학교 게시판 공지 활동을 통해 한국 민속 경기 대항을 실시하였다. Alam Shah Science School 학생들 중 이벤트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팀별 인원 참가 신청을 받아 24명 학생들 6인 1팀 총 4팀으로 기숙사 이름을 지어, 호랑이(syahbandara), 상어(Bendarahara), 스콜피언(Laksamana), 피닉스(Temenggong) 팀으로 팀별 대항을 실시하였다. 제기차기, 투호, 닭싸움, 코끼리 맴맴, 손뼉으로 상대방 밀기 등의 종목을 준비하였고, 한국인들이 즐겨하고 엔터테인먼트 게임에서도 평소 접할 수 있는 게임활동이었다. 하지만 참여 학생들은 제기차기와 투호와 닭싸움 경기를 처음 한다면서 호기심과 열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마치 체육대회와 같이 팀별 단합된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모습에 목청껏 외치며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과 덥고 지친 마음은 보람으로 금방 사그라질 수 있었다. 팀별 대항 결과 우승은 피닉스(Temenggong)팀 학생들로 신라면 1박스를 우승 상품으로 전달하였다. 참여한 학생들 모두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고 단체 기숙학교 생활을 통해 익힌 습관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었다.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아 녹초가 되기도 했던 나 자신에게도 학생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국 민속 게임을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의 소중함과 준비한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는 무엇보다 한글날 기념행사 전시에 필요한 학생들 한글 작품들 준비를 위해 한글 캘리그라피 카드와 시화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캘리그라피 엽서와, 시화 작품의 전시는 한글날 전시하는 기회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작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한글이 예쁘게 쓰여진 캘리그라피 카드와 아름다운 시화 전시를 통해 SMS Alam Shah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이곳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문화를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orm 2, Form 3 한국어반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간 캘리그라피 엽서에 일상생활에 응원의 힘이 되고 아름다운 한글 문구 예시를 다양하게 뽑아 학생들 스스로 그림으로 배경 이미지를 살리고 학생들에게 한글 캘리그라피를 써가며 멋진 캘리그라피 카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 모두 캘리그라피 카드에 쓰여진 한글의 아름다움을 확연히 느끼며 자신이 완성한 예쁜 카드에 서툰 한글 문장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인사도 작성하였다. 학생들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쓴 한글 문장을 완성하고 모두 가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하였다.

Form 4 학생들에게는 한글 캘리그라피 카드 대신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 24편을 선정하여 시화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 24편(윤동주 '서시' 및 '자화상', 정지용 '호수', 김용택 '하루', 정호승 '여름밤',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이정하 '동행' 등 그 외)의 시를 코팅하여 개개인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직접 시를 쓰고, 자신의 감성에 맞게 그림을 그려 시화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시속에 담겨진 문장의 뜻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며 시를 쓰는 시간을 통해 좀 더 가까이 한국인의 정서와 감성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비록 '길고 어려운 시를 잘 쓰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평소 메모 습관을 통해 다져진 예쁜 손글씨 덕에 비교적 모두 시를 잘 썼고, 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자신이 선택한 시 내용을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명씩 직접 돌아다니며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독서와 메모를 좋아하는 말레이시아 학생들답게 진지하고 숙연하게 시를 써가며,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태도에 오히려 한국어 교사인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을 겸허히 지녀야 했다. 더구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중시를 이곳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한 순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선택한 시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을 쓰도록 하였다. 특히 정지용의 '호수'를 선택한 학생에게는'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감을 밖에'를 읽으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고 넓어, 깊은 호수로 비유됨을 함께 이야기 나무며 공감하였다. 시의 내용을 몇 번씩 되물으며 써 내려간 학생의 감상평은 오히려 내 마음에 정지용 시인의 마음만큼이나 더 시인다운 감상평을 작성했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몇 번씩 속으로 읊조리었다. 'Though you left me alone, In a place where light is no more', 'I shall travel through the world, and enjoy my life once more'그리운 사람이 떠나 그 빛이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여행으로 대신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Haziq Alman 학생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했던 Haziq 학생의 내면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지만 성숙한 내면과 표현만큼은

너무 훌륭하였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너의 감상평이 너무 멋져 마치 한 편의 시를 만들었노라고....'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즐기며 교과서만 배우다보면 조금은 건조해 질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제한점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다. 더구나 한글 카드와 한글 시화 시간을 만들며 좀 더 한글 사랑과 한국어를 배우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진하게 이루어져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었으면 했다.

한글 캘리그라피 전시 속에 한국의 가을을 알리다

학생들이 만든 한글 캘리그라피와 한글 시화는 기대 이상으로 너무 훌륭하였다. 멋지게 만들어진 학생들의 작품을 세련되고 멋있게 전시하고 싶은 욕심과 열정이 생기면서 드디어 한글날 체험활동을 의미있게 하고 싶은 성취동기가 강하게 발휘되었다. 더구나 코로나로 조심하며 억눌리고 움츠러든 교육활동으로 인해 맘껏 숨쉬며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한글날 체험활동 마련을 통해 이곳 학생들과 뜻깊은 한글날을 기념하며 함께하는 체험의 장을 멋지게 펼치고 싶었다.

우선 한글날 기념 행사 주간을 정하여(10.6~10.9) 한글날 기념 활동을 계획하였다. 10월 7.8일 이틀간 한글 캘리그라피 카드와 시화 전시, 10월 7일 오후 한글 퀴즈(Korean Pop Up Quiz), 10월 8일 오전 한글 카드 찾기 (treasure hunt of Korean card) 10월 8일 오후 한글 부스 체험 실시 등의 행사 활동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안내를 위해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고를 하였다. 물론 한글날 이벤트 행사 공고와 함께 한글날의 의미와 세종대왕을 알리기 위해 '한글날 만화 포스터'를 만들어 행사공지와 함께 게시하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여기 학생들 모두가 한글날과 세종대왕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 초등학생 적 모습으로 돌아간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그리고 색칠하여 공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쉽고 간단히 한글날 체험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안내판 지도(Korean Hangul Exploring map) 만들어 한글날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생들 조회 무대 위에 설치하였다. 또한 학생들 참여 외에 교직원과 교사들의 참여를 위해 직접 수채화 물감으로 핸드 크래프트 초청 엽서를 만들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교사들을 위한 왓츠 앱(Whatsapp)을 이용하여 학교공지란(Notice board)에 게시하였다.

한글 체험 활동의 첫 시작인 한글 캘리그라피 전시는 장소 선정 고민과 함께 많은 손작업이 필요

하였다. 장소를 고민하며 한국의 가을에 다양하게 열리는 문화 행사와 한국의 가을 분위기를 전시장에 만들어보고 싶었다. 말레이시아는 더운 건기와 더위 속 비가 오는 우기 시즌만 존재하여 한국의 10월의 자연이 선사하는 멋진 가을 분위기를 이곳에 소박하게 담고자 전시 장소를 오솔길 분위기가 나는 수수르 가자르(Susur Kajar)로 정하였다. 천장과 오솔길이 있어 비가 오면 바람막이 길이 되어주고 작은 오솔길의 낭만과 큰 나무가 옆에 있어 주황색 한글 자모 카드로 마치 감나무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다. 천장에 비가와도 비에 젖지 않도록 천장 안쪽으로 카드와 시화를 걸고, 곳곳에 대나무 블라인더에 감모양으로 만든 한글 자모를 달아 한국 정서를 담고자 부단히 애를 썼다. 다행히도 세계 곳곳에 미술관 전시장을 감상하며 얻은 눈썰미와 감각으로 흰 의자위에 꽃병과 작은 바구니를 올리고 꽃병엔 가을 분위기 꽃을, 바구니엔 한국의 '감'과 공원 산책 중에 주워온 '낙엽'을 담아 가을 정서를 물씬 담고자 하였다. 그리고 천장 위에 도우미 학생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한글 캘리그라피 카드와 시화를 매달고 학생들이 지나가며 감상할 수 있도록 큰 나무에는 한글자모를 매달아 한글을 알릴 수 있는 전시 장소로 손색이 없이 세련되게 꾸미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과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을 위해 수업 종료 15분 전 함께 나가 자신의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하며 학생들과의 기념 촬영 컷 또한 있지 않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고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구나 이날 Form 2 학생들은 학교 사정상 기숙사 부족으로 Form 1 학생들과 교대로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해야 하는 마지막 대면 수업이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이곳 전시장에서 마지막 기념 컷으로 대신하며 직접 만든 사진카드 엽서와 쿠키를 작별 선물로 이곳에서 한 학생 학생에게 전달해주며 올해 대면 수업의 마지막 한국어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한글 체험 활동인 한글 퀴즈 대회는 한국어 수업반 학생들만 참여하기보다는 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관심과 기회를 주기 위해 팀을 구성하였다. 한국어 수업 학생과 한국어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런닝 메이트 조가 되어 10팀 총 20명이 참가하여 한국 유명 장소, 한국드라마 , K·P , 한글상식 , 유행하는 줄임말, 한국문화와 관련하여 총 6개 분야 30문항 한국어 퀴즈를 실시하였다. 더운 날씨에 조회 무대에 앉아 1시간 반이나 진행되는 퀴즈에 진지하게 참여한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물론 K·P 관련 문제에서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노래도 감상하며 문제도 풀고 쉬어가는 여유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곳은 더워 서두를 수 도 없고, 서두르지 않는 게 문화적 특징으로 퀴즈 문제의 답을 카운트다운하며 서두르는 상황에서 학생의 한 마디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나를 잠시 멍하니 정지시켰다. 'Teacher, take slow'하며 천천히 하자는 학생들의 여유는 더운 날씨의 이곳에서 더욱 쉼의 여유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세 번째 한글 체험활동인 한글카드 찾기는 보물찾기를 응용하여 학교 정원 작은 나무 등에 한글 단어카드를 매달고 단어카드를 찾아 카드에 적힌 한글 낱말의 뜻을 작성하여 교무실 한국어 상자에 넣어 두면 쿠키를 선물로 증정하였다.

네 번째 한글 체험 활동인 한글 부스는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하고 한글날 '한글'을 정말 뜻깊게 알리고자 준비한 체험활동이었다. 한글 쓰기 체험을 위해 이곳 해외 말레이시아에서도 학생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트와이스, BTS , A Pink 사진을 담아 종이부채, 카드, 북마크를 만들어 한국어를 알리기 위한 '사랑해요, 감사해요, 친구해요, 좋아해요,..' 등의 10단어를 제시하여 직접 쓰도록 하거나, 한글 도우미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부채, 카드, 북마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학교 행정실 직원들도 학생들이 만든 수공예 작품 종이부채에 예쁘게 한글을 써 달라고 부탁하며 한국부채 그리고 한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며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다. 학생들은 한글 예시로 제시된 단어 10개(사랑해요, 감사해요, 좋아해요 등..)의 의미를 물어보며 직접 써 보고 선물로 받은 카드에 너무 해맑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인증샷을 담기도 하였다.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밤마다 혼자 사진을 오래 붙이며 애써 준비한 시간과 노력들에 대한 보람과 보람 이상의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마치 내가 애국자가 되거나 정말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선물로 받아간 카드와 부채로 너무 행복해하며 미소 짓는 우리 학생들의 해맑은 얼굴은 내가 학생들에게 선물하기보다는 충분히 학생들로부터 마음의 선물을 받았고, 또한 나를 힐링시켜 주고 있음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새록새록 기억나게 했다.

학생들의 미소 속에 얻어진 값진 소중함과 보람

행사를 마치며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들에 대한 열정들이 멈추는 시간을 알리 듯 마음이 왠지 뿌듯한 보람과 성취,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공허함이 마음속의 한편을 차지했다. 한국의 친한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한글 체험활동 소식과 사진을 전하며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하고 싶었다. 이렇게 소중하고 멋진 한글 행사를 이곳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음은 나의 소중한 바람과 나의 꿈이 마치 실현되듯 오버랩처럼 지나갔다. 한글체험 활동 준비를 위해 머릿속에 상념처럼 끊임없이 아이디어와 계획을 구상하며,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은 많았지만 그 이상의 값진 소중함과 보람은 마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의 시간과 같았다.

그리고 감동스럽게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한글이 한국의 세계화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고 마치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학생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음에 감사함과 뿌듯함이 잔잔한 여운으로 밀려왔다.

그리고 전시회장에 마련된 방명록에 학생들이 남긴 몇몇 학생의 글귀는 힘겹게 열정을 다해 뛰며 준비한 나의 노력에 마치 흰 눈을 덮어주듯 감동을 선물했다. “Keep up the good work”, ‘잘했어’, ‘Hangul day is amazing’이 또한 ‘내가 이곳 말레이시아 SM Sains Alam Shah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함께 멋지게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는 사실 또한 놀랍지(Amazing) 않을 수 있는가’ 하며 스스로에게 되뇌며 값진 소중한 경험에 대한 끈을 계속 이곳에서 이어 나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마음속으로 다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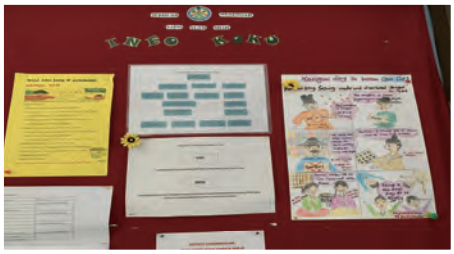
그리고 이곳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이루어진 한글날 체험활동을 통해 한글과 교육의 의미가 소중히 전달되어 WEELY MONDAY 한글날 특별 기획편에 Form 3 학생 Farris의 글과 함께 수록되었다. 그리고 이 한 편의 글을 통해 SM Sains Alam Shah 학생들과 이곳에서 함께 한 추억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9월 셋째 주부터 한글 축제 활동을 위한 시작을 우선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어 음식 만들기 시간으로 떡볶이와 화채 만들기, 그리고 전원 공급이 안 되어 떡볶이 배달을 하며 담소의 시간을 나누었다.

▸ 한국 전통놀이 윷놀이, ‘도, 개, 걸, 윷, 모’의 명칭과 설명으로 윷 게임을 하였다. 역시 과학 학교 학생답게 금방 이해하고 바로 ‘도, 개, 걸, 윷, 모’를 외치며 각자 조에 할당된 ‘말’을 윷판에 잘 표시하였다.

▸ 9월 넷째 주는 한국 민속 경기 대항을 실시하였다. Alam Shah Science School 학생들 중 팀별 인원 참가 신청을 받아 24명 학생들 6인 1팀 총 4팀으로 제기차기, 투호 등 경기 진행을 하고 학생들 모두 즐겁게 참여하였다.

▸ 한글 캘리그라피 만들기에 정성을 들이는 Form 3 학생들과 캘리그라피 카드 작품, 그리고 긴 시를 정성스럽게 써가며 이해하는 Form 4 학생들의 시화 작품을 완성하여 멋지게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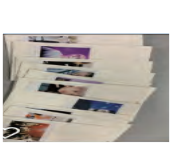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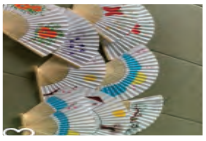
▸ 학생 게시판을 활용하여 한글날 이벤트 행사 공고를 하고 한글날의 의미와 세종대왕을 알리기 위해 한글날 만화 포스터를 함께 게시하였다.

▸ 한글 카드와 시화 전시회가 예쁘다고 사진을 원한 말레이 선생님 두 분 포즈, 그리고 한글날 체험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체험 맵을(Korean Hangul Exploring map) 학생들 조회 무대 위에 설치하고 인증샷을 남기었다.

▸ 한국의 가을 분위기를 담아 학생들의 한글 캘리그라피 카드 작품과 시화 작품, 그리고 학생들 추억의 앨범 사진으로 이곳 수수르 가자르(Susur gajar)에 멋지게 전시하였다.

▸ 학교 사정상 기숙사 부족으로 Form 1 학생들과 교대로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해야 하는 Form 2 학생들과 마지막 대면 수업을 이 곳 전시회장에서 그리고 추억의 한 컷. 사랑해요 코리아!!! 멋지게 한국어로 안내 설명을 하는 Form 2 학생 히샴!





▸ 학생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트와이스, BTS, A Pink 사진을 담아 종이부채, 카드, 북마크를 만들어 학생들이 한글 단어를 쓰도록 준비하였다.

▸ 한글카드 찾기는 보물찾기를 응용하여 학교 정원 작은 나무 등에 한글 단어 카드를 매달고 찾게 하였다.

▸ 한국 유명 장소, 한국 드라마, K.P 관련, 한글상식, 한국어 줄임말, 한국문화 관련하여 한국어 퀴즈대회를 실시하여 열심히 참여 중인 학생들의 모습

▸ 한글 체험 활동 한글 부스에 열심히 참여하여 트와이스 카드를 얻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학생들과 종이부채에 한글을 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학교 직원들, 그리고 행복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감동의 글을 선사한 학생들, 모두 함께 행복한 웃음 지으며 한글 부스 체험장에서 한 컷.

02 Monday, October 26, 2020

Students' happy smiles on special Hangeul Day here in Malaysia!

"Hangeul and its sentence structure are very unique to me!"

▸ 그리고 한글날 체험 활동의 사진을 접한 [8]WEEKLY MONDAY 영자신문 편집사에서 한글날 체험활동에 대한 소감 원고를 부탁했다. FORM 3 학생 Farris와 함께 한글날 특별 기획편(50호, Monday 26 October, 2020)에 "Students' happy smiles on special Hangeul Day here in Malaysia"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한글날 체험활동이 더욱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8) 한국의 전국 중·고등학교와 군부대 등의 7천개 기관에 무료로 배부되는 최초 영자신문사로 영어로 국제 뉴스와 다양한 글 등을 소개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II

수업자료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Ⅱ. 수업자료

최우수상

한국어 온라인 수업 가이드라인 개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준언(말레이시아/한국어)

교과	한국어	지도 일시	11월 5일 3교시	대상	form4	지도 교사	이준언
단원	Unit 7 INFORMATION			차시	8/8	교과서	Active Korean
학습 주제	웹툰「좋아하면 울리는」을 통해 한국의 학교문화를 배운다. 대화문과 서술문의 문장형식 차이를 배운다.					수업 모형	의사소통수업모형
학습 목표	한국의 학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대화문 속의 동의표현, 맞장구 표현, 칭찬표현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서술문 문장형식이 언제 쓰이고 대화문 문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 할 수 있다. 문형: 1. 서술형 문장 종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어플이 처음 나왔다. 2. 맞장구 표현: 에이, 설마, 말도 안돼, 아냐 정말이야, 진짜야					준비물	1. 웹툰문형 내용정리 ppt 2. 그림에 알맞은 표현 넣기 유인물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학생	
도입 (15)분	지난 내용 복습	서술형 문장의 종결시 동사는 'ㄴ/는다', '았다,었다' 명사는 '다/이다', '였다, 이었다'어미사용을 복습한다. **멋지다/예쁘다, 간다/ 먹는다/학생이다 등 자주 사용하는 동사, 형용사 중심으로 복습한다.**	동사, 형용사의 회화체 종결어미인 '요'와 서술형 종결어미 'ㄴ/는다'를 함께 복습한다. **예) 예뻐요- 예쁘다 가요- 간다 먹어요- 먹는다**	다시 한 번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과 서술형 문장종결형 어미로 사용될 때 변화되는 어미 변화를 복습한다.
	동기 유발	드라마로 방영된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오늘 배울 내용을 3분 정도 보여준다. 또래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가급적 학생들에게 문장종결이 회화체일 때와 독백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장종결이 회화체일 때와 독백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학교문화의 차이를 발견하며 드라마 클립을 본다.	각 문화를 비교하여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도록 유도한다. (급식, 남녀공학, 교복, 쉬는 시간 등) 미리 드라마나 웹툰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학습 문제 파악	**주인공의 독백일 때는 '다'로 끝나고 대화문일 때는 '요' 혹은 반말로 대화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한다.** **대화 일 때는 문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독백이나 서술문 일 때는 문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PPT를 통해 오늘의 학습주제인 서술형은 독백, 일기쓰기, 기사쓰기 등 쓰기의 문장종결 형식이고 요체는 회화체의 문장 종결 형식임을 제시한다.	교사의 질문에 답하며 문형을 이해한다. 주인공의 대화와 웹툰에 제시된 지문을 통해 문장형식을 이해한다.	에이, 설마, 말도 안돼, 진짜야?, 나도 그래, 썰렁한 농담, 속상하다 등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을 웹툰과 함께 제시한다.
	학습 활동 안내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목표를 따라 읽고 의미를 생각해 본다.	

전개 (35)분	어휘 학습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으로 만든 PPT를 공유하고 오늘의 스토리와 어휘, 주요표현을 먼저 제시한다.** **동사, 형용사: 어플을 깔다/사용하다/쓰다/의심하다/궁금하다/정확하다/ 오해가 생기다/울리다** **표현: 아~~ 그렇구나, 에이~~ 설마 아 미안, 괜찮아?** 배웠던 표현과 새로운 단어를 설명한다.	1. PPT에 제시된 단어들 중 알고 있는 단어와 새로운 단어를 읽고 한 번 노트에 적는다. 선생님과 읽기 연습을 한다. 2. 웹툰에 제시된 상황과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암기한다.	그림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생각해 보게하고 알고 있는 표현을 말해보게 하고 어울리는 표현을 찾는 것이 웹툰활용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너무 자세한 문법적 설명은 가급적 피한다.
	문형을 읽고 어휘 및 표현 배우기	지문 읽기를 통해 그림으로 제시된 상황의 어울리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시간을 주고 단어를 읽고 써 보게 한다. 3. 빈칸 그림을 주고 어울리는 표현 찾기 연습을 한다. 4. 갈등 구조가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질문한다.	공책에 한 번 쓰면서 의미를 생각해 본다. 빈칸으로 제시 된 그림 속 어울리는 표현을 생각해 본다.	
		1. 웹툰에서 배운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제시한다. 2. 한국의 문화에 대하 어떤 점을 새롭게 배웠는지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친구들과 함께 배운 표현 빈칸 넣기와 어휘게임에 참여한다. 표현 암송게임에 참여한다.	잘못된 표현을 만든 학생들에게는 틀렸다는 직접피드백보다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간접피드백으로 정확한 문장 만들기를 유도한다.
총 정리 (10)분		그룹별, 두 병, 한 명씩 서술형 문장과 대화형문장의 영어 번역문을 제시하고 한국어로 바꾸기 연습을 한다. 차시예고와 함께 다음 차시에 배울 웹툰을 미리 보고 모르는 단어를 노트에 써오는 숙제를 제시한다.	1. 한국어 번역문장 만들기에 참여한다. 2. 새롭게 배운 한국문화에 어떤 점이 있는지 공유한다.	한국의 학교문화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가난한 형편의 주인공에게 갈등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수업의 효과

한국어수업에서 웹툰 활용은 한국어학습뿐 아니라 한국사회 및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등학습자대상 교재로 적합한 매체이다. 이유는 글과 그림, 말풍선 등의 보조효과로 표현되어 학습자

들의 흥미유발, 장기기억 전환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어 읽기, 말하기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발현되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총체적 이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본 수업은 의사소통 교육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웹툰 감상 전- 감상- 감상 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은 반응은 재미있고 내용이 공감이 많이 간다, 구어의 어휘와 표현 학습에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과제로 부여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학습에 웹툰 활용수업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학교 문화, 가족과 '우리' 문화, 한국사회의 빈부의 차이, 계층구조, 외모지상주의, 인싸-아싸 등의 신조어 단어를 통해 알게 된 소속감 문화, 장례식과 신년에 하는 관례적 인사표현 등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 평가 계획

평가내용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1. 서술형문장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가? 2. 상황에 어울리는 구어 표현을 말할 수 있는가?	잘함	동사, 형용사, 명사의 문장종결을 문법적 오류 없이 만들 수 있다. 현재 시제와 과거시제에 따라 변하는 문법사항을 이해하고 서술형문장을 만들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사과, 동의, 맞장구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반말과 회화체에서의 문장종결어미를 이해하고 있다.	1. 제시된 그림 파일에 어울리는 표현 찾기 문제 5개 2. 서술형 문장 번역문제 5개 잘함 8개 이상 보통 5개 이상 노력요함 3개 이하
	보통	동사, 형용사, 명사의 문장종결을 문법적 오류 없이 만들 수 있다. 현재 시제와 과거시제에 따라 변하는 문법사항을 혼돈하고 서술형문장 만들기에 문법적 오류가 있다. 상황에 따른 사과, 동의, 맞장구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회화체에서의 문장종결어미를 이해하고 있지만 반말 표현이 서툴다.	
	노력요함	명사, 형용사와 동사의 서술형 문장종결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의미에 맞는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 상황에 따른 인사표현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적절한 표현을 말하지 못한다.	

1. 한국어 온라인 수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된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을 경험하며 많은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국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레이시아 한국어 교육 현장 역시 2020년 3월 23일 이후 이동 통제 명령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아무런 예고와 준비 없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3개월 뒤 대면수업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10월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체제로 바뀌며 교수자·학습자 모두 변화하는 수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학습자와 교수자·학습자와 학습자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언어수업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다는 건 교수자·학습자 모두를 그 동안 익숙했던 대면수업의 장점을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즉, 교사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며 온라인상에서 능동적인 수업의 안내자, 촉진자 역할이 무엇인지 방법적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학습자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교수자와의 과업수행 및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 가운데 수업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교사의 교실용어부터 시작해서 학습자의 집중도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수업의 진행방법,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한 과제부여 및 평가 등 면대면 수업과는 차별화된 수업전략이 필요함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업경험을 통해 느꼈던 문제점과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수업전략과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이끌어 학습을 극대활 할 수 있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론적 측면의 수업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비슷한 환경에 처한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차별화된 수업구성이 필요한 이유

- 대면수업과는 다른 교실언어 사용의 필요성
- 중등학습자의 집중도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수업 진행방법의 필요성
- 인터넷 활용 및 협동학습을 고려한 과제 부여의 필요성
- 교사의 실재감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기적 수업구성의 필요성
- 학습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의 필요성

2.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 유기적으로 수업을 구조화해 교사실재감을 상승시킬 것

온라인 수업은 교사의 통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기에 학습자로 하여금 대면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참여시 선생님이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교사 실재감(teaching presence)'을 학습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등학습자의 경우 교사실재감이 학습의 성취와 긴밀하게 연결 되어있기에 교사실재감의 장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했습니다. 교사실재감은 교수자가 온라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Garrison et al. 2000). 즉 학습자가 대면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에 속해있다고 느끼고 타 학습자 및 교수자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의 고지 및 과제 부여까지 모든 수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반드시 수업시작 시 교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인사와 일상의 질문을 할 것, 2. 수업시간에는 문형제시 및 문법 설명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이고 퀴즈와 질문에 답하는 퀴즈시간을 확보해 수업참여도를 높일 것, 3. 한 명도 빠짐없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두어 출석체크와 함께 실시간 학습자의 참여도를 이끌 것, 4. 과제는 개별과제와 그룹과제를 병행하여 부여해서 학습자간 협력학습을 이끌고 상호 보완의 시간을 갖게 할 것, 5.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점수를 구체화 하여 부여할 것, 6. 온라인 수업에서 실시했던 과제의 점수와 출석이 기말 및 중간시험에 말하기 및 쓰기 점수로 환산 된다는 점을 공지할 것, 7. K-pop, K-webtoon, K-drama 활용을 정규 수업 시 일정시간 할애하여 구어중심의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울 것, 8.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고 질문에 즉답할 것, 9. 수업의 중요문법사항은 교사 개인 you tube채널에 문법 설명 및 문형연습 파일을 만들어 복습과 예습을 도울 것, 10. 결석 시 사유에 대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반드시 물어 볼 것, 11. 출석체크에 대한 학교의 정책적 도움을 받아 결석을 미연에 방지할 것, 12. 온라인 수업 예약 시 반드시 해당일의 수업내용과 수업목표를 공지하여 수업예고를 할 것 등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유기적 수업계획 및 진행의 원칙은 실제로 온라인 수업 시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무교는 이주일 분량의 온라인수업 시간표를 작성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체 공지하였고 출석역시 출석사유를 교감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여 출석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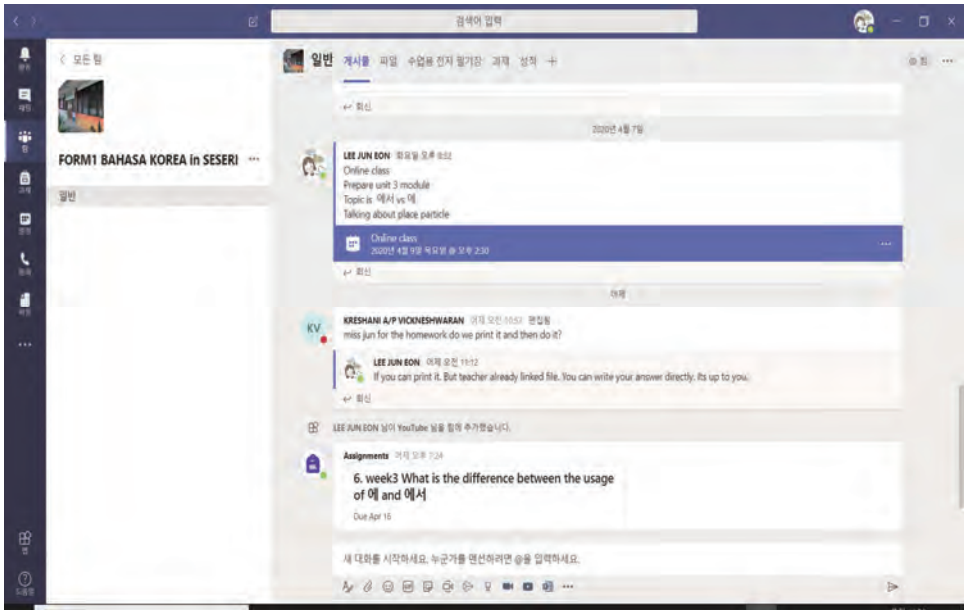
제가 실시했던 수업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환경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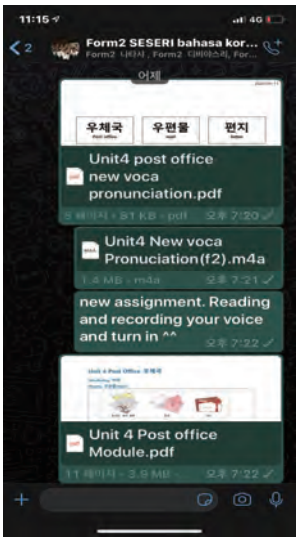
1) 한국어 수업 참여 학생
정규수업 학생 수: 총 91명(1,2,3,4 각각 22~23명이 한 반으로 구성)
2) 한국어 수업 진도 운영- 한국어 교육과정 연간 수업계획에 의거하여 실시
3) 교과서: Active Korean 1,2,3
4) 수업내용: 온라인 정규수업은 말하기중심 수업, 과제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협동학습 과제중심 과제 수행(K-pop challenge project진행)
5) 온라인 수업실시기간: 1차: 2020년 3월 23일-6월 23일
2차: 2020년 10월 13일- 현재
6) 온라인 수업시수: 총 16시수 (한국어 FORM1,2,3,4: 정규 16시수)
7) Platform: Micro-teams (근무교가 Micro soft사 협력교로 지정되어 one drive, word, power point 등 MS사의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었음)
8) 수업시간: 한 시간 삼십 분
9) 학생들의 전체 수업참여도 95%이상(인터넷 사정과 환경구축이 안 되어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 함)
10) 수업 도구: 아이패드와 아이펜슬
11) 부교재: 자체개발 모듈북과 과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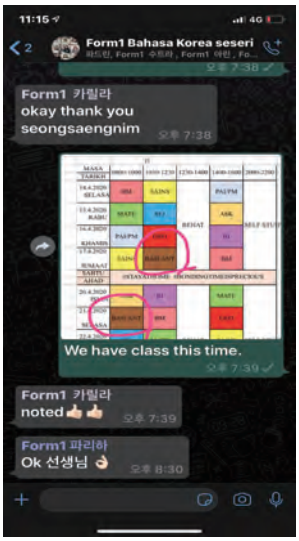
교사 실재감을 위한 유기적 수업구조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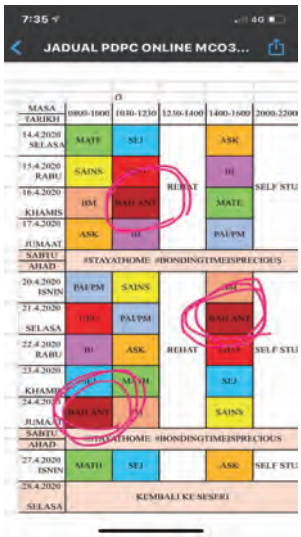
- 시간을 잘 지키도록 끊임없이 독려
- 반드시 수업시작 시 교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인사와 일상의 질문을 할 것
  교사는 항상 미리 접속하여 학생들을 기다려야 하며 수업시간 전 대화를 통해 학생들과 라포형성 및 재미있는 한국어를 소개함. 예를 들어 신조어, 재미있는 표현 등, 최근 학생의 질문으로 뒹굴뒹굴거리다, 핵인싸, 댓글 등을 배움.
- 퀴즈를 통해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재미있는 단어 찾기 게임을 실시, 대면 수업에서 할 수 없는 인터넷을 활용 단어 의미 찾기 등을 활용함.
- 수업시간에는 문형제시 및 문법 설명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이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확보해 수업참여도를 높일 것
- 한 명도 빠짐없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두어 출석체크와 함께 실시간 학습자의 참여도를 이끌 것
- 수업시간을 과제는 개별과제와 그룹과제를 병행 부여해서 학습자간 협력학습과 상호 보완의 시간을 갖게 할 것
- 부담스럽지 않은 수업내용과 관련된 과제는 매주 배포하여 피드백을 주고, 잘 했다는 칭찬과 고쳐야 할 문법사항 등을 알려줌. 예를 들어 수업노트필기 사진 찍어 보내기, 모듈북 문제풀이 등
- 과제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100점 환산 점수로 부여할 것
- 온라인 수업에서 실시했던 과제의 점수와 출석이 기말 및 중간시험에 말하기 및 쓰기 점수로 환산된다는 점을 공지할 것
- 말하기 테스트 스크립트를 주고 읽기 시험을 온라인으로 실시함. 녹음파일을 녹음하여 교사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개별 발음의 문제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
- K-pop, K-webtoon, K-drama 활용을 정규 수업 시 20분 정도의 할애하여 구어중심의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
- 커뮤니티 그룹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고 질문에 즉답할 것
- 수업의 중요문법사항은 교사 개인 You tube채널에 문법 설명 및 문형연습 파일을 만들어 복습과 예습을 도울 것
- 결석 시 사유에 대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반드시 물어 볼 것. 교사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하고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함.
- 출석체크에 대한 학교의 정책적 도움을 받아 결석을 미연에 방지할 것
- 온라인 수업 예약 시 반드시 해당일의 수업내용과 수업목표를 공지할 것



- form 1 수업 게시판. 수업을 미리 일정표를 활용해 시간 및 사용할 파일 등을 게시한다.
- 수업목표를 명시해서 차시예고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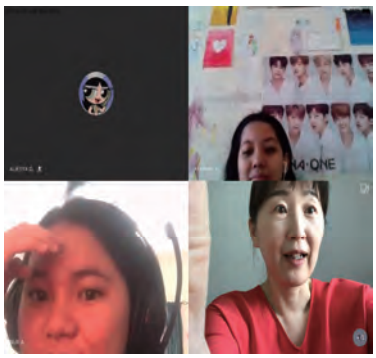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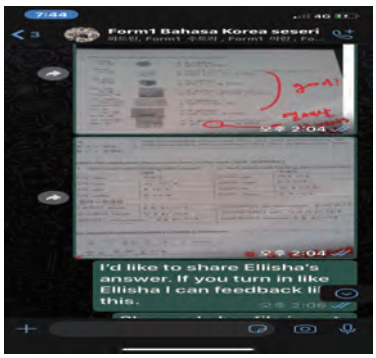
- 학교 수업계에서 온라인 수업시간표를 이주에 한 번씩 짜서 공유하면 왓츠앱 그룹을 통해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이때 이 시간에 수업이 있음을 공지한다. 또한 과제를 올렸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제 파일을 다시 한 번 왓츠앱 그룹을 통해 공유한다.

▸ 성적입력 화면: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제별 점수를 부여한다.

▸ 과제는 적절하게 부여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준다

▸ 결석사유를 반드시 묻는다.





▸ 수업 전 반드시 얼굴을 보여준다. 잘 된 숙제는 커뮤니티 방에 공유한다.

3. 온라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업구성은 무엇일까?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 수업구성

먼저 제가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수업(교과중심의 진도수업+ K pop, K-drama, K-webtoon 활용수업)

2) MS Teams 이용 실시간수업 녹화: 복습용으로 활용

3) 주요문법사항 동영상 제작 후 You Tube 공유: 복습용으로 활용

4) 과제 제작 공유: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 부여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한 시간 반이라는 수업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을 지루하지 않게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였습니다. 중등학습자의 특성상 최대 이십분이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마련이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의 교감 없이, 집중하고 지속성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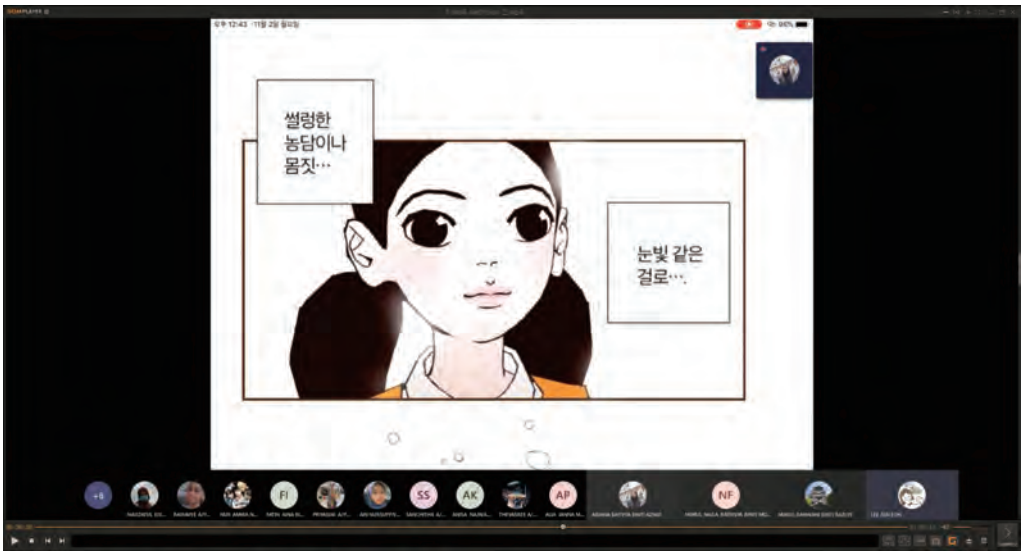
그래서 한 시간 반의 수업시간 동안 한 시간은 교과서 중심 수업을 진행했고, 삼십분은 K-POP 배우기, K-Drama, K-Webtoon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한국문화 및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분할해서 진행한 이유는 중등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한 수업설계에 있었습니다. 해외 한국어 중등교육현장에서 제2외국어 정규 교육과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등학생들의 한국어 학습목적은 한국문화에 대한 단순흥미를 갖고 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해외 중등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은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해야 하며 이들의 관심을 적절히 활용하는 영리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들은 인지발달 단계 상 언어습득에 적합한 연령이며 한국어학습뿐 아니라 한국사회 및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이에 대한 언어와 문화를 적절하게 배합한,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중등학습자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구현된 한국어 교재가 필요한 반면, 사용하는 교재는 구어보다는 문어중심으로, 실질적 대화 보다는 문법학습과 격식표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생활에 사용하는 대화를 학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과서 중심으로 문법항목과 주요표현을 학습하고 부교재로 K-POP, K-Drama, K-Movie, K-Webtoon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한국어 수업에 적용한 결과 수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어체 중심의 표현습

득, 한국문화 학습, 학습자의 한국어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디어 세대인 중등학습자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드라마, 영화처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웹툰이라는 매체는 글과 그림의 서사구조로 되어 있고, 그림을 통해 직관적인 내용유추가 가능하며, 시각화를 통한 상상력과 궁금증을 유발하며, 비교적 짧은 단문형태의 정지된 글과 그림이 동영상 매체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입력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수업을 이용한 웹툰수업은 대면수업보다는 훨씬 집중도 면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웹툰「좋아하면 울리는」을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작품의 선정이유는 웹툰의 경우 소재 및 주제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에 표준어 사용여부와 중등학습자 대상 소재의 적합성, 학습자의 어휘와 문법 수준 이해가능여부, 웹툰의 내용이 한국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갈등과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교재로서의 웹툰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업의 전체 진행방법은 MS Team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해당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수업 녹화기능을 이용해 실시간 수업을 녹화했습니다. 또한 주요문법사항은 교사가 문법동영상을 따로 제작해 개인 You Tube채널에 공유, 학생들의 복습과 자습을 도왔습니다. 교사의 이런 노력은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참여와 숙제과업달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You tube채널을 통해 한국자매학교와 온라인 수업교류 및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이 채널에 공유해서 친구들의 과제물에 답글 달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또한 온라인 영역을 십분 활용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동영상공유나 과제부여와 비교했을 때 교사의 실재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수업방법이며 과제물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주일에 일회 부여했습니다.

- **해외 중등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은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해야 하며 이들의 관심을 적절히 활용하는 영리한 접근이 요구 됨**
- **인지발달 단계 상 언어습득에 적합한 연령이며 한국어학습뿐 아니라 한국사회 및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에 이에 대한 언어와 문화를 적절하게 배합한, 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중등학습자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구현된 한국어 교재가 필요함에 따라** K-POP, K-Drama, K-Movie, K-Webtoon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한국어 수업에 적용 함.
- 웹툰 매체는 글과 그림의 서사구조로 되어 있고, 그림을 통해 직관적인 내용유추가 가능하며, 시각화를 통한 상상력과 궁금증을 유발하며, 비교적 짧은 단문형태의 정지된 글과 그림이 동영상 매체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입력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어 온라인수업을 이용한 웹툰 수업은 대면수업보다 훨씬 집중도 면에서 효과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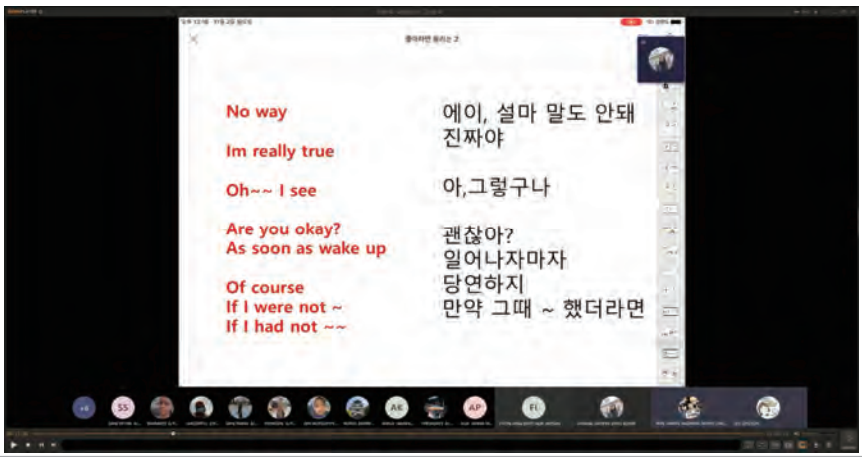
웹툰활용수업 화면 cap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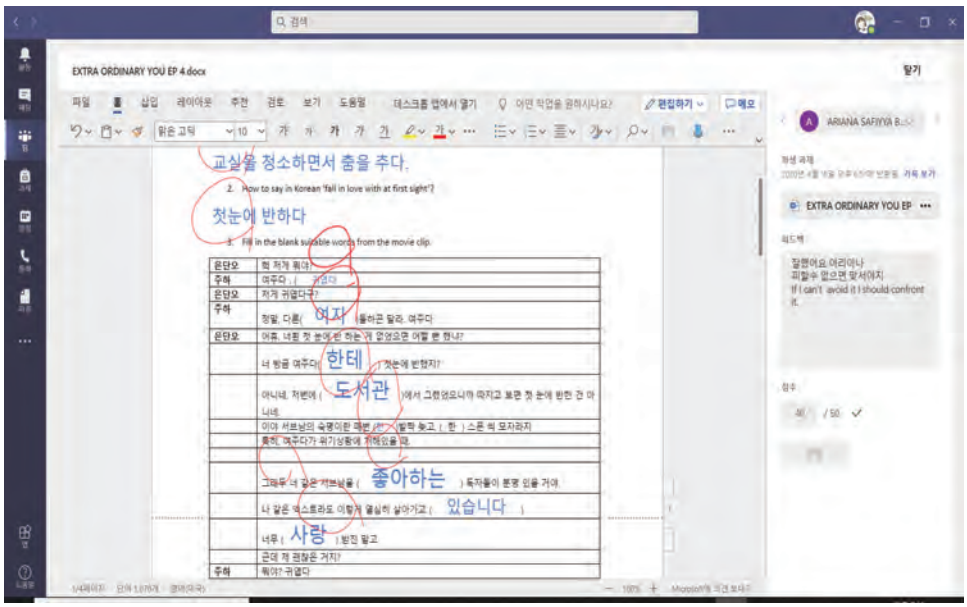
▸ 웹툰의 수업적용 효용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툰은 글과 그림, 말풍선 등의 보조효과로 표현되어 학습자들의 흥미유발, 장기기억 전환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어 읽기, 말하기 학습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매체이다.
2.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발현되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총체적 이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매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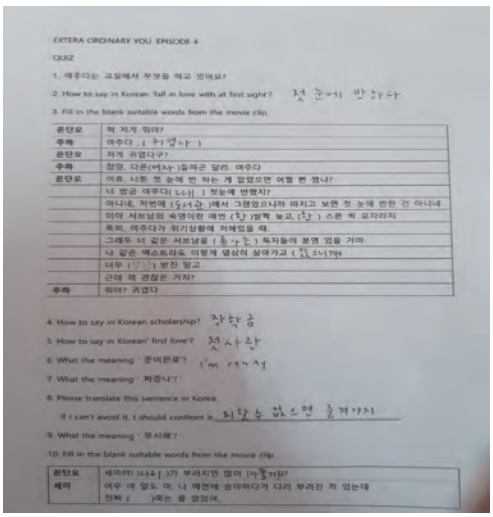
Innocent?
No way.
It's t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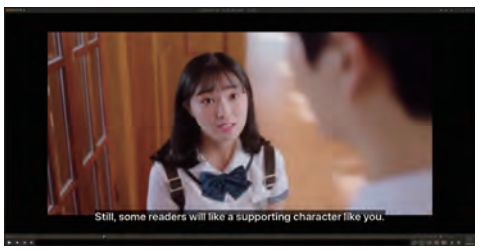
내가 순진해?
에이~ 설마~
진짜야~


No way
에이, 설마 말도 안돼
Im really true
진짜야
Oh~~ I see
아,그렇구나
Are you okay?
괜찮아?
As soon as wake up
일어나자마자
Of course
당연하지
If I were not ~
만약 그때 ~ 했더라면
If I had no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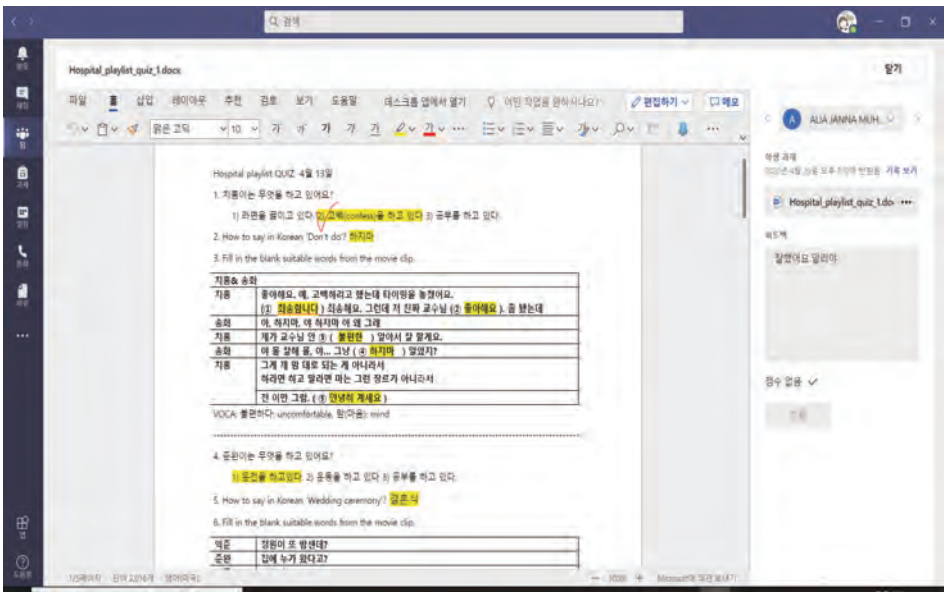


▸ 〈드라마 활용수업 과제〉
드라마를 활용한 과제의 경우 가급적 문법사항을 배운 문법항목이 드러나는 드라마 클립을 찾아 제시했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빈칸 넣기 중심의 문제와, 상황이해 중심의 문제를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구어활용 중심의 드라마 학습은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의 드라마 선정, 교육적 내용여부, 학습자의 어휘수준고려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 〈어쩌다 발견한 하루〉 드라마 클립 과제, 수업 후 한국어 드라마 스크립트와 영어 자막이 있는 동영상을 함께 과제로 제시, 질문에 답하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넣는 과제를 부여함.



▸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활용 수업 과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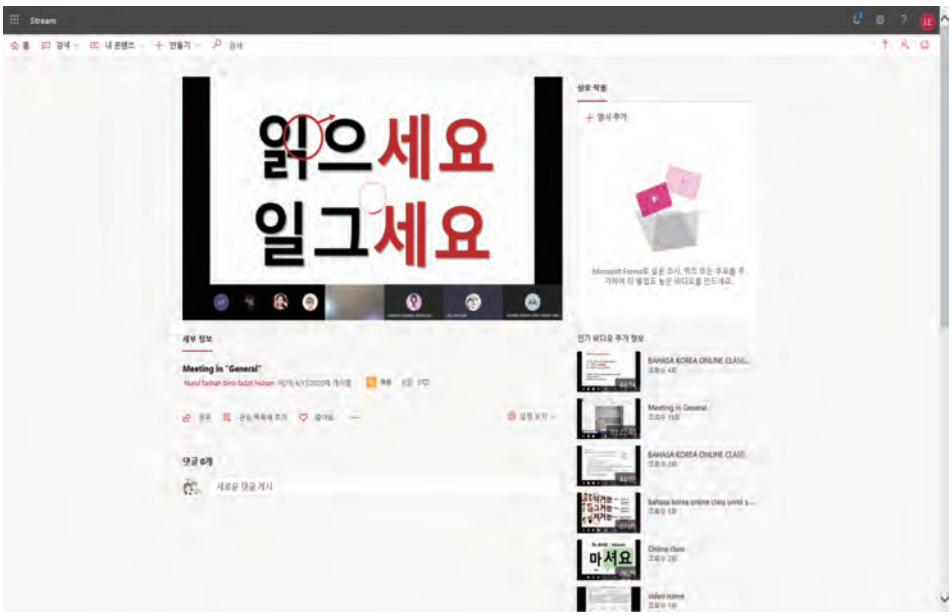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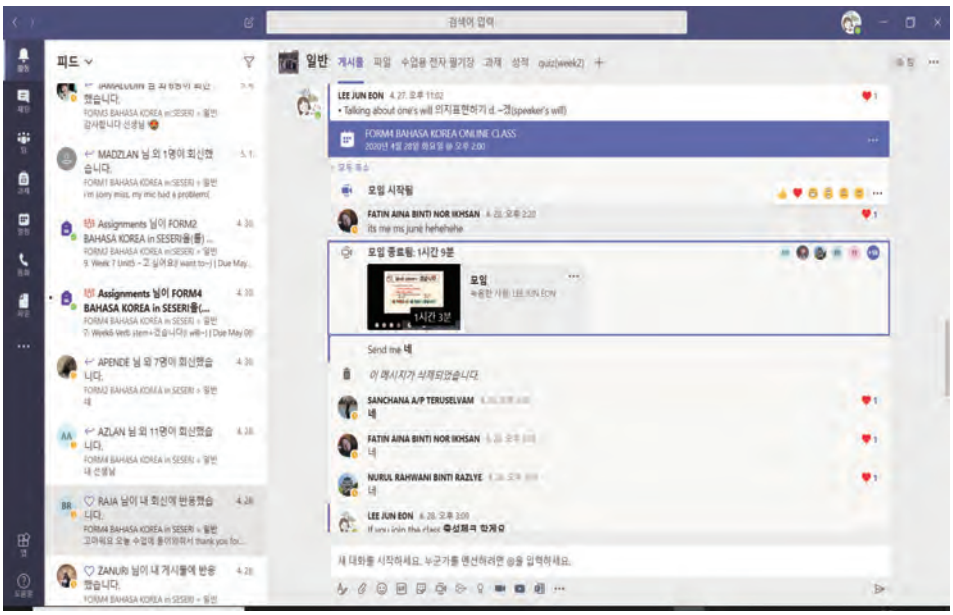
▸ 온라인 K-pop 수업 〈여름 안에서〉 PPT
K-POP수업은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 수업과 함께 진행해 '밝은 태양', '시원한 바람' 등 해당표현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줌,

- 교사 개인 유투브 채널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복습할 수 있는 수업파일을 제공함.
- 학년별로 노란색은 일학년 녹색은 이학년 3,4학년은 파란색으로 차등을 둠.
-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7AZY9HZVT6IBdKFNIQag/videos?view_as=subscriber



- 수업녹화기능을 이용, 실시간 수업을 녹화, 수업 후 공유한다. 수업은 MS Stream에 저장된다.
- 한 번 더 생각하는 친절한 수업이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 수업의 내용 중 주요문법사항은 다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Youtube에 공유한다.



▸ 수업은 녹화해서 공유하고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온라인 수업 후 과제는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고 부여해야 할까?

과제 부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 부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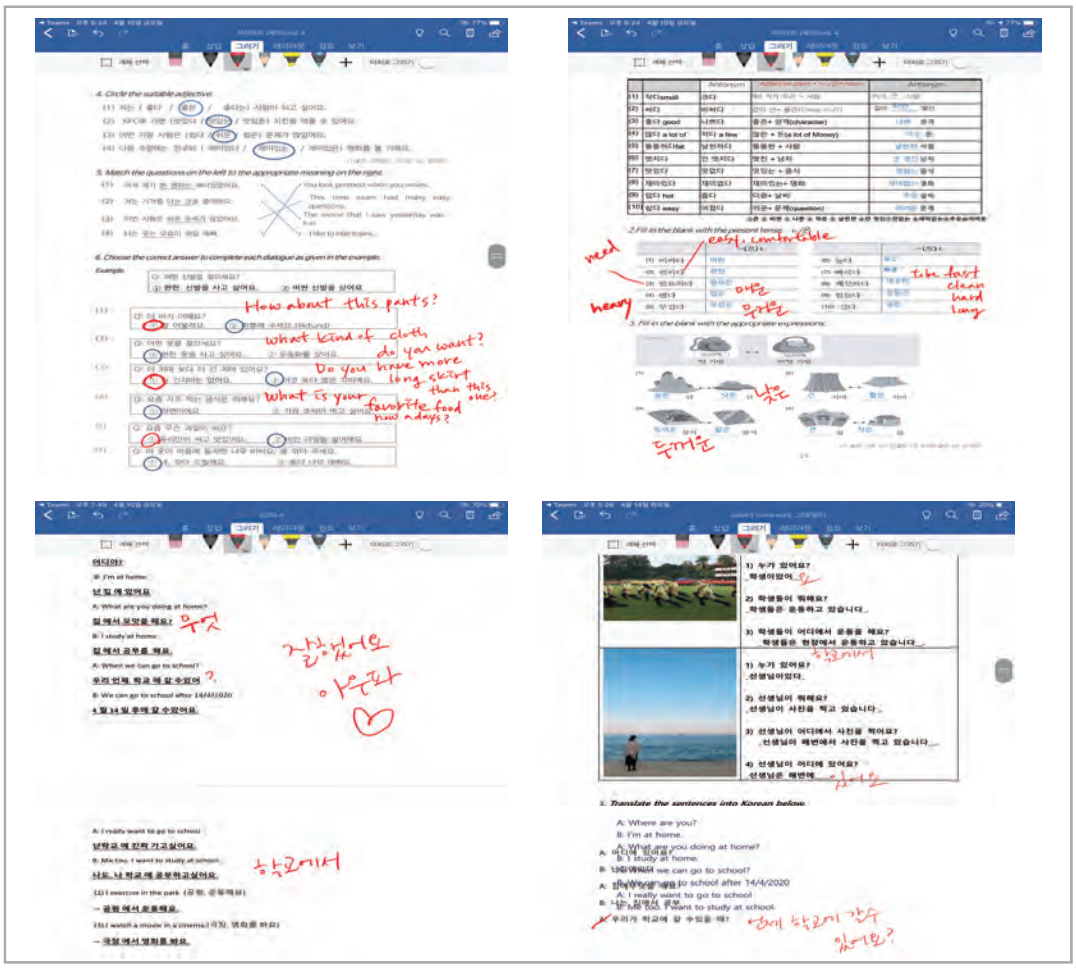
1.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2.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성취를 할 수 있는 과제인가?

3. 학습자가 학습자간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가?

4.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흥미가 있는가?

과제는 제출 후 아이패드와 아이펜슬을 이용해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했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POP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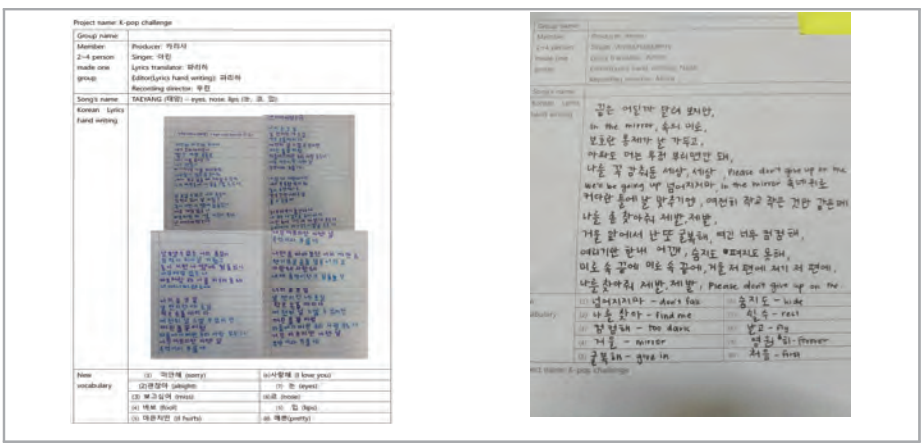
2.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고르기

3. 국제교류 협력 교와 함께 진행했던 각 나라 문화 소개하기 동영상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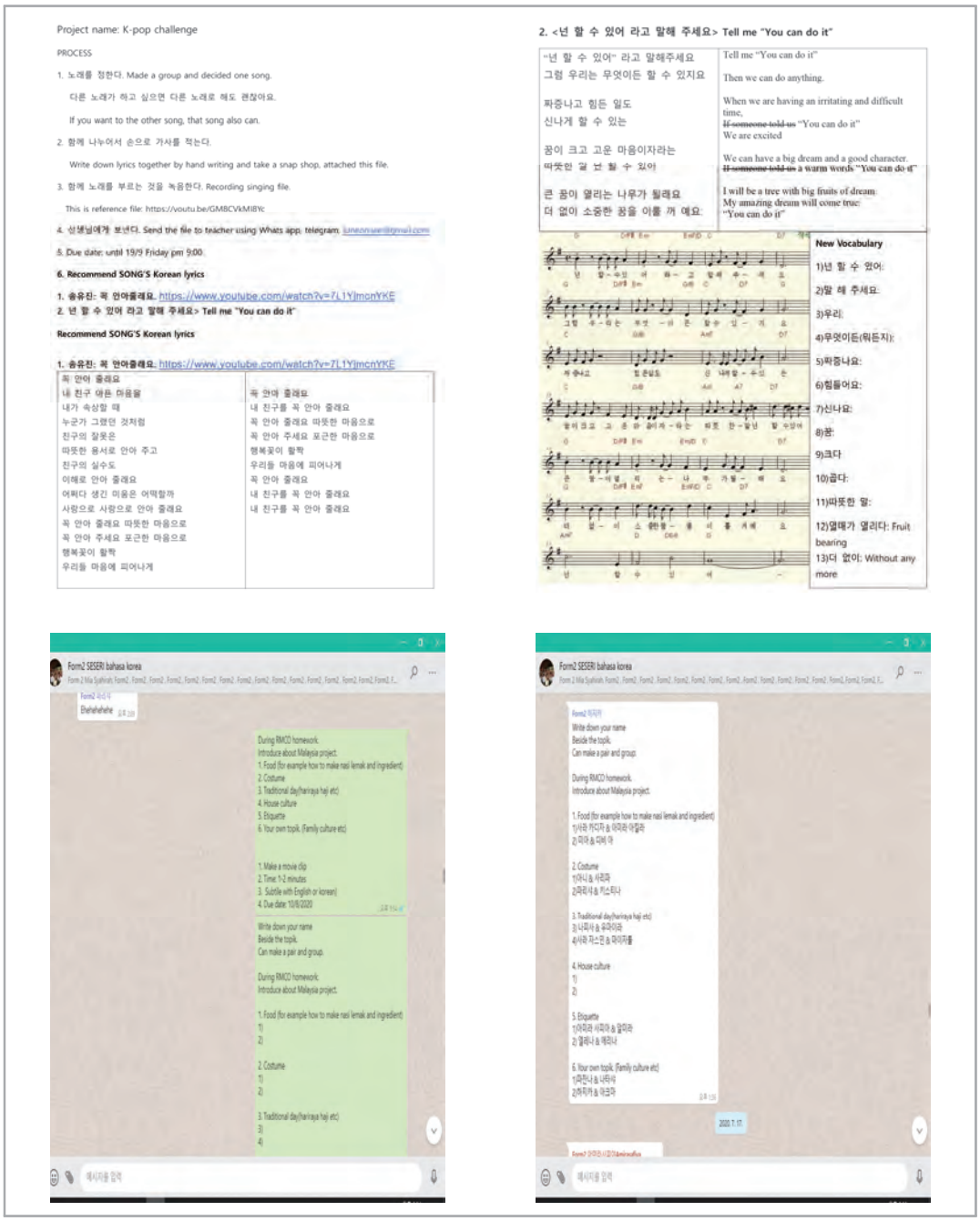
4. 10분짜리 드라마 클립을 공유하고 스크립트 안 빈칸 넣기

특히 한국 자매학교와 국제교류를 통해 진행했던 각 나라 문화동영상 만들기는 또래집단이 주는 정서적 공감대 및 영향으로 인해 학습내용에 대한 수용력이 높았습니다. 사전에 온라인 수업교환, 편지교환, 문화상자(Culture box)교환, 상호방문을 통해 한국친구를 만들고 친숙한 공감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수업의 방법은 한국학생들은 한국의 문화를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Youtube에 공유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후 대면수업 시 온라인 수업교환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었던 주제를 발표하며 성공적 성취를 자극하고 과업수행 중심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음식, 의복, 학교문화, 예절, covid 19으로 달라진 사회문화였으며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친근하게 학습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이 학습의 주인은 스스로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국문화와 비교하며 깊이 있는 한국문화 학습이 가능했고 코비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K-POP Challenge 계획서 과제: 손으로 가사 쓰기, 모둠을 만들어 역할 수행 등의 장치를 넣어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물 부여 내용



Project name: K-pop challenge

PROCESS

1. 노래를 정한다. Made a group and decided one song.

   다른 노래가 하고 싶으면 다른 노래로 해도 괜찮아요.

   If you want to the other song, that song also can.

2. 함께 나누어서 손으로 가사를 적는다.

   Write down lyrics together by hand writing and take a snap shop, attached this file.

3.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한다. Recording singing file.

   This is reference file: https://youtu.be/GMBCVkMIBYc

4. 선생님에게 보낸다. Send the file to teacher using Whats app, telegram: [illegible]

5. Due date: until 19/9 Friday pm 9:00

6. Recommend SONG'S Korean lyrics

1. 송유진: 꼭 안아줄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7L1YjmcnYKE

2.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Tell me "You can do it"

Recommend SONG'S Korean lyrics

1. 송유진: 꼭 안아줄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7L1YjmcnYKE

꼭 안아 줄래요 내 친구 아픈 마음을 내가 속상할 때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의 잘못은 따뜻한 용서로 안아 주고 친구의 실수도 이해로 안아 줄래요 어쩌다 생긴 미움은 어떡할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안아 줄래요 꼭 안아 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 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 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 줄래요 꼭 안아 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 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 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 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 줄래요

2.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Tell me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 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꺼 예요.	Tell me "You can do it" Then we can do anything. When we are having an irritating and difficult time, ~~If someone told us~~ "You can do it" We are excited We can have a big dream and a good character. ~~If someone told us~~ a warm words "You can do it" I will be a tree with big fruits of dream. My amazing dream will come true: "You can do it"

New Vocabulary

1)넌 할 수 있어:
2)말 해 주세요:
3)우리:
4)무엇이든(워든지):
5)짜증나요:
6)힘들어요:
7)신나요:
8)꿈:
9)크다
10)곱다:
11)따뜻한 말:
12)열매가 열리다: Fruit bearing
13)더 없이: Without any more

Form2 SESERI bahasa korea

Ehehehehehe

During RMCD homework.
Introduce about Malaysia project.
1. Food (for example how to make nasi lemak and ingredient)
2. Costume
3. Traditional day(hariraya haji etc)
4. House culture
5. Etiquette
6. Your own topik. (Family culture etc)

1. Make a movie clip
2. Time: 1-2 minutes
3. Subtile with English or korean)
4. Due date: 10/8/2020

Write down your name
Beside the topik.
Can make a pair and group.

During RMCD homework.
Introduce about Malaysia project.

1. Food (for example how to make nasi lemak and ingredient)
1)
2)

2. Costume
1)
2)

3. Traditional day(hariraya haji etc)
3)
4)

Form2 SESERI bahasa korea

Write down your name
Beside the topik.
Can make a pair and group.

During RMCD homework.
Introduce about Malaysia project.

1. Food (for example how to make nasi lemak and ingredient)
1)나라 카디자 & 아마라 아말라
2)마라 & 디버 아

2. Costume
1)라니 & 사리라
2)마리사 & 키스티나

3. Traditional day(hariraya haji etc)
3)나피사 & 유마이라
4)나라 자스민 & 마이자틀

4. House cultur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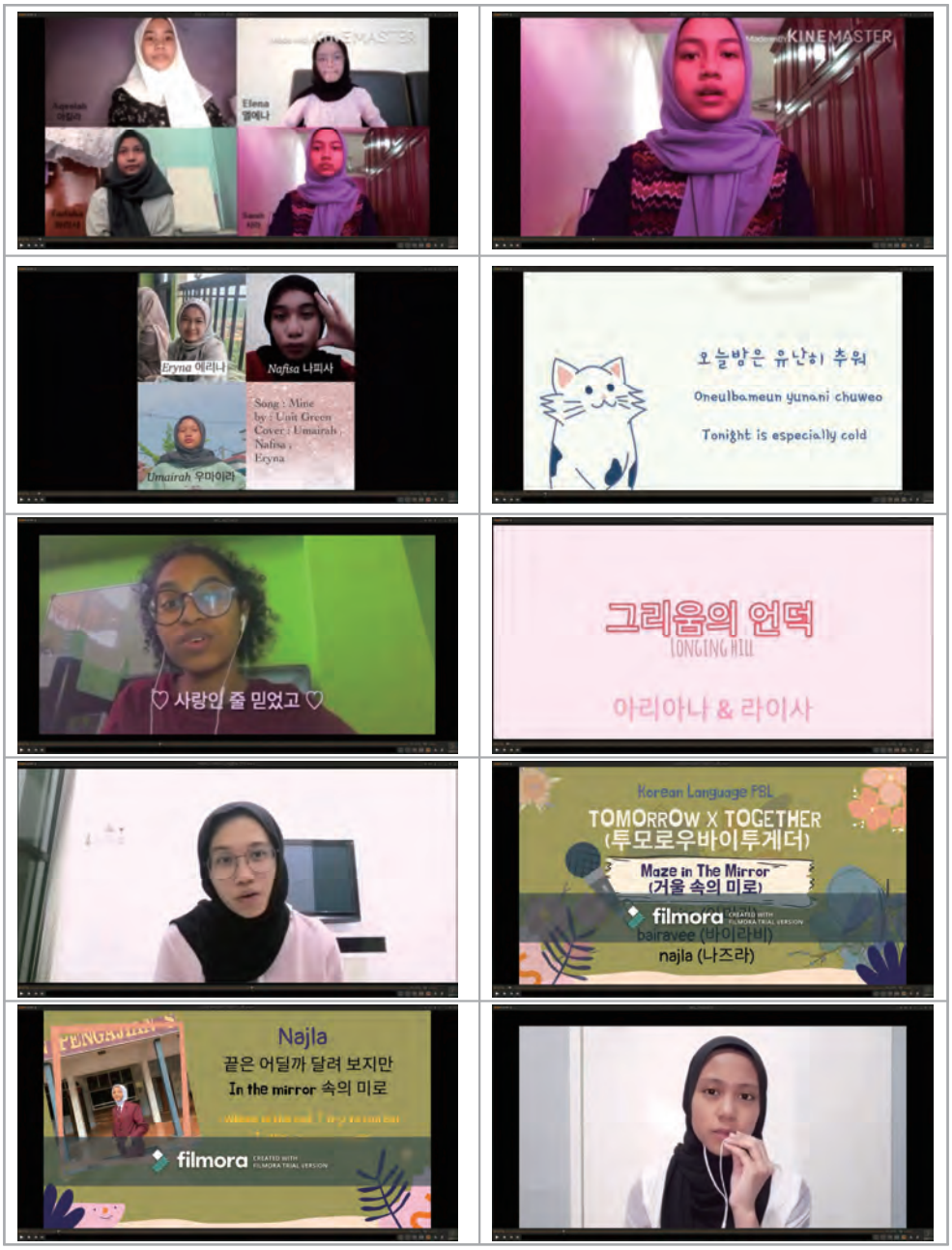
5. Etiquette
1)아마라 사피라 & 알마라
2)알레나 & 에리나

6. Your own topik. (Family culture etc)
1)파틴나 & 나타사
2)마리카 & 아르마

202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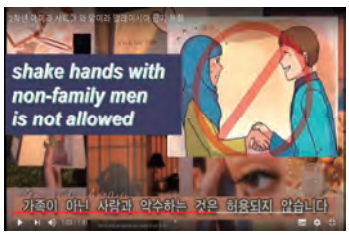
문화 동영상 만들기 주제선정관련 공지사항

각자 맡은 부분 노래를 부르기, 함께 부르기, 가사 번역하기, 가사 넣어 동영상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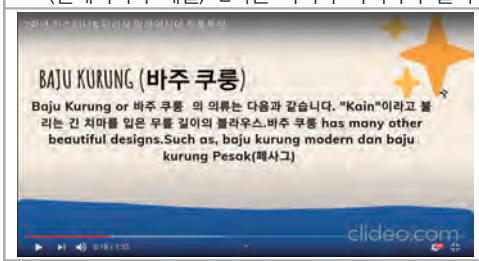


한국어로 말레이시아 문화 소개 동영상 만들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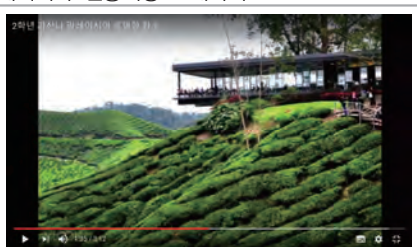
▸ 〈나시하핏만들기〉 1학년 다니아의 말레이시아 음식 소개하기



▸ 〈말레이시아 예절〉 2학년 아미라 사피아와 알리야의 말레이시아 금기문화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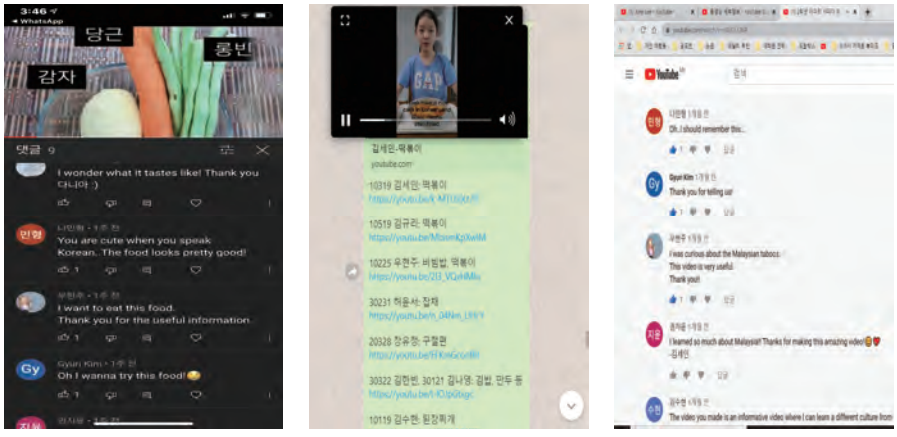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전통의상〉 2학년 파리샤와 키스티나의 말레이시아 전통의상 소개하기



▸ 〈말레이시아 유명한 장소〉 2학년 파잔나의 말레이시아 관광지 소개

▸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만든 한국어로 말레이시아 문화 소개하기 동영상을 You tube에 링크로 공유하고 한국학생들과 피드백을 교환함. 이를 통해 각국의 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집단이 가질 수 있는 유대감과 공감대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



▸ 한국 친구들이 보내 준 한국음식 동영상 링크와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에 달린 댓글

▸ 한국학생들의 구절판 소개 영상

5. 온라인 수업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실언어는 무엇일까?

→ 들려요? 보여요? 와 같은 피동표현, 그죠? 맞죠?와 같은 확인 표현

온라인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업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본 교사의 온라인 수업파일을 복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와 온라인상에서 만나기에 선생님 보여요? 목소리가 잘 들려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등 '듣다' 보다는 '들리다', '보다' 보다는 '보이다' 즉, '여기 보세요' 보다는, '화면이 잘 보여요?',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려요?' 등의 피동표현 교실언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학습자가 집중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그죠?', '맞죠', '알겠어요?' 등 재차 확인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먼저 학습자에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의 의미를 가르치고 반복되는 수업언어에 노출 시키면 이에 따른 학습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많이 사용된 수업언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화면이 잘 보여요? 화면을 공유 할 게요.

마이크를 켜고 대답하세요.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이 문장이(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그죠? 맞지요?

지금부터 퀴즈 시간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점수를 얻어요.

정답을 알면 자기 이름을 먼저 외치세요.

이해한 사람은 손을 들어 주세요.(MS teams 기능에 손 들기 기능이 있음)

6.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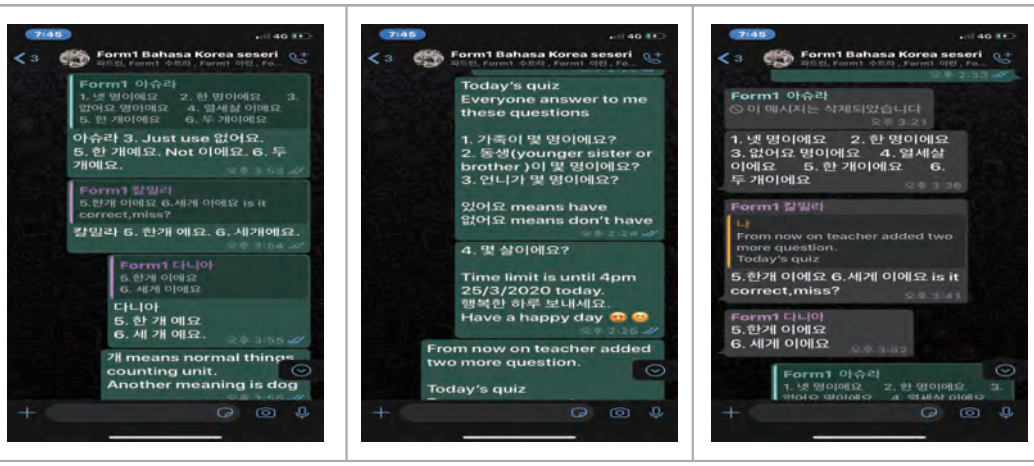
→ 말하기와 쓰기에 있어 학습자의 능력을 한계 짓지 않고 구체적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창의적인 학습자의 능력을 한계 짓지 않고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표현을 배울 때 선생님이 직접 발음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비교적 쉽게 녹음해서 공유할 수 있어 발음을 가르치는데 있어 대면 수업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녹음파일을 통해 학습자 발음의 문제점 또한 쉽게 파악, 교정이 가능했습니다. 즉, 말하기와 쓰기에 있어서는 대면 수업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부여한 과제 중 학습자의 피드백이 좋았던 과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하기 과제: 본문내용 녹음해서 제출하기, 새로운 단어 읽고 녹음해서 제출하기

2. 쓰기과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써서 제출하기



form1의 경우 왓츠앱 그룹을 활용하여 복습내용의 퀴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 풀이에 대한 지도와 첨삭도 왓츠앱 그룹을 통해 실시간 진행해 보았다.

▸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온라인 과제

6월 9일 Speaking test 2 FORM1

제 이름은 (　　)예요.
저는 SESERI학생이에요.
(1)저는 아침[1] 5(다섯)시에 일어나요. (wak
(2)친구들과 아침밥을 먹어요.(I eat my brea
(3)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요.[2] (and start m
(4)영어, 수학[3], 과학[4] 한국어를 배워요.(I
(5)친구들과 운동을 해요. (I exercise with
(6)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I read
(7)그리고 매점에 가요. (8)매점에서 콜라를
(I go to canteen and drink cola)
(9)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I eat my d
room)
(10)그리고 밤 11(열 한)시 30(삼십)분에 자
(11)빨리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싶어요.
(1) 아침: Morning
(2) 시작해요: Start
(3) 수학: mathematics
(4) 과학: science

6월 9일 Speaking test1　이름:_____,____
A: (　　), 지금, **어디예요?**
B: 도서관이에요.
A: 도서관에서 **뭐해요?**
B: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　　)는/은 지금 어디예요?
A: 나는 기숙사예요.
B: 기숙사에서 뭐해요? 공부해요?
A: 아니요, **공부 안 해요.**
기숙사에서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B: 아이스 크림 **맛있어요?**
A: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B: 나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1]
A: 같이 먹을래요?[2]
B: 지금 기숙사에 갈게요.[3]
A: 빨리 와요.
(1) 먹고 싶어요: I want to eat
(2) 같이 먹을래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3) 지금 기숙사로 갈게요: I'm going to dormitory right

▸ form1 말하기 테스트 스크립트

7. 온라인 수업 교수학습지도안은 어떻게 짜야 할까?

온라인 수업지도안은 대면수업의 지도안과는 구조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했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활용 수업지도안을 통해 구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웹툰이 중등학습자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도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맥락을 통해 습득가능 한 사회언어학적 능력 또한 습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언어학적 의사소통능력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선택(실수와 사과, 부탁, 동의(맞장구))과 전형성(화용적 관례어(의례적 인사말)), 특정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발화의 적절한 형식(존댓말 과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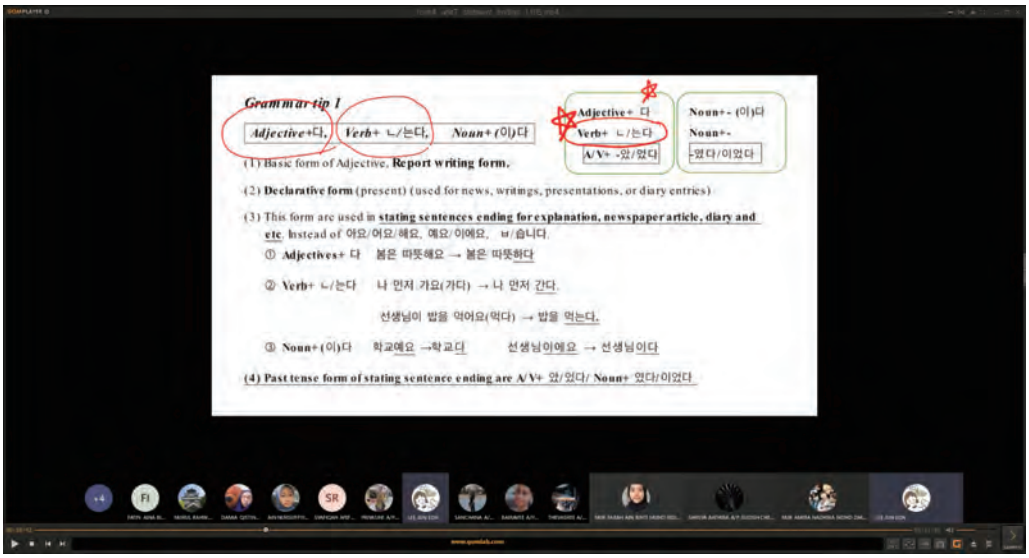
미디어 세대인 중등학습자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드라마, 영화처럼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웹툰이라는 매체는 글과 그림의 서사구조로 되어 있고, 그림을 통해 직관적인 내용유추가 가능하며, 시각화를 통한 상상력과 궁금증을 유발하며, 비교적 짧은 단문형태의 정지된 글과 그림이 동영상 매체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입력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수업모형은 상황적 교수-학습이론인 '앵커드 수업모형(Anchored instruction model)'을 바탕으로 했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 수업모형을 바탕으로 웹툰 감상 전- 감상- 감상 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감상 전 활동으로 작품소개, 문화적 사전지식 공유, 감상 활동으로 어휘 및 표현 중

심의 감상 활동과 그림의 빈칸 넣기 활동 등을 통한 평가, 새로 발견한 표현 및 어휘 공유, 한국사회의 특징 공유를 감상 후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제는 조별 의견을 공유하고 교사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질문은 1. 새롭게 알게 된 어휘, 2 새롭게 알게 된 표현, 3. 새롭게 알게 된 한국문화, 4. 기타 느낀 점으로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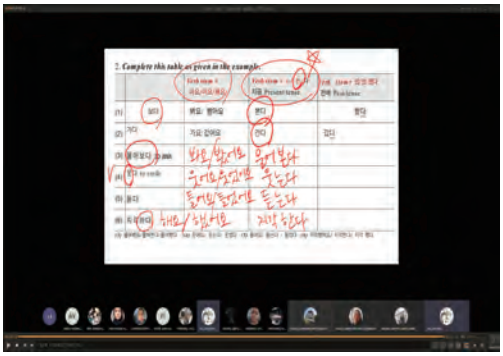
온라인 수업모형은 대면 수업의 수업모형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요약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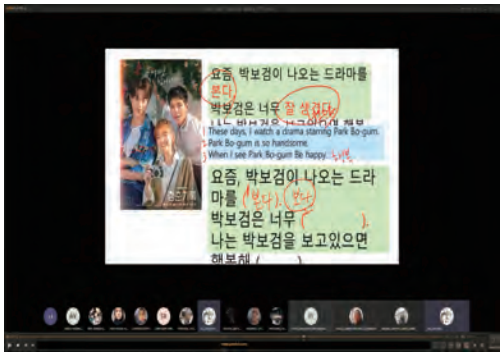
※ 수업자료 및 활동사진



▸ 서술형 문장의 어미를 설명하는 온라인 수업 화면 Capture

▸ 르 불규칙의 동사 서술형 어미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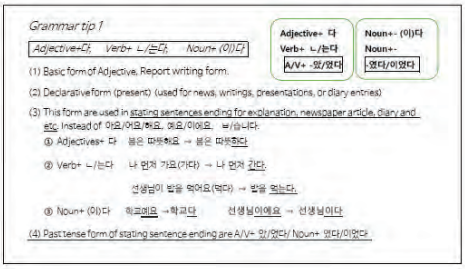


▸ 좋아한다/의미한다 등 웹툰자료에서 언제 서술형어미 'ㄴ다'를 사용하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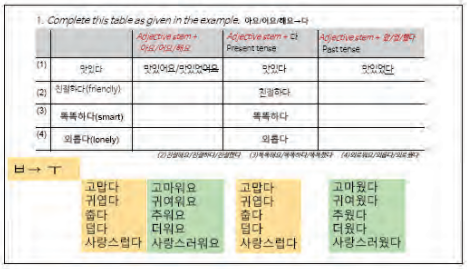
▸ 서술문 설명 PPT자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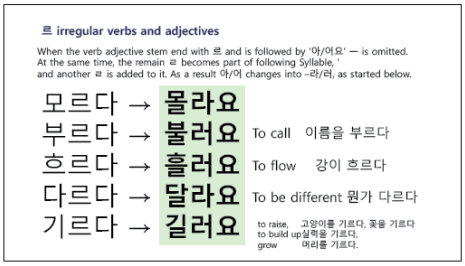
11



10



12



13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나는 이 문제를 몰라요.

나는 이 문제를 모르다.

15

빠르다 게으르다 모르다 다르다

빨라요 게을러요 몰라요 달라요

빠르다 게으르다 모르다 다르다

빨랐다 게을렀다 몰랐다 달랐다

나는 요즘 너무 게을러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 늦었어요.

나는 요즘 너무 (게으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늦었다.)

14

나는 그때 무엇이 소중한지 몰랐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다. I didn't know what was precious then. Now it is too late to regret it.

나는 그때 무엇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어요.

16

나는 요즘 친구가 참 고맙다.
왜냐하면 친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은 날씨가 춥다.
나는 추운 날씨를 좋아한다. 겨울은 매력적이다.

어제는 날씨가 더웠다.
비가 안 왔기 때문이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17

요즘,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를 본다.
박보검은 너무 잘 생겼다.
나는 박보검을 보고있으면 행복해 진다.

These days, I watch a drama starring Park Bo-gum.
Park Bo-gum is so handsome.
When I see Park Bo-gum Be happy.

요즘,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를 (　　).
박보검은 너무 (　　).
나는 박보검을 보고있으면
행복해 (　　)

18

2. Complete this table as given in the example.

		Verb stem + 아요/어요/해요	Verb stem + ㄴ/ 은 다 지금 Present tense	Verb stem+ 았/었/했다 현재 Past tense
(1)	보다	봐요/ 봤어요	본다	봤다
(2)	가다	가요/갔어요	간다	갔다
(3)	물어보다 to ask			
(4)	웃다 to smile			
(5)	듣다			
(6)	지각하다			

(3) 물어봐요/물어본다/물어봤다　(4) 웃어요/ 웃는다/ 웃었다　(5) 들어요/ 듣는다 / 들었다　(6) 지각했어요/ 지각한다/ 지각 했다

19

좋은 영화	보다	본다	봤다
나쁜 사람	만나다	만난다	만났다
맛있는 음식	먹다	먹는다	먹었다
싼 가방	사다	산다	샀다
예쁜 꽃	피다	핀다	피었다

20

【 기자 】
2010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물한 판다 쿠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태어나 벌써 시 100일이 됐습니다.

태었을에 무인기기의 출시 100일 등 사랑 아이와 비슷합니다.

태어날 때만 해도 197g에 16.5cm에 불과했지만 100일 만에 몸무게 10배, 몸길이 4배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서준 / 기즈 동물 사랑단
"엄상해는 초 점이 적었는데 점은데 힘도 없어 나고 하면서 힘도 없어 나고 종종해서고 키워서 귀여워요."

동상 판다는 미국하오로 태어나 초기 성준용이 매우 낯선데 다양해 본본하게 지켜 갑니다.

그러서 아기 판다에게도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보라 '쿠쿠오'란 이름이 생겼습니다.

25

내 생일은 10월 22일 이다. 이다. 이었다.
아니다. 아니었다.
Hari raya는 Malaysia 명절 이다. 이었다.
Hari raya에 Ketupat을 먹는다. 먹었다.
지난 주에는 학교에 안 갔다.

27

26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Ⅱ. 수업자료

우수상

단어 수업을 위한 현지어가 있는 단어책과 파워포인트 자료

권숙경(말레이시아/한국어)

현지어를 활용한 단어책을 만들게 된 이유

저는 2019년 1월에 말레이시아 Sekolah Seri Puteri에 파견된 50대의 한국어 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거의 3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한번도 학교에서의 일탈을 꿈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해외 파견 교사에 대한 안내 공문을 봐도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눈여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 파견은 더욱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우연하게 말레이시아에 한국어 교사로 파견되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언어였습니다. 현지어는 물론 영어도 못하는 내가 과연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어라도 몇 마디 익혀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말레이시아어 사전이나 문법 책등을 찾아보았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사전이나 문법책은 제법 있었는데 한국어로 설명된 말레이어 학습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인도네시아어 사전과 책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집 근처 서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니까 한-말레이어 사전이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말레이시아로 된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나라 사전들은 다 있는데 한국어 사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단어나 표현이 나와 있는 다서 촌스러운 편집의 얇은 포켓북 정도만 찾을 수 있었으나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인 'Lszada'와 'Shopee'에서 찾아보았으나 인도네시아-한국어 사전이나 영어로 설명된 한국어 사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말레이시아어로 된 교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는 조금 다르

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어로 된 한국어 사전이나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말레이시아에 현지어로 된 한국어 사전이 없다는 것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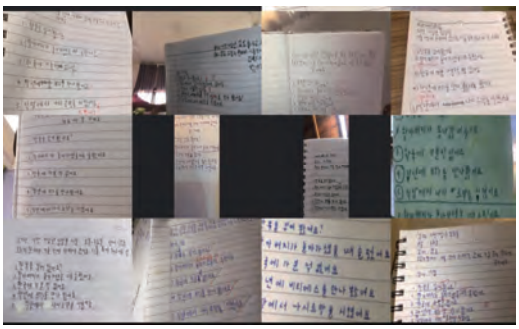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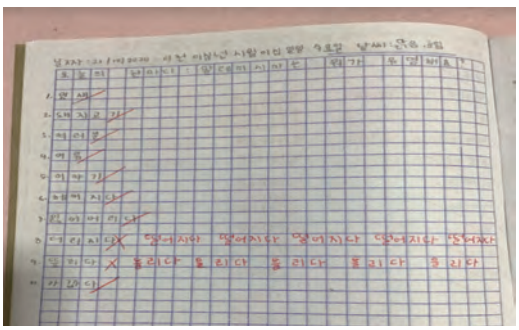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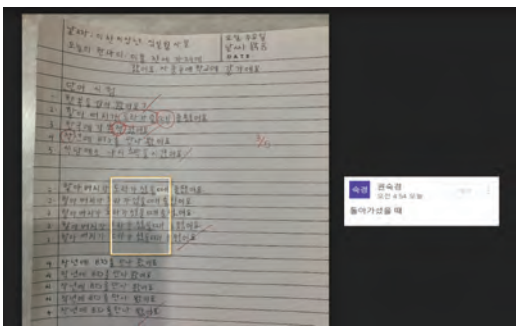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어-한국어 사전들

외국어 공부의 기본은 어휘력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 공부를 해야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인지 언어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큰 언어 장벽의 요인은 어휘력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만 잘 알아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고, 부족하지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모든 외국어 공부의 기본은 어휘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낀 이후 한국어 반 학생들에게 우선 단어를 많이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같은 반에서도 유난히 한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장을 말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한 시간 정도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고 문법에 더 비중을 두었던 수업 방식을 바꾸어 단어를 익히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단어 시험을 보고 틀린 단어는 노트에 5번 이상 써오도록 숙제를 내 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말레이시아는 COVID-19 때문에 거의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 때도 수업 도입부에서는 반드시 그 단원에 제시된 단어를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고 스스로 수정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학생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단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어만 시험을 보았습니다. 특히 ACTIVE KOREAN 3권의 경우 단어의 양이 급격히 늘어 한 단원에 70~80개의 단어를 익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단원에

서는 학생들은 단어를 외우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3개 파트로 나누어 단어를 설명해 주어 학습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배운 단어는 반드시 모두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시험을 보아서 확인하였습니다. 단어 시험이 반복되다 보면 한 단원을 공부하는 동안 같은 단어를 몇 번씩 시험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은 쉽게 단어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원 뒤로 가면서는 단어만 시험을 보지 않고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쓰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단어 시험을 본 후 자신의 노트를 화면에 공유하도록 하여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틀린 단어를 고친 것은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게 하여 숙제를 검사하였습니다.

	▸ 온라인 수업에서 단어 시험을 본 후 학생들이 자신의 노트를 화면에 공유함.
	▸ 매 시간 단어 시험을 본 후 틀린 것은 고쳐 쓰게 하는 것을 단원이 끝날 때까지 반복함.
	▸ 단어 시험에서 틀린 답을 고쳐서 쓴 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한 것을 확인하고 틀린 경우 수정 답글을 달아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

학생들과 함께 만든 현지어가 함께 표기된 단어책

제가 수업 시간에 짧은 말레이시아 실력으로 말을 하면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영어를 공용으로 쓰기는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말레이시아어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만이라도 말레이시아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현지어가 함께 표기된 단어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어를 못하는 제가 어떻게 현지어를 표기하는 단어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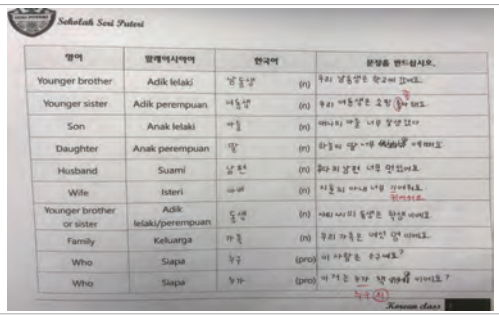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여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과학중등학교입니다. 여학생들이라서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영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많았고,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언어 실력이 부족한 제가 이곳에서 2년이나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어 반 학생들과 간단하게라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한국어 반 Form 4(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 올해 Form 5) 학생들은 저와 100%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학교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5주 동안 긴 방학을 갖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근무한 저는 11월 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의 교재인 ACTIVE KOREAN 1~3권의 모든 단어를 단어책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부해보자라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 시간 단어 학습지를 배부하였지만 학습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책으로 워크북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어책에 말레이시아어도 같이 표기해 학생들이 책에 제시된 영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도 같이 참고하면서 보다 쉽고 빠르게 익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Form 4학년 학생들 중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구글 문서에 ACTIVE KOREAN 1~3에 있는 단어들을 단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어를 써 놓으면 Form 4학년 학생들이 각자가 맡은 단원에 영어와 말레이시아어를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벌써 ACTIVE KOREAN 1~2권을 모두 배웠기 때문에 배운 단어들은 쉽게 모국어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ACTIVE KOREAN 3권 중 안 배운 단원의 단어는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맡도록 하였고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설명해 주고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장들은 학생들끼리 서로 바꾸어 틀린 부분을 찾도록 하고 그 부분을 모두에게 공유하여 가장 알맞은 현지어 단어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저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한 단어씩 한국어, 영어, 말레이어를 다시 점검을 하였습니다. 말레이어 부분은 영어로 설명된 말레이시아어 사전을 이용해 최대한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단어책을 만든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었지만 단어책을 만들면서 전에 공부했던 단어들을 복습하고, 잘 몰랐던 단어들은 배워 가면서 단어책을 만드니 단어 실력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후배들이 공부할 책을 함께 만들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단어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적합한 단어를 찾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어장을 수정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재를 보고 단어책에 한국어 단어를 쓰고 익힌 후 익힌 단어를 문장 속에서 활용하여 사용해 봄으로써 단어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 때에는 PDF 파일을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자료로 업로드 해주어 학생들이 단어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 단원의 문법이나 표현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든 학습지에서도 반드시 다시 단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그 단원의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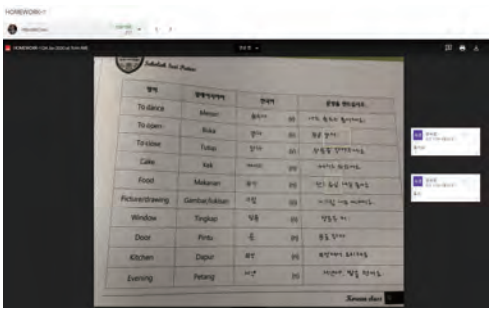
▸ ACTIVE KOREAN 1~3권 한국어 단어장

▸ 현지어도 함께 표기한 한국어 단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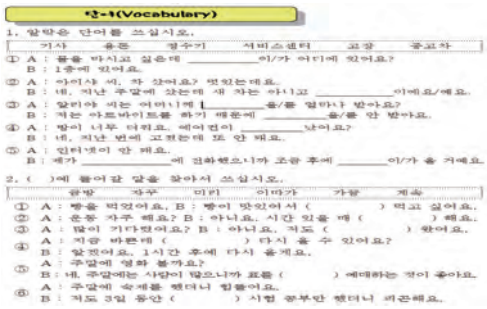


▸ 대면 수업에서 활용한 단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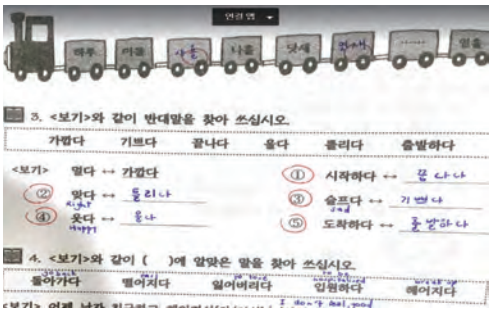
▸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단어책



▸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한 학생의 단어책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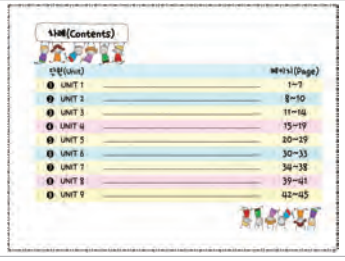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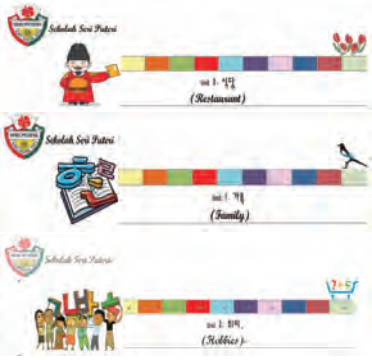


▸ 단원 학습지를 활용한 단어 복습



▸ 형성평가를 활용한 단어 시험

한국어 단어책의 구성

1. 표지		표지에는 한국의 국화와 건축, 탈춤을 넣어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글씨체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선택하여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학교 로고와 이름을 넣었습니다.
2. 목차		목차 페이지에는 학생들이 쉽게 단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여학생들 교재이므로 귀여운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친숙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목		머리말 부분에는 학교 로고와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에는 단원명을 썼는데 한국적인 느낌의 색동과 일러스트를 함께 넣어 한국어 교재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4. 내용		영어, 말레이시아어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교재를 보고 한국어를 직접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직접 문장을 만들어 봄으로써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 문장 구성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1권에서는 문장을 만드는 대신 단어를 중복해서 쓰게 하였습니다. 첫째 줄은 단원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여 단원 구분이 되도록 하였고, 한국어를 쓰는 칸에는 교재에 제시된 품사를 함께 써 학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단에는 책의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단어 파워포인트 학습 자료

단어를 공부하는 수업에서는 많은 교사들처럼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단어의 이미지를 전달하여 좀더 쉽고 빠르게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서 쉬운 방법을 택할까도 했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좋은 방법이라 지속적으로 만들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단어를 익히고 문법과 연계하여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장으로 만들어 말하고, 쓰지 못하는 단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까지 확장해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어의 품사는 책에서 제시한 것을 따랐습니다. 지나치게 품사를 설명하는 것은 초급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정도는 알아야 용언의 활용 등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교재에서 제시한 수준 내에서 품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림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 친숙한 일러스트 그림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사진 자료도 좋지만 배경 등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단어의 이미지 전달만을 고려한다면 일러스트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러스트는 색깔이나 그림이 선명하여 집중적으로 단어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귀엽거나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음식이나 고유 명사 등 일러스트로 전달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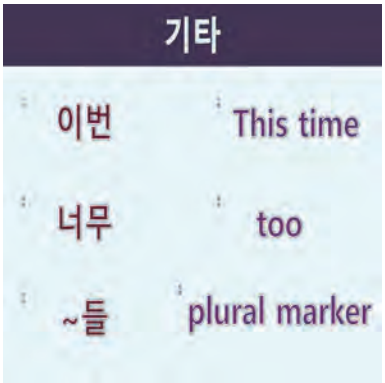
가능한 선명하고 단순해서 단어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림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설명해야 하는 이 그림 같은 경우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제시하기 보다는 운전하는 손과 계기판이 드러난 그림을 선택하여 '운전'이라는 단어의 뜻에 더 충실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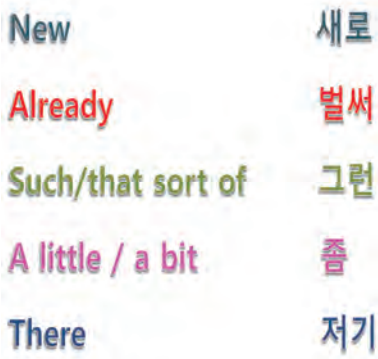
무슬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친숙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무슬림과 관련있는 그림이 있다면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의 그림으로만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슬림 그림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슬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자료니까 노출이 심한 그림, 지나친 남녀의 애정 표현이 있는 그림, 폭력적인 그림 등은 선택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성역할이 나눠진 듯한 그림을 제시하지 않도록 가능한 고려하였습니다. 요리나 가사 노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제시할 때는 여성만이 있는 그림보다는 양성이 함께 나타나 있는 그림, 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을 선택하였고, 직장에서 일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수리나 육체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에서도 남성만이 그려진 그림보다 남녀가 함께 있는 그림을 선택하여 양성 평등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형용사는 가능한 반대말도 함께 제시하였다. 반대되는 단어와 그림을 보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한 그림과 함께 글자가 있는 그림을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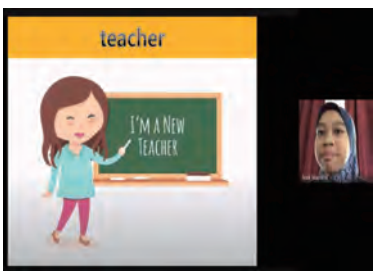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일지라도 의미 범위 내의 다양한 그림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어 의미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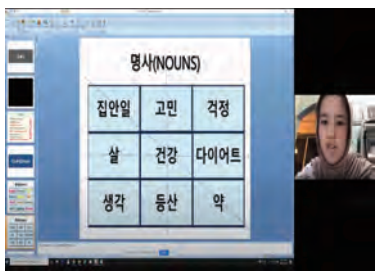


부사나 관형사 또는 추상어 등은 이미지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영어를 통해 한국어 의미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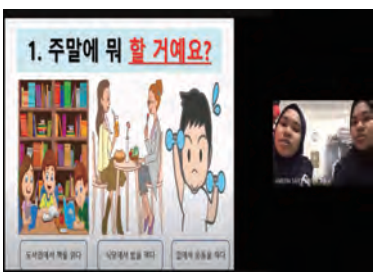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수업 사례 〉



▸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단어 제시



▸ 빙고 게임을 활용하여 단어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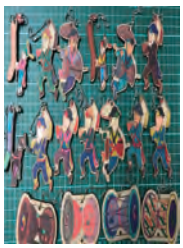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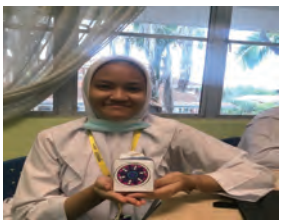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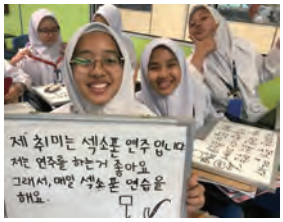
▸ 단어를 활용하여 문법에 맞게 문장으로 말하기

〈 활동 수업 사례 〉

1.	단어 만들기: 자음과 모음 카드를 이용해서 모둠끼리 협력해서 가장 빨리 단어를 만드는 팀이 이기는 게임을 함.			
2.	모둠별 단어 맞추기: 각 모둠에서 대표 학생이 주어진 단어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주어진 시간에 가장 많이 맞힌 팀이 이기는 게임을 하여 쉽고 재미있게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함.			
3.	단어 찾기: 해당 단원의 단어들을 카드로 만들어 주어진 단어들을 가장 빨리 찾는 팀이 이기는 게임을 하고 관련 문법과도 연계하여 말하기 능력을 기르도록 함.			
4.	도전 골든벨: 학기 말 그동안 배운 단어 및 표현들을 정리하고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도전 골든벨 시간을 가짐.			
5.	캘리그라피 또는 부채 만들기: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쓰고 그림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학습 내용들을 이미지화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함.			

6.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모자이크 벽보 만들기: 학생들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그 말들을 정리해 한 글자씩 종이에 쓰고 색칠을 하여 모자이크 벽보를 만듦.	
7.	발표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단원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연극, 노래,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하여 배운 단어와 문법, 표현들을 확장하여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8.	시장 놀이: 숫자를 배운 후 시장 놀이를 통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의 단어와 숫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함.	
9.	식당 놀이: 식당에서 직접 주문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음식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문법과 연계하여 실제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함.	
10.	말하기 테스트 및 대회: 단원이 끝나면 주요 단어 및 문법 표현 들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말하기 테스트를 실시함. 또한 직접적인 수업 활동은 아니지만 각종 말하기 관련 행사에 참여함.	

11.	한글날: 한글날 계기 교육을 한 후 포스터 그리기 대회, 형용사 스티커 붙이기 등을 하여 재미있게 용어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함.	
12.	추석: 추석을 소개한 후 포스터 그리기 대회, 추석 용어 보물찾기 게임, 작은 소품 만들기 등을 하여 한국의 추석 문화를 배우고 그와 관련한 용어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짐.	
13.	문화 수업을 통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 용어 배우기: 교과서에 있는 단어나 표현 외에 더 확장하여 한지 공예, 윷놀이, 딱지치기, 팽이치기, 제기치기, 부채춤 추기, 탈 만들기, 공기놀이, 건축 등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을 통하여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함.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알면 언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국의 문화를 접목하는 수업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함.	

14.	단어를 문장으로 활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합하는 활동: 말하기뿐만 아니라 배운 단어를 제시된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으로 써보는 활동을 해 보고, 모둠원끼리 함께 틀린 곳을 찾아보거나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피드백을 하여 학생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작성한 문장 및 원고를 발표하도록 하여 말하기, 쓰기, 듣기, 쓰기 영역이 모두 통합되어 실제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함.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수학 퍼즐'

이가현(에티오피아/수학)

교과	수학	지도 일시	3월 19일 2교시	대상	고1	지도 교사	이가현
단원	행렬			차시	13/13-15	교과서	114-119 쪽
학습 주제	행렬의 뜻을 알고 기본 연산을 할 수 있다.					수업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학습 목표	행렬의 기본 구조를 학습하고, 행렬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판별식을 구할 수 있다.					준비물	수학 카드, 수학 퍼즐, 학습지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학생	
도입 (8)분	지난내용 복습	• 온라인 수업		• 수학 카드는 해당 단원을 시작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2주 동안 매 수업시간에 반복했습니다. 〈수학 카드는 참고용으로 따로 첨부 했습니다.〉
		① 수학 카드를 활용하여 이전 단원에서 배운 "경우의 수"를 복습한다. - **동전 한 개**와 **동전 두 개**, **동전 세 개**의 경우의 수 그리고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의 경우의 수 등으로 수학카드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점진적 사고를 돕는다. ②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행렬의 기본 개념을 복습한다.	① **이전 단원**인 "경우의 수"를 수학 카드로 복습하고, 경우의 수를 찾는 사고의 과정을 반복 학습을 통해 단순화한다. ② **지난 수업** 때 배운 "행렬"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오답을 수정한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학생	
		-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행과 열의 개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 안내	• 이번 시간은 행렬의 기본 정의를 토대로, **행렬 문제를 푸는 것**이 학습 목표임을 설명한다.	• 학습 목표를 크게 읽고 나서, 교사가 만든 학습지를 꺼낸다.	• 수학 학습지는 단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항들로 만듭니다.
전개1 (15)분	학습지 풀기	① 칠판에 아이들이 풀 문항의 번호를 적어준다. ② 문제를 풀 시간을 7분 정도 준다. ③ 아이들 질문을 받는다. ④ 판서 수업으로 문항 풀이를 한다.	① 노트에 문제 번호를 적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문제를 푼다. ②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시간 내에 다 풀면 선생님께 답을 점검받는다. ③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풀이과정과 답을 확인한다.	• 복습한 개념을 반복 훈련 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습지에서 문항을 선별합니다. <수학 학습지는 참고용으로 따로 첨부 했습니다.>
전개2 (15)분	수학 퍼즐 게임	• 대면 수업의 경우		
		① 팀의 대표가 나와서 퍼즐을 받아간다. ②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배운 개념을 상기시키면서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 ③ 퍼즐을 완성한 팀의 답을 확인한다.	① 팀 대표가 받아온 퀴즈 문제들을 팀원이 확인한다. ② 각자 자신 있는 수학 퍼즐을 선택한다. ③ 퍼즐을 완성하면 선생님을 부른다.	• 온라인 수업의 경우 혼자 퍼즐을 맞추고 완성 후 선생님께 검사를 받습니다. • 게임을 하면서 개념을 체득하게 합니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학생	
총 정리 (5)분	학습 내용 재확인	① 게임을 하면서 분산되었던 관심을 교사한테 다시 맞춘다. ② 학생들이 질문했던 개념이나 문항을 다시 설명한다.	① 게임을 정리하고 선생님께 집중한다. ② 수학 게임을 하면서 어려웠던 문항을 점검 받는다.	• 주요 개념을 다시 설명합니다.

※ 평가 계획

평가내용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수학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가?	잘함	주어진 시간 동안, 수학 퍼즐을 완성했다.	교사가 아이들의 활동 상황을 꾸준히 점검한다.
	보통	주어진 시간을 넘겼지만, 수학 퍼즐을 완성했다.	
	노력요함	수학 퍼즐을 완성하지 못했다.	

수업자료 활용 의의

["performance=motivation×ability"]

교육적인 면에서 동기부여란 교육자가 효과적인 학습 자극으로 학생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브룸의 기대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performance=motivation×ability", 즉, 학습 동기 유발(motivation)과 학습 수행 능력(ability)이 학습 결과(performance)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습 동기 유발이 효과적이라도 개인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면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학습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학습을 유발하는 자극이 없다면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행 능력과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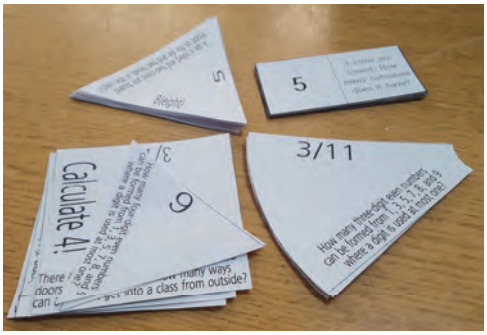
1. [학습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

수학 퍼즐을 수업 중에 한다고 아이들에게 안내하면, 아이들은 판서로만 수업을 할 때에 비해 훨씬 더 능동적 사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합니다.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도입 단계에서 시각적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개념을 복습하였고,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지 문제를 풀면서 배운 개념을 체득하게끔 수업 지도안을 구성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제들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학습지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준비가 되면 수학 퍼즐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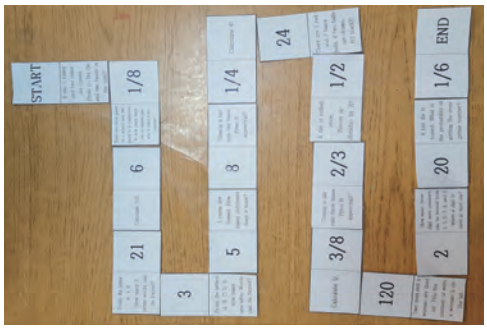
2. [학습자의 학습 유발을 위한 노력]

한국에서 COVID-19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또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의지 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떠올린 것이 바로 수학 게임입니다. 한글 파일로 "ㄹ" 모양과 원 모양 등 여러 모양으로 퍼즐을 만들어 수업 시간에 활용했습니다. 첨부한 수업 영상은 현지 학교가 잠정 휴교하기 전에 찍은 것입니다. 수학 게임의 효과 및 아이들의 반응을 확인해보기 위해 3월 수업 중에 본 수업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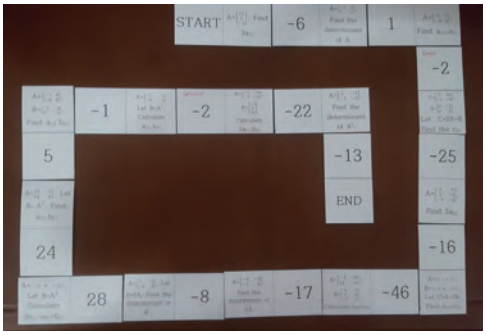
수학 퍼즐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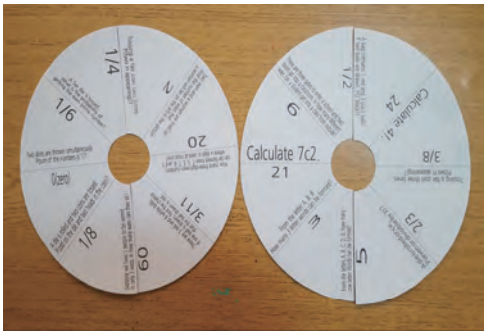
▸ 수학 퍼즐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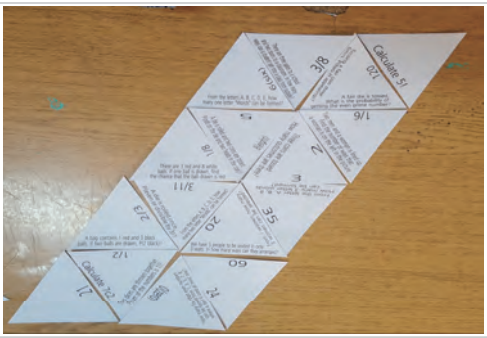
▸ "ㄹ" 모양 퍼즐



▸ 네모 모양 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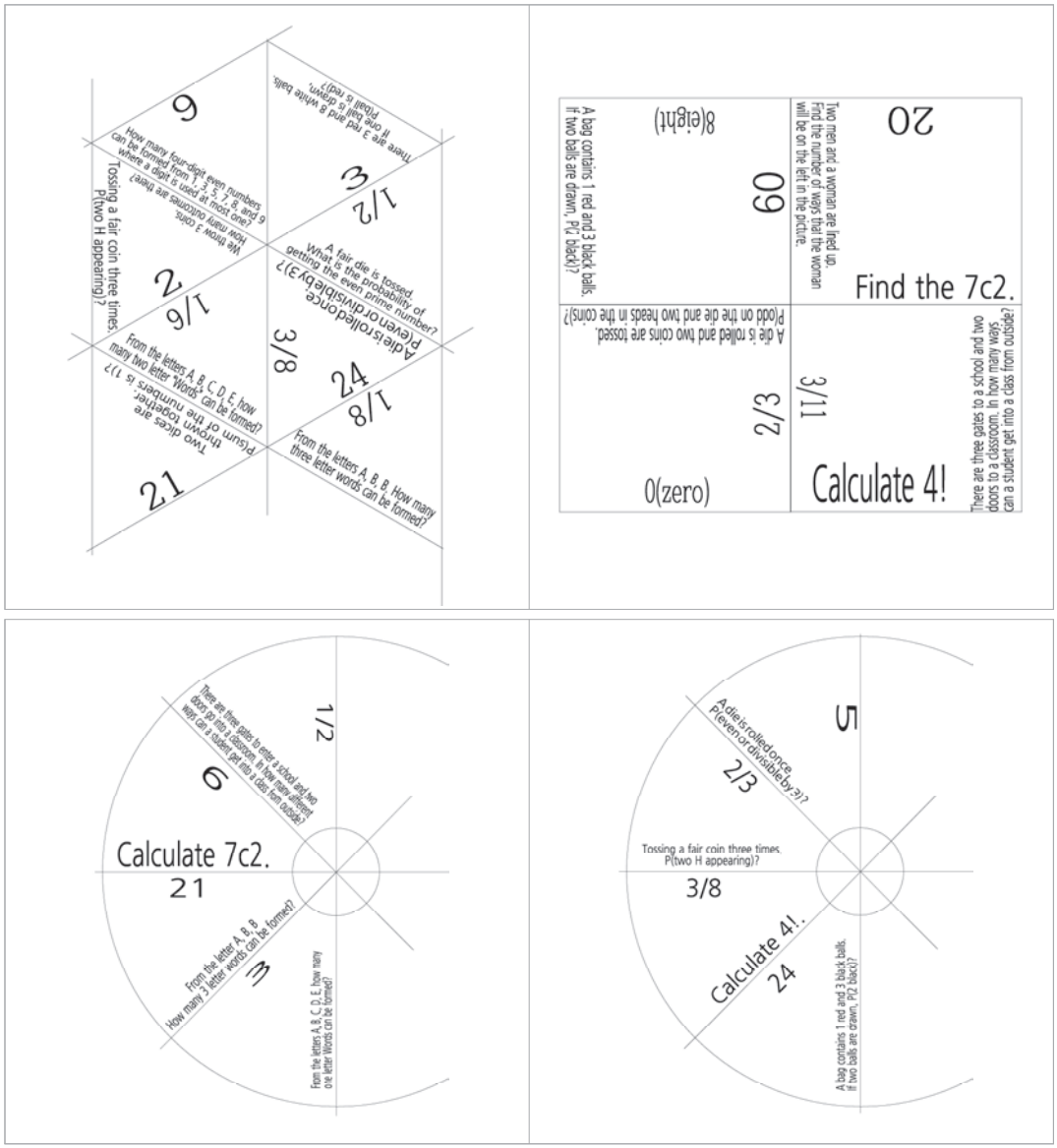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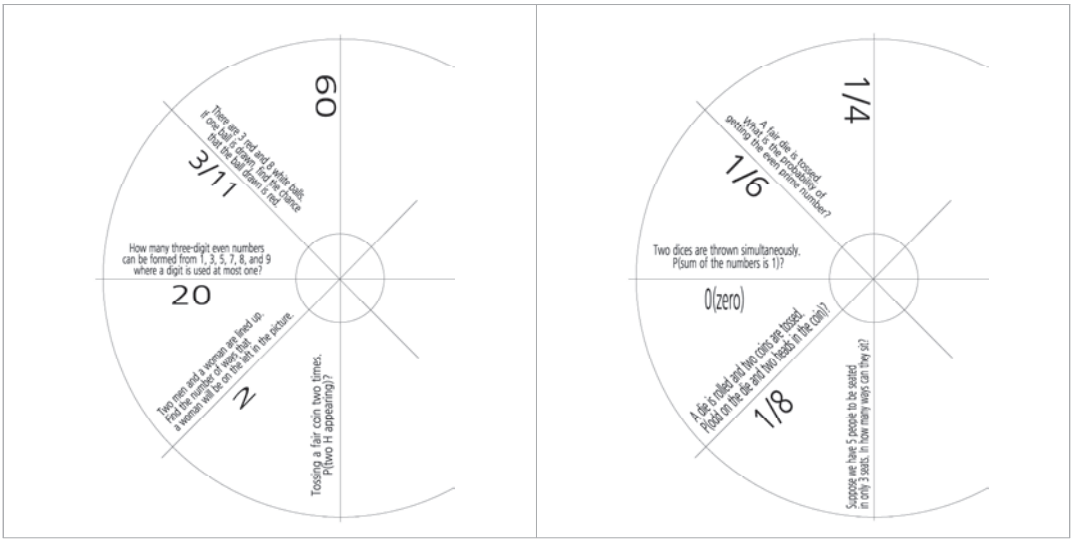
▸ 원 모양 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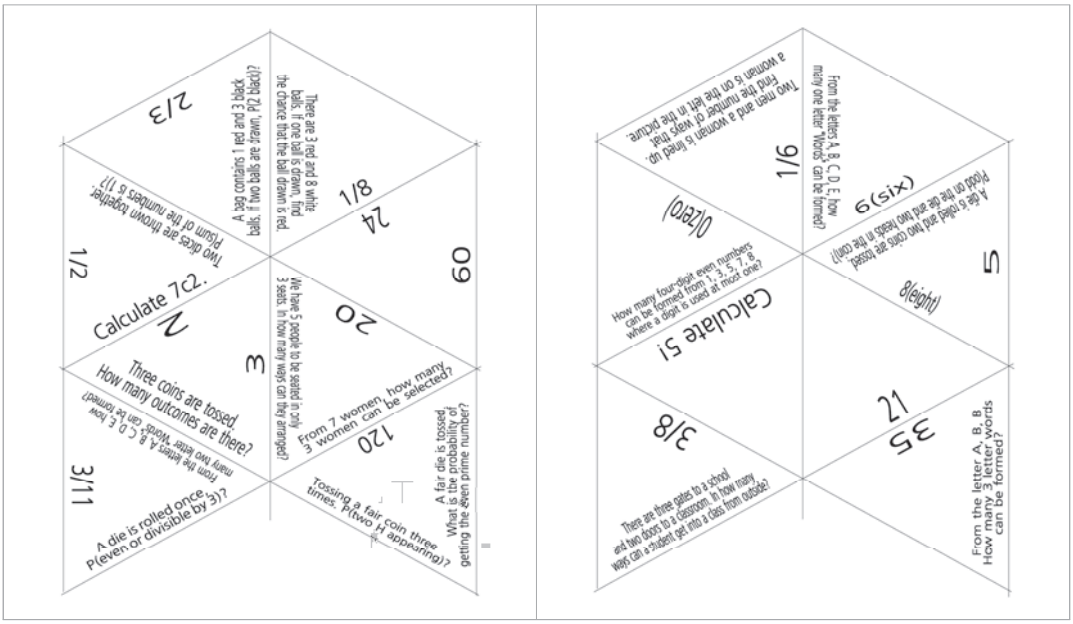


▸ 평행사변형 모양 퍼즐

수학 퍼즐 도안


Find the 7c2.
20
Two men and a woman are lined up. Find the number of ways that the woman will be on the left in the picture.
60
8(eight)
A bag contains 1 red and 3 black balls. If two balls are drawn, P(2 black)?
Calculate 4!
24
There are three gates to a school and two doors to a classroom. In how many ways can a student get into a class from outside?
3/11
A die is rolled and two coins are tossed. P(odd on the die and two heads in the coins)?
3/2
0(zero)
From the letters A, B, B, How many three letter words can be formed?
1/8
24
A die is rolled once. P(even or divisible by 3)?
1/2
3
There are 3 red and 8 white balls. If one ball is drawn, P(ball is red)?
1/2
3
We know 3 coins. How many outcomes are there?
Tossing a fair coin three times. P(two H appearing)?
1/6
2
From the letters A, B, C, D, E, how many two letter "Words" can be formed?
3/8
Two dices are thrown together. P(sum of the numbers is 1)?
21
How many four-digit even numbers can be formed from 1, 2, 5, 7, 8, and 9 where a digit is used at most once?
6
Calculate 7c2.
21
There are three gates to enter a school and two doors go into a classroom.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a student get into a class from outside?
6
1/2
From the letter A, B, B, How many 3 letter words can be formed?
3
From the letters A, B, C, D, E, how many one letter Words can be formed?
A die is rolled once. P(even or divisible by 3)?
2/3
5
Tossing a fair coin three times. P(two H appearing)?
3/8
Calculate 4!.
24
A bag contains 1 red and 3 black balls. If two balls are drawn, P(2 black)?


Tossing a fair coin two times. P(two H appearing)?
60
There are 3 red and 8 white balls. If one ball is drawn, find the chance that the ball drawn is red.
3/11
How many three-digit even numbers can be formed from 1, 3, 5, 7, 8, and 9 where a digit is used at most one?
20
Two men and a woman are lined up. Find the number of ways that a woman will be on the left in the picture.
2
A fair die is tossed. What is the probability of getting the even prime number?
1/4
Two dices are thrown simultaneously. P(sum of the numbers is 1)?
1/6
Suppose we have 5 people to be seated in only 3 seats. In how many ways can they sit?
0(zero)
A die is rolled and two coins are tossed. P(odd on the die and two heads in the coin)?
1/8


A die is rolled once. P(even or divisible by 3)?
3/11
Three coins are tossed. How many outcomes are there?
2
Calculate 72.
1/2
Two dices are thrown together. P(sum of the numbers is 11)?
A bag contains 1 red and 3 black balls. If two balls are drawn, P(2 black)?
2/3
3
We have 5 people to be seated in only 3 seats. In how many ways can they be arranged?
20
There are 3 red and 8 white balls. If one ball is drawn, find the chance that the ball drawn is red.
24
3/8
From 7 women, how many women can be selected?
120
Tossing a fair coin three times. P(two H appearing)?
60
From the letters A, B, C, D, E, how many one letter words can be formed?
5
From the letter A, B, B How many 3 letter words can be formed?
12
A die is rolled and two coins are tossed. P(odd on the die and two heads in the coin)?
(six) 9
8(eight)
Calculate 5!
120
How many four-digit even numbers can be formed from 1, 3, 5, 7, a where a digit is used at most one?
0(zero)
Two men and a woman is lined up. Find the number of ways that a woman is on the left in the picture.
1/6
There are three gates to a school and two doors to a classroom. In how many ways can a student get into a class from outside?
3/8

There are three gates to a school and two doors to a classroom. In how many ways can a student get into a class from outside?	1/8	8	Tossing a fair coin two times. P(two H appearing)?
Calculate 7c2.	6	1/4	Calculate 4!
From the letter A, B, B How many 3 letter words can be formed?	21	A die is rolled once, P(even or divisible by 3)?	1/2
5	3 coins are tossed. How many outcomes does it have?	Tossing a fair coin three times. P(two H appearing)?	2/3

Calculate 5!.	3/8	START	3
2	How many three digit even numbers can be formed from 1, 3, 5, 7, 8, and 9 where a digit is used at most one?	A die is rolled and two coins are tossed. P(odd on the die and two heads in the coin)?	From the letters A, B, C, D, E, how many one letter Words can be formed?
20	A fair die is tossed. What is the probability of getting the even prime number?	24	120
1/6	END	There are 1 red and 3 black balls. If two balls are drawn, P(2 black)?	Two men and a woman are lined up. Find the number of ways a woman is on the left.

수학카드(outcomes)참고용

1coin	3coins

2coins	1die
2dice	2dice 1coin
1die 2coins	1die 1coin
4 red, 6 blue Choose 1	

수학학습지(Complex)참고용

<Complex>

83) Write the following without exponents.

a) i^2
b) i^3
c) i^4
d) i^5
e) i^6
f) i^7
g) i^8
h) i^9
[illegible] i^{10}
[illegible]
m) i^{103}
n) $(\sqrt{-4})^6$
o) $(\sqrt{-3})^{30}$
p) $(\sqrt{-25})^5$

84) Identify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each of the following complex numbers.

a) $\frac{3-5i}{7}$
b) $\sqrt{5}+2i\sqrt{2}$
c) 7
d) $\sqrt{-75}+2i\sqrt{-64}$
e) $i^2\sqrt{-8}+2i\sqrt{-25}$
f) $(4+2i)+2(3-3i)+(4+i)$
g) $i^3\sqrt{-16}+2i\sqrt{32}$
h) $i^7\sqrt{-12}-2i\sqrt{-10}$
i) $\sqrt{-13}+2i^9+\sqrt{-9}+\sqrt{-16}-(1+\sqrt{-25})$

85) Find the value of the unknown x,y in each of the following equations.

a) x-3i = 2+12yi
b) 7+2yi = x-10i
c) 2(4-2i)+(3+5i) = x+yi
d) (4+2i) + 2(3-5i) = x+yi
e) (10-7i) - 3(3-5i) = x+yi
f) 2(7+2yi) + 3 = x+yi
a) (4-2i) + 2(3+5i) = x+yi
b) 3(10+7i) - (3+5i) = x+yi
[illegible] x+yi) - 2(3x-y) + 4i = 0
d) (2x+3)i + 4(y+4i) + i^{10} = 0

86) Perform each of the following operations and write you answers in the form of x+yi

a) $4+2\sqrt{-9}+\sqrt{-64}-7+5i^6-i^{12}$
b) $(4+\sqrt{-16})-(7+11i)-i^{16}+3i^{18}+2i^9$
c) $-i^{20}+3i^{24}+2i^{13}$
d) $2i(3i^{20}+4i^{22}+2i^{23}\sqrt{-18})$
e) $4i(3-2i)-3$
f) $2i(4-2i)+3i^3-7i$
g) (-6 + 4i) + (2 + i)
h) (i^3 - 2) - i(1 - 2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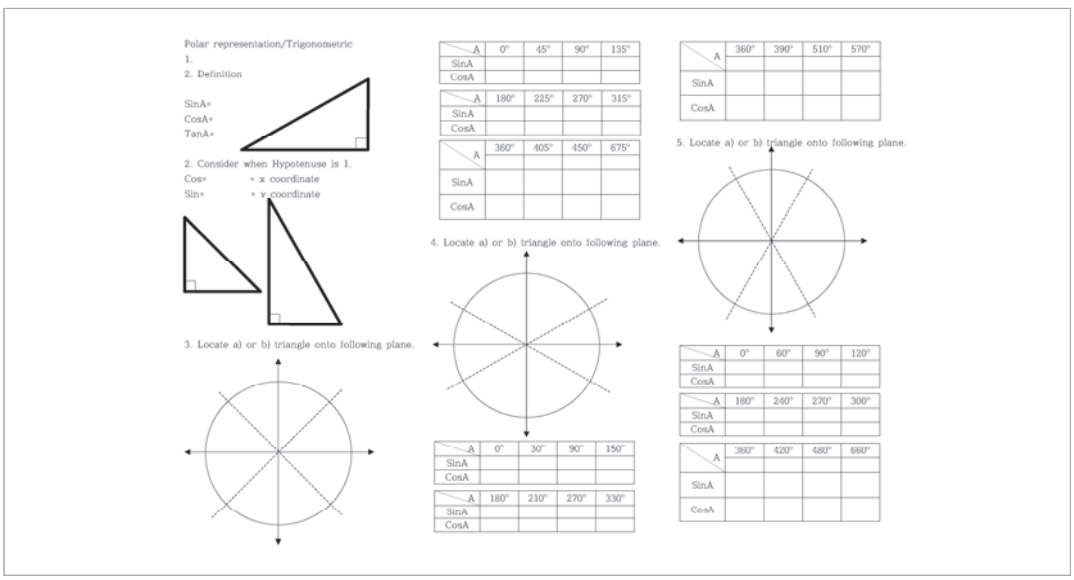
87) Perform the following operations and write you answers in the form of a+bi where a and b are real numbers.

a) (-3 + 4i)(2 - 2i)
b) $|3i(2-4i)|$
c) (2 - 7i)(3 + 4i)
d) $|(1+i)(2-3i)|$
e) $|(2-i)-i(1-2i)|$
f) $\left(\frac{2-3i}{1-i}\right)\left(\frac{1+i}{2+3i}\right)$
g) $\frac{2-3i}{3+2i}+6+9i$
h) $i^{12}-i^3+i^{20}-i^{24}+i^{35}-i^{20}$
i) $\frac{i}{2+3i}$
j) $\frac{i+3}{5-2i}$
k) $\left|\frac{4-2i}{1-i}\right|$
l) $\left(\frac{2i}{3+7i}\right)$
m) $\frac{i+1}{3-4i}$
n) $\frac{-3i}{3+2i}+\frac{i}{3-4i}$
o) $\frac{(5-4i)(2-i)}{(3+2i)(1-3i)}$

88) Solve the equation.

a) $(x+1)^2=-4$
b) (2 - 3i)(x + yi) = 3
c) $Z^2=1+i$
d) $3Z^2-2Z+1=0$
e) $Z^2+4=0$
f) $Z^2+Z+1=0$
g) Find the cube roots of 1
h) $Z^3=-1$
I) $Z^4=1$

수학학습지(Polar representation)참고용



Polar representation/Trigonometric

1.

2. Definition

SinA=
CosA=
TanA=

2. Consider when Hypotenuse is 1.

Cos= = x coordinate
Sin= = y coordinate

3. Locate a) or b) triangle onto following plane.

A	0°	45°	90°	135°
SinA				
CosA				

A	180°	225°	270°	315°
SinA				
CosA				

A	360°	405°	450°	675°
SinA				
CosA				

4. Locate a) or b) triangle onto following plane.

A	0°	30°	90°	150°
SinA				
CosA				

A	180°	210°	270°	330°
SinA				
CosA				

A	360°	390°	510°	570°
SinA				
CosA				

5. Locate a) or b) triangle onto following plane.

A	0°	60°	90°	120°
SinA				
CosA				

A	180°	240°	270°	300°
SinA				
CosA				

A	360°	420°	480°	660°
SinA				
CosA				

수학학습지(probability)참고용

1) When a "fair" coin is tossed, the possible results are either head(H) or tail(T). Consider an experiment of tossing a fair coin once.
a) What is the possible outcome?
b) Give the sample space.
c) Give the event of H appearing.
d) Give the probability of H appearing.
e) Give the event of T appearing.
f) Give the probability of T appearing.

2) When a "fair" coin is tossed, the possible results are either H or T. Consider tossing a fair coin twice.
a) What is the possible outcome?
b) Give the sample space.
c) Give the event of H appearing on the second throw.
d) Give the event of at least one T appearing.
e) Give the probability of H appearing on the first throw.
f) Give the probability of two H appearing.

3) When a "fair" coin is tossed, the possible results are either H or T. Consider tossing a fair coin three times.
a) What is the possible outcome?
b) Give the sample space.
c) Give the event of H appearing on the second throw.
d) Give the event of at least one T appearing.
e) Give the probability of H appearing on the first throw.
f) Give the probability of two H appearing.
g) Give the probability of at least two H appearing.
h) Give the probability of T appearing on the first throw and H appearing on the second throw.

4) A box contains 4 red and 5 black balls. If one ball is drawn at random, what is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a red ball?
b) a black ball?
c) a yellow ball?
d) a red or black ball?
e) not black?
f) not red?

5) A box contains 3 red and 6 black balls. If one ball is drawn at random, what is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a red ball?
b) a black ball?
c) a yellow ball?
d) a red or black ball?
e) not red?
f) not black?

6) A box contains 6 red balls. One ball is drawn at random.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a red ball?
b) a white ball?

7) A bag contains 3 red, 5 black, and 4 white marbles. One marble is drawn at random.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marble is
a) black?
b) not black?
c) red?
d) not red?
e) white?
f) not white?
g) yellow?

8) The odds in favour of an event are 3:8. Find the probability of its occurrence and its non occurrence.

9) A bag contains 1 red and 3 black balls. If two balls are drawn at random,
a) Determine the possible outcomes.
b)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2 red balls.
c)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1 red and 1 black.
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2 black balls.

10) A bag contains 2 red and 2 black balls. If two balls are drawn at random,
a) Determine the possible outcomes.
b)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2 red balls.
c)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1 red and 1 black.
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2 black balls.

11) A bag contains 2 red and 3 black balls. If two balls are drawn at random,
a) Determine the possible outcomes.
b)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2 red balls.
c)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1 red and 1 black.
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2 black balls.

12) A bag contains 3 black and 2 white balls. We draw two balls one after the other with replacement. Find the probability that
a) the first ball is black and the second is also black.
b) the first ball is black and the second is also white.
c) the first ball is white and the second is also white.

13) A bag contains 3 black and 2 white balls. We draw two balls one after the other without replacement. Find the probability that
a) the first ball is black and the second is also black.
b) the first ball is black and the second is also white.
c) the first ball is white and the second is also white.

14) If a number is to be selected at random from the integers 1 through to 10.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number is
a) odd?
b) even?
c) the prime number?
d) divisible by 3?
e) divisible by 4?
f) divisible by 5?
g) even and prime?

15) A fair die is tossed. What is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the number 7?
b) either 1, 2, 3, 4, 5 or 6?
c) a number different from 5?

16) Give the outcomes for the following experiment.
a) Tossing a coin
b) Tossing two coins
c) Tossing three coins
d) Rolling a die
e) Rolling two dice
f) Tossing a coin and rolling a die
g) Tossing two coins and rolling a die
h) Tossing three coins and rolling two dice
i) Drawing a ball from a bag with 4 red and 6 white.
j) Selecting a number at random from integers from 1 through to 12

17) Let a die be rolled once. Let E be the event of a prime number appearing at the top. Give the complement of the event.

18) The sample space is {1,2,3,5,6,7,8,9,10,11,15,16}. Let E be the event of a prime number. Give the complement of the event.

19) A die is rolled and a coin is tosse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3 on the die and a tail in the coin.

20) A die is rolled and a coin is tosse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even on the die and a head in the coin.

21) A die is rolled and two coins are tosse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odd on the die and two heads in the coin.

22) A bag contains 3 red, 4 blue and 3 white balls. Two balls are drawn one after the other and then a fair coin is tosse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a red on the first draw, a blue ball on the second draw and head. The balls are replaced.
b) a red on the first draw, a blue ball on the second draw and head. The balls are not replaced.
c) a white on the first draw, a red ball on the second draw and tail. The balls are replaced.
d) a white on the first draw, a red ball on the second draw and tail. The balls are not replaced.

23) A bag contains 3 red, 4 blue and 3 white balls. Three balls are drawn one after the other and then a fair coin is tossed. Find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a red on the first draw, a blue ball on the second draw and a white ball on the third draw with replacement.
b) a red on the first draw, a blue ball on the second draw and a white ball on the third draw without replacement.

24) A die is thrown twice. What is the probability of scoring a 3, followed by a 4?

25) A red ball and 4 white balls are in a box. If two balls are drawn without replacement, what is the probability of
a) getting a red ball on the first draw and a white ball on the second?
b) getting two white balls?
c) getting two red balls?
d) getting a white ball on the first draw and a red ball on the second?

26) A red ball and 4 white balls are in a box. If two balls are drawn with replacement, what is the probability of
a) getting a red ball on the first draw and a white ball on the second?
b) getting two white balls?
c) getting two red balls?
d) getting a white ball on the first draw and a red ball on the second?

27) A bag contains 5 red balls, 4 blue balls and 3 white balls. Two balls are drawn one after the other. Find the probability of each of the following case without replacement and with replacement.
a) both are red.
b) red on the first draw and blue on the second draw.
c) red on the first draw and white on the second draw.
d) blue on the first draw and red on the second draw.
e) both are blue.
f) blue on the first draw and white on the second draw.
g) white on the first draw and red on the second draw.
g) white on the first draw and blue on the second draw.
g) both are white.

28) Two dices are thrown simultaneously. Find the probability that the sum of the numbers scored is
a) 1
b) 5
c) 7
d) greater than 9
e) less than 4
f) greater than 2
g) less than 12

<Addition rule>
29) Find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a 6 or 4 in one roll of a die.

30) Find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even or prime numbers in one roll of a die.

31) A die is rolled once. Find the probability that it is even or it is divisible by 3.

32) In throwing a die, consider the following events.
E1= the number that shows up is even
E2= the number that shows up is prime
E3= the number that shows up more than 3
a) Determine P(E1∩E2)
b) Determine P(E2∩E3)
c) Determine P(E1∩E3)
d) Determine P(E1∩E2∩E3)
e) Determine P(E1∪E2)
f) Determine P(E2∪E3)
g) Determine P(E1∪E3)
h) Determine P(E1∪E2∪E3)

<Counting principle>
33) Suppose you have six different books.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you arrange these books on a shelf?

34) There are three gates to enter a school and two doors go into a classroom.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a student get into a class from outside?

35) In a classroom there are 50 students from whom 27 are female students. If one student is selected at random, what is the probability of getting male student?

36) Suppose there are 2 seats arranged in a row.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two people be seated on them?

37) Suppose there are 5 seats arranged in a row.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five people be seated on them?

38) Suppose there are 8 seats arranged in a row.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eight people be seated on them?

39) Suppose we have 5 people to be seated in only 3 seats. In how many ways can they sit?

40) From the letters A, B, C, D, E, how many five letter "Words" can be formed?(*the words need not have meanings*)

41) From the letters A, B, C, D, E, how many three letter "Words" can be formed?(*the words need not have meanings*)

42) From the letters A, B, C, D, E, how many two letter "Words" can be formed?(*the words need not have meanings*)

43) From the letters A, B, C, D, D, how many five letter "Words" can be formed?(*the words need not have meanings*)

44) From the letters A, B, B, B, B, how many five letter "Words" can be formed?(*the words need not have meanings*)

45) In a library there are 3 Mathematics, 4 Geography and 3 Economics books. If each of them will be put on a shelf and each type of a book are identical, in how many ways can these books be arranged?

46) How many four-digit numbers can be formed from the digits 1, 3, 5, 7, 8, and 9 where a digit is used at most one?
a) if the numbers must be even?
b) if the numbers are less than 3000?

47) Two men and a woman are lined up to have their picture taken, If they are arranged at random, find the number of ways that
a) the woman will be on the left in the picture.
b) the woman will be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48) Find the number of permutations that can be mede out of the letters of the word "MATHEMATICS". In how many of these permutations
a) do the words start with C?
b) do all the vowels occur together?
c) do the words begin with H and end with S?

49) In how many ways can 8 people be arranged at a round table?

50) 7 people are to sit around a circular table.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these people be seated?

51) In how many ways can 6 boys and 6 girls sit around a table of 12 seats, if no two girls are to sit together?

52) In an examination paper, there are 12 questions.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a student choose eight questions in all, if two questions are compulsory?

53) A committee of 7 students has to be formed from 9 boys and 4 girls. In how many ways can this be done when the committee contains
a) exactly three girls?
b) at least three girls?
c) 2 girls and 5 boys?
d) all boys?
e) 3 boys and 4 girls?
f) 4 boys and 3 girls?

54) In how many different ways can three men and three women be selected from six men and eight women?

55) In how many ways can Bekele invite at least one of his friends out of 5 to an art exhibition?

56) A committee of 5 students has to be formed from 9 boys and 9 girls. In how many ways can this be done when the committee consists of
a) 2 girls and 3 boys?
b) all boys?
c) all girls?
d) at least 3 boys?
e) at most 3 girls?
f) 3 girls and 2 boys?

57) In how many ways can a committee of 5 be selected from 10 people willing to serve?

58) In how many ways can a committee of 6 be selected from 10 people willing to serve?

59) In how many ways can a committee of 8 be selected from 10 people willing to serve?

60) In a box there are 3 red, 4 white and 5 black balls. If we choose three balls at random, what is the number of ways such that
a) one ball is white?
b) 3 of them are black?
c) at most 2 are red?

61) A box contains 12 bulbs with 3 defective ones. If two bulbs are drawn from the box together,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oth bulbs are defective?
b) both are non defective?
c) one bulb is defective?

62) A box contains 12 bulbs with 3 defective ones. If two bulbs are drawn one after the other from the box together,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oth bulbs are defective?
b) both are non defective?
c) the first one bulb is defective, and the second one is non defective?
d) the first one bulb is non defective, and the second one is defective?

63) A box contains 3 red and 8 white balls. If one ball is drawn from it, find the chance that the ball drawn is red.

64)

		second die					
	(F,S)	1	2	3	4	5	6
first die	1						
	2						
	3						
	4						
	5						
	6						

Ⅱ. 수업자료

장려상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Plickers 활동

김지현(말레이시아/한국어)

교과	한국어	지도 일시	2020년 8월 6일	대상	3학년	지도 교사	김지현
단원	8. 시험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 보세요			차시	8/8	교과서	유인물 4,5,6쪽
학습 주제	제안과 이유					수업 모형	거꾸로 수업
학습 목표	1. 제안과 이유에 대한 문형을 이해하고 반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2.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문제에 알맞은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준비물	1. 교사 노트북 - Plickers 문제 2. 교사 휴대폰 - Plickers 앱 3. 학생 QR코드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학생	
도입 (10)분	지난 내용 확인 및 학습문제 파악	▪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 중 제안 표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T : 오늘 뭐 할까요? 우리 공부할까요? ▪ 5~6문장 정도의 짧은 대화문을 판서하여 대화 내용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유추하도록 한다.	▪ 교사의 질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대답한다. S : 음악을 들어요. 네, 공부해요. ▪ 대화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문형을 상기한다.	-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제안과 이유에 대한 어휘, 문법, 문형 연습, 기능 연습을 진행한 것을 전제로 한다. - 온라인 수업에서 다룬 부분을 사용한다.
	학습활동 안내	▪ 유인물을 나눠주고 - plickers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 유인물은 온라인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전반적으로	▪ 학생들은 유인물과 함께 교사가 나눠주는 QR코드 종이를 한 장씩 받는다.	- 학생들이 QR코드를 각각 한 장씩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학생	
		담고, 분위기 환기로 및 plickers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인물 앞 장에는 쉬운 문제로 구성한다. ▪ 예시 문제를 같이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plickers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한다.	▪ 어려워하는 학생은 옆 친구가 설명해 준다.	- 교사는 인터넷 환경이 되는지, 기계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전개 (5)분	교사-학생 활동	▪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제안 문법을 판서한다. 1) -(으)ㄹ까요 2) -는게 어때요 3) -아/어/해 보세요 - 교사가 각 문법을 적용한 문장을 제시해준다. - 단, 문법 적용에 대한 설명은 학생이 직접 나와서 반 친구들에게 할 수 있게 한다.	▪ 교사의 예문을 듣고 학생들은 의미를 파악한다. -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 설명을 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 필기가 필요하다면 유인물 4P에서 필기를 한다.	- 학생의 설명이 맞으면 다른 학생을 지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설명이 틀리면 교사가 수정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전개 (5)분	교사-학생 활동	▪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이유 문법을 판서한다. 1) -아/어/해서 2) -(으)니까 - 교사가 각 문법을 적용한 문장을 제시해준다. - 단, 문법 적용에 대한 설명은 학생이 직접 나와서 반 친구들에게 할 수 있게 한다.	▪ 교사의 예문을 듣고 학생들은 의미를 파악한다. -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와 설명을 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 필기가 필요하다면 유인물 4P에서 필기를 한다.	
연습 (15)분	학생-학생 활동	▪ 유인물 6쪽의 23번-27번까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이때 줄 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은 무엇이 정답일지 의논하여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유인물의 문제를 풀고 정답을 표시한다. ▪ 왜 오답인지 혹은 왜 정답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자신의 답과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 유인물 6쪽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교사	학생	
		▪ 학생들이 QR코드를 들게 하여 화면에서 자신의 QR 코드가 인식이 되었는지 확인하게 한다.	▪ 알맞은 정답의 QR코드를 들어서 자신의QR코드가 인식 되었는지 확인한다.	
총 정리 (10)분	피드백 및 문장 말하기	▪ 무작위로 학생들을 지목하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혹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지목된 학생은 교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한다.	-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목표 문형을 사용하여 대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화가 이어진다면 문장을 하나 만들게 하여 넘어가도록 한다.

※ 평가 계획

평가내용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온라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숙지하여, 그 지식을 활용해 친구들과 정답을 유추하고 알맞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잘함	제안과 이유에 대한 의미적 형태적 특징을 숙지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잘 설명한다. 또 친구들과 협력하여 알맞은 정답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관찰 평가로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보통	제안과 이유에 대한 의미적 형태적 특징을 설명할 수 없으나, 친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알맞은 정답을 같이 유추할 수 있다.	
	노력요함	온라인 수업 내용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로 친구의 설명을 들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실수가 잦다.	

기대 효과

- 실제로 플리커스를 활용한 수업 내내 교사의 개입은 일반 수업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설명은 이미 교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교실에서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이 직접 나와 설명하게 했는데, 학생이 배운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인지하는 기회가 주고자 했습니다.
- 그 결과 학생들은 친구의 설명을 들으며 교사가 어려워 질문하지 못 했던 것도 적극 질문하고 해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교사가 문제의 정답이나 오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의 답을 유추해 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도 자각하기도 했습니다.
- 향후에도 이처럼 학생과 학생이 상호작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채택하여 적용해볼 생각입니다.

수업배경

COVID-19로 말레이시아는 3월 중순부터 이동제한조치가 발령되면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 학교이 등교하여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8월 3일부터로 저 또한 약 5개월 정도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란 플랫폼은 다 가입하고 시도해보면서 제가 가진 기계로 호환이 되는지, 오류는 없는지 확인해야 했고 출결이나 과제 관리, 강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수업 외의 모든 것을 교사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한 가정에 형제, 자매가 평균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로 모든 형제, 자매가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비해 인터넷 인프라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집에 인터넷을 설치한 가정을 세는 것이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시간이나 환경에 제약받지 않게 공부할 수 이도록 강의 비디오를 제작하여 블로그에 올리고, 구글 클래스룸과 메신저로는 출결 확인, 깜짝 퀴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수업 후의 대면 수업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여 온라인 수업을 전부 듣지 못한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과의 수준 격차가 심각하게 차이가 나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또 하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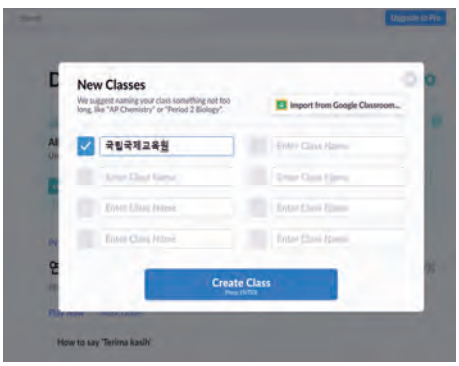
그 중 '거꾸로 수업'을 알게 되었는데 교실에서 교사가 강의하고 집에서 학생들이 숙제하는 일반적인 수업 방법을 바꾸어 집에서 강의를 듣고 교실에는 교사와의 질문, 과제 수행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어휘나 문법, 문형 등은 집에서 수행을 했으니, 거꾸로 수업 활동 중 Plickers(플리커스)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한 활동을 채택하여 수업해 보았습니다.

Plickers 수업 방법

** 플리커스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에 앞서 먼저 교사는 구글 계정이 있으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플리커스 사이트(https://www.plickers.com)에 접속하여 각 학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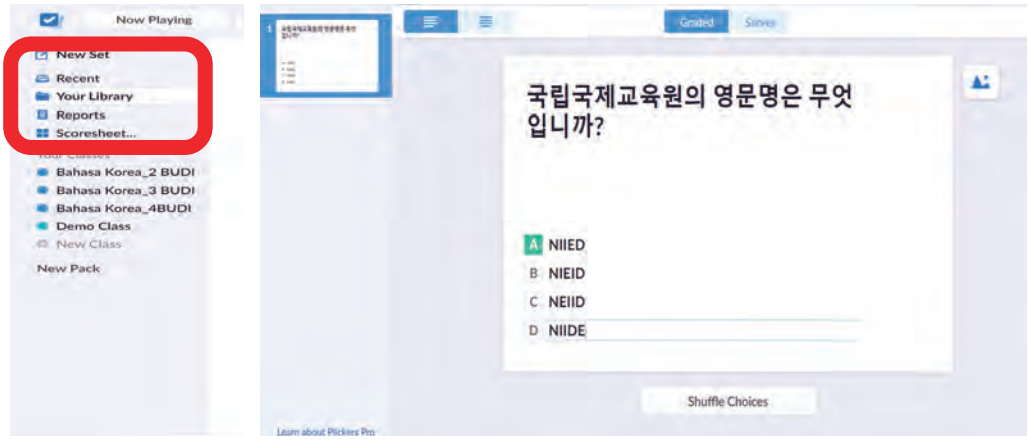
예를 들어 3학년이 30명이라면 학생 이름을 기재하는 부분에 숫자로 1번부터 30번까지로 기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30장의 QR코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줘야 하는데, 이름을 적게 되면 1번 QR코드는 반드시 그 이름을 적은 학생에게 줘야 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무작위로 QR코드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이라는 학급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먼저 학급을 만들고(좌), 학생 정보에 이름대신 숫자로 기재(우)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무작위로 QR코드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몇 번 QR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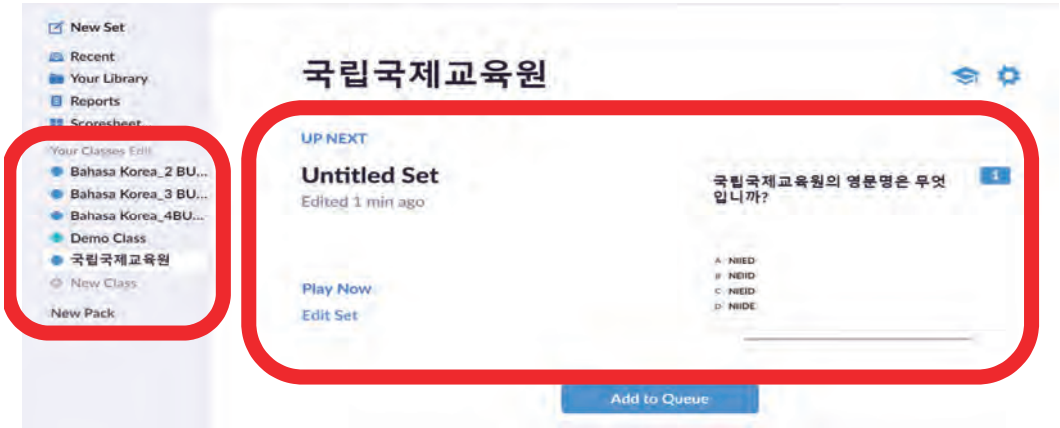
2. 각 학급별로 수준에 맞은 문제와 답을 작성합니다. 수업에 적용해 본 결과. 이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단계보다 전 시간의 것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 시간에 다룬 부분을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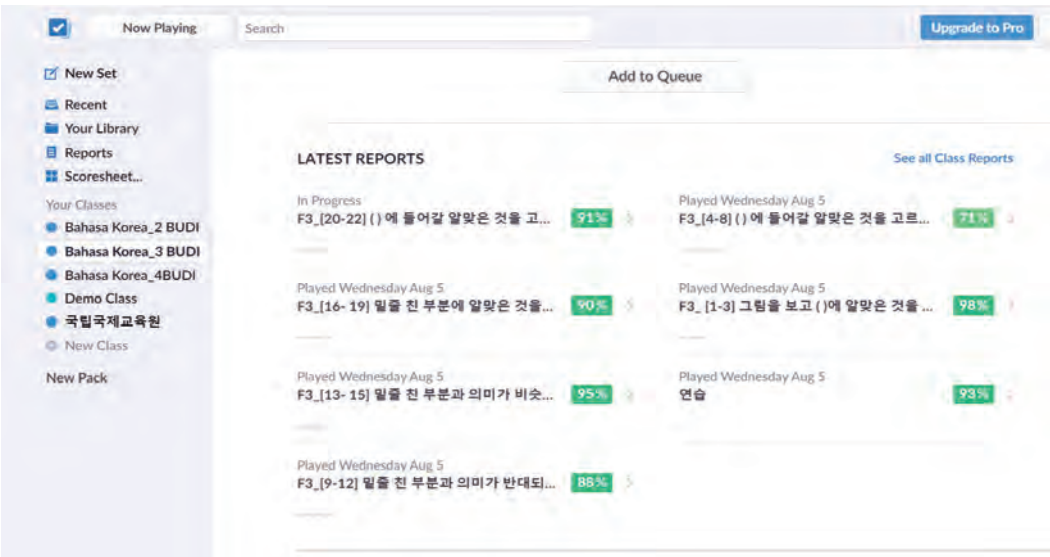
- 문제는 한 세트에 5개의 문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하여 문제를 만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New set'에서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며 상단에는 큰 제목을 삽입할 수 있고 그림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후 A에서 D 중 알맞은 정답을 체크해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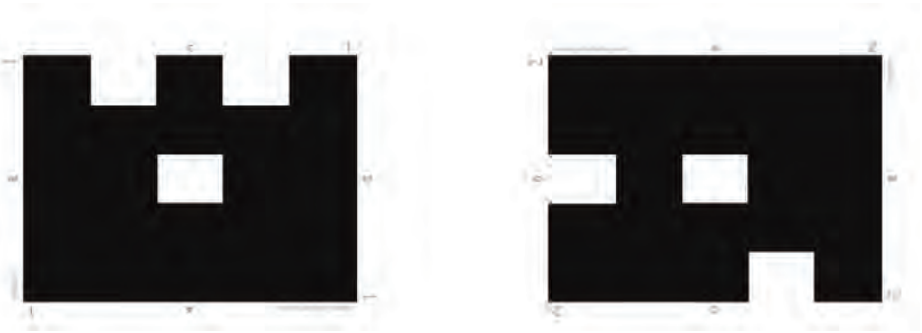
3. 학급 별로 문제를 다 만들게 되면 'Your Library'에서는 모든 학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하려고 하는 반을 클릭하면 학급 별로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 〈'Your classes' 에서는 교사가 만든 학급을 볼 수 있고 원하는 학급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답률이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지만 처음 문제를 만들 때는 정답률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4. 플리커스 사이트 내에서 플리커스 카드를 다운 받아 인쇄합니다. 플리커스 카드는 총 40개까지 있기 때문에 학생도 최대 4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저의 한국어 학급은 35명이 최대이기 때문에 1번 카드부터 35번 카드까지 인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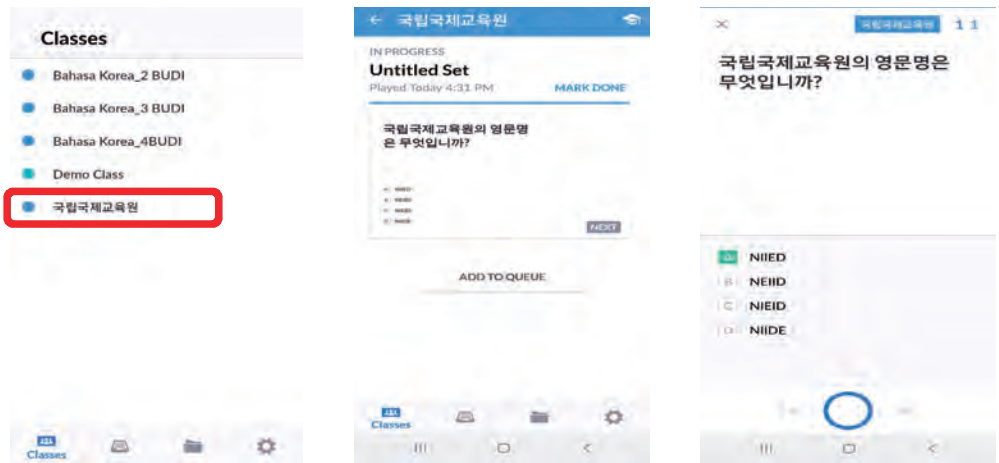
▸ 〈카드 4면에 A, B, C, D라고 적혀 있으면 각각 모서리 부분에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이 숫자는 플리커스 카드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숫자를 통해 자신이 몇 번 카드를 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노트북과 프로젝트 빔을 연결하여 문제를 보여주면 학생들은 그 문제의 정답을 확인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먼저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인물로 만들어 나눠주었으며, 학생들이 보는 화면에는 유인물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문제의 정답을 찾아 플리커스 카드를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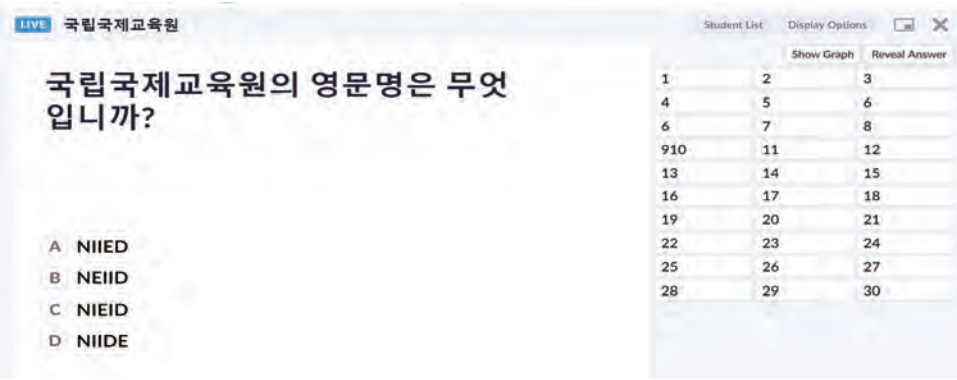
▸ 〈문제를 풀고 정답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QR코드 인식을 기다리며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학생들이 플리커스 카드를 들 때는 손가락이 QR코드에 닿으면 안 되며, 정답 번호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정답이 A 라고 하면 플리커스에 쓰인 A가 위로 향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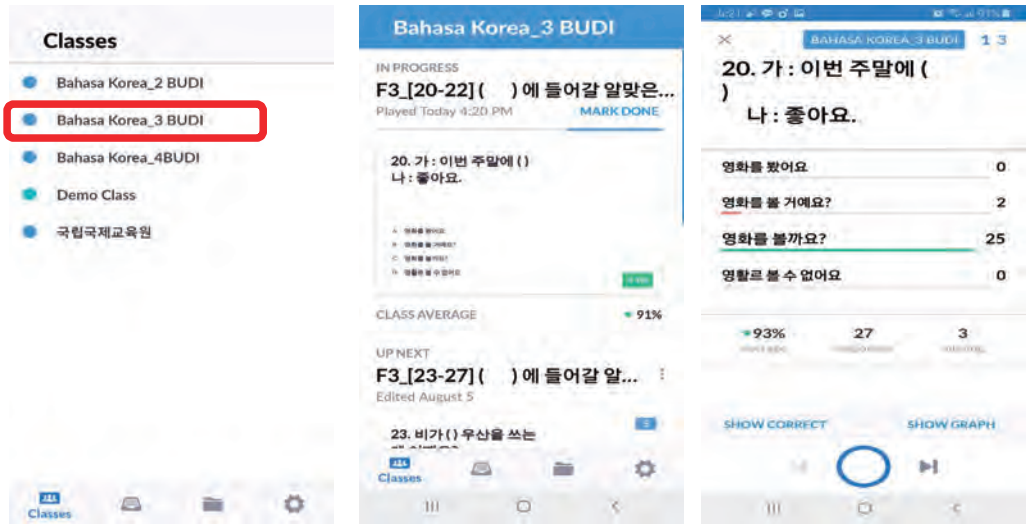
6. 마지막으로 교사는 휴대폰에 다운 받은 Pickers 어플을 실행하여 학생들이 QR코드를 인식하면 휴대폰에서 인식한 학생들이 정답이 자동으로 플리커스 사이트에 반영이 되고, 그것을 학생들이 프로젝트 빔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의 사진은 휴대폰에서 플리커스 어플을 실행한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해당하는 반으로 들어가서면 다음과 같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문제를 선택하여 터치하면 마지막 사진처럼 표시가 됩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정답은 교사만 보이기 때문에 교사는 사진처럼 하단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학생들의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 〈교사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기 위해 플리커스 어플을 실행하면 학생들은 위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 QR코드가 인식이 되었다면 오른쪽 번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QR코드가 인식 되었는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진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플리커스 수업에서 실제로 다룬 내용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학생들이 QR코드를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 화면으로 교사도 몇 명의 학생이 아직 인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시간을 학생들에게 시간을 더 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QR코드가 인식이 완료되면 초록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정답률을 확인하고 교사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

18. 가 : _____?

나 :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해요.

① 매운 음식이에요 ② 매운 음식이 있어요.

③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④ 매운 음식을 먹어요.

19. 가 :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나 : _____?

① 나쁜 사람이에요 ②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③ 체라스에 사는 친구예요. ④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Suggestion

<— (으)ㄹ까요 ? > **< —는 게 어때요? >** **<—어/어/해 보세요>**

순달오트 과학 중고등학교 Sekolah Menengah Sains Selangor

※ [20-22] (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20. 가 : 이번 주말에 (　　).
나 : 좋아요.

① 영화를 봤어요.　② 영화를 볼 거예요?
③ 영화를 볼까요?　④ 영화를 볼 수 없어요.

21. 가 : 한국어 시험이 어려워요.
나 : 선생님께 (　　).

① 질문하지 마세요　② 질문하고 싶어요.
③ 질문했어요?　④ 질문하는 게 어때요?

22. 가 : 나는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나 : 그럼 서점에 (　　).

① 갔어요　② 가 보세요.
③ 갈 거예요　④ 가지 마세요.

Resaon

<— 아서/어서/해서 >　< —(으)니까>

수달오토 과학 중고등학교 Sekolah Menengah Sains Selangor

※ [23-27] (　　)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23. 비가 (　　) 우산을 쓰는 게 어때요?
① 오면　② 오니까　③ 왔어요　④ 오고

24. 배가 (　　) 병원에 갔어요.
① 아프면　② 아팠어요　③ 아파서　④ 아파요

25. 숙제가 (　　) 숙제를 해야 해요.
① 많이　② 많아요　③ 많지만　④ 많으니까

26. 아이패드는 (　　) 아이패드를 못 사요.
① 비싼　② 비싼데　③ 비싸서　④ 비싸지만

27. 시험이 (　　) 도서관에 가 보세요.
① 있으니까　② 있어서　③ 없어요　④ 없어서

순달오조 과학 중고등학교 Sekolah Menengah Sains Selangor

초급 문법 교수 및 대화 연습

조은애(파라과이/한국어)

교과	한국어	지도 일시	10월 20일 1교시	대상	2학년	지도 교사	조은애
단원	7.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차시	14/17	교과서	126 쪽
학습 주제	정보 물어보기, 축하하기, 걱정 표현하기					준비물	인터넷, 휴대폰 또는 컴퓨터
학습 목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다.			목표 문법	-은지/는지/인지 알다/모르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도입 (1)분	그림을 활용한 동기 유발	 ① 도입: 이 사진은 서울 타워예요. 서울 타워가 얼마나 높아요? 몰라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봐요. 서울타워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YouTube, Word 자료 제공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② 도입: 마리 씨 생일 선물을 사야 돼요. 그런데 마리 씨가 뭘 좋아해요? 몰라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봐요. 마리 씨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개 (9)분	의미 설명, 형태 설명 (형용사, 동사, 명사 활용), 말하기 연습	▣ '-은지/는지/인지 알다/모르다' ▶ 의미 설명: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거나 대답할 때 쓸 수 있어요. (현지어) Se utiliza para preguntar o responder lo que sabe. **※ 예문들은 모두 2회 따라 읽게 한다.** (1) 형용사(N)-(으)ㄴ지 알다/모르다 형용사(A)**-(으)ㄴ지 알다/모르다** 받침 X: 후안 씨가 왜 바쁘다 → 바쁜지 알아요? 받침 O: 서울 타워가 얼마나 높다 → 높은지 아세요? 한국 여행할 때 어디가 좋다 → 좋은지 아세요? 아이가 왜 아프다(X) → 아픈지 몰라요. ▶ 형태 설명: 형용사에 모음으로 끝나면 '-ㄴ지', 받침으로 끝나면 '-은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알지 못 할 때는 '-은지 모르다'로 답한다.	YouTube, Word 자료 제공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2) 동사(V)-는지 알다/모르다 동사(V) **-는지 알다/모르다** 받침 X: 마리 씨가 뭘 좋아하다 → 좋아하지 알아요? 받침 O: 후안 씨가 뭘 못 먹다 → 먹는지 아세요? 후안 씨가 무슨 일을 하다(X) → 하는지 몰라요. **★ 있다/없다+는지** 마리 씨가 지금 어디에 있다→있는지 아세요? ▶ 형태 설명: 동사의 현재는 '-는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있다/없다' 항상 '-는지'를 사용한다. (3) 명사(S)인지 알다/모르다 명사(S)**인지 알다/모르다** 받침 X: 마리 씨 생일이 언제 → 언제인지 알아요? 받침 O: 후안 씨 전화번호가 몇 번 → 몇 번인지 아세요? ▶ 형태 설명: 명사가 받침으로 끝나거나 안 끝나거나 모두 '인지'를 사용한다.	
	과거, 불규칙 활용 연습	◈ 과거 (1) A/V-았/었는지 알다/모르다 형용사(A)/동사(V)**-았/었는지 알다/모르다** 후안 씨가 어제 뭐 하다 → 했는지 알아요? 어제 왜 공원에 사람이 많다 → 많았는지 아세요? ▶ 형태 설명: 과거는 형용사, 동사 모두 '-았/었는지'를 사용한다. (2) 명사(S)였/이었는지 알다/모르다 명사(S)**였/이었는지 알다/모르다** 받침 X: 어제 본 영화가 뭐 → 뭐였는지 알아요?	YouTube, Word 자료 제공

<table>
<tr><th>학습 단계</th><th>학습과정</th><th>교수 · 학습 활동</th><th>자료</th></tr>
<tr><td></td><td></td><td>
받침 O: 후안 씨가 산 게 누구 선물 → 선물이었는지 알아요?

▶ 형태 설명: 과거에서는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였는지', 받침으로 끝나면 '이었는지'를 사용한다.

◈ 탈락, 불규칙
<table>
<tr><th></th><th>A-(으)ㄴ지</th><th>V-는지</th></tr>
<tr><td>ㄹ 탈락</td><td>길다, 멀다 →먼지</td><td>만들다, 살다 →사는지</td></tr>
<tr><td>ㅂ 불규칙</td><td>맵다, 춥다 →추운지</td><td>굽다, 돕다 → 돕는지</td></tr>
<tr><td>ㄷ 불규칙</td><td>X</td><td>묻다, 듣다 → 듣는지</td></tr>
<tr><td>ㅅ 불규칙</td><td>낫다→나은지</td><td>붓다, 짓다 → 짓는지</td></tr>
<tr><td>으 탈락</td><td>아프다 →아픈지</td><td>끄다, 쓰다 →쓰는지</td></tr>
<tr><td>르 불규칙</td><td>빠르다 →빠른지</td><td>오르다→오르는지</td></tr>
</table>
(1) [현재] 탈락, 불규칙
형용사(A) -은지/동사(V)-는지 알다/모르다

후안 씨가 어디에 살다(V) → 사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멀다(A) → 먼지 아세요?
한국 겨울이 얼마나 춥다 → 추운지 아세요?
A호텔하고 B호텔하고 어디가 더 낫다 → 나은지 아세요?
</td><td></td></tr>
<tr><td></td><td>과거, 불규칙 활용 연습</td><td>
◈ [과거] 탈락, 불규칙
<table>
<tr><th></th><th>A-(으)ㄴ지</th><th>V-는지</th></tr>
<tr><td>ㄹ 탈락</td><td>멀다 →멀었는지</td><td>살다 →살았는지</td></tr>
<tr><td>ㅂ 불규칙</td><td>춥다 →추웠는지</td><td>굽다, 돕다 → 구웠는지, 도왔는지</td></tr>
<tr><td>ㄷ 불규칙</td><td>X</td><td>듣다 → 들었는지</td></tr>
<tr><td>ㅅ 불규칙</td><td>낫다 →나았는지</td><td>짓다 → 지었는지</td></tr>
</table>
</td><td>YouTube, Word 자료 제공</td></tr>
</table>

<table>
<tr><th>학습
단계</th><th>학습과정</th><th>교수 · 학습 활동</th><th>자료</th></tr>
<tr><td></td><td></td><td>
<table>
<tr><td>으
탈락</td><td>바쁘다 → 바빴는지</td><td>쓰다 → 썼는지</td></tr>
<tr><td>르
불규칙</td><td>빠르다 → 빨랐는지</td><td>오르다→ 올랐는지</td></tr>
</table>
(2)[과거] 탈락, 불규칙
형용사(A)/동사(V) -았/었는지 알다/모르다

청소를 누가 돕다→도왔는지 아세요?
빵을 누가 굽다→구웠는지 아세요?
후안 씨도 그 이야기를 듣다→들었는지 아세요?
마리 씨 이름을 누가 짓다→지었는지 아세요?
이 편지를 누가 쓰다→썼는지 아세요?
버스비가 얼마나 오르다→올랐는지 아세요?
</td><td></td></tr>
<tr><td>마무리
연습
(1)분</td><td>대화문 연습</td><td>
[말하기 연습]
1. Q: 새 아이폰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A: 1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2. Q: 마리 씨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A: 아니요. 누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3. Q: 후안 씨가 방학에 뭐 했는지 아세요?
A: 여행을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4. Q: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A: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td><td></td></tr>
</table>

▣ YouTube 주소 링크

-은지/는지/인지 알다/모르다: https://youtu.be/DNThuFuw5-c

III

UCC(영상)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Ⅲ. UCC(영상)

최우수상

파견 교사의 일상

김성진(우간다/수학)

책임운영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동영상 보시는 방법

- 위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또는 앱을 이용하여 스캔
- 네이버에서 "해교진" 검색(cafe.naver.com/niiedteacher) 후 우수사례공모전 게시판 확인

웰컴 투 학교 매점 ^^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은

한 공간 두 클래스?! 설화냐?
적잖이 당황시키지만...

열악한 환경을 불평하면 뭐하리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Ⅲ. UCC(영상)

우수상

해외 파견 교사

노시율(피지/과학)

책임운영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동영상 보시는 방법

- 위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또는 앱을 이용하여 스캔
- 네이버에서 "해교진" 검색(cafe.naver.com/niiedteacher) 후 우수사례공모전 게시판 확인

2. 밀도에 관한 시범실험
(Demonstration about density)
탄산 음료 중 일부는 물에 뜨고,
일부는 물에 가라 앉는다.

투발루 (Tuvalu)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Ⅲ. UCC(영상)

장려상

모모쌤의 악어새 이야기

김인규(동티모르/ICT)

책임운영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동영상 보시는 방법

- 위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또는 앱을 이용하여 스캔
- 네이버에서 "해교진" 검색(cafe.naver.com/niiedteacher) 후 우수사례공모전 게시판 확인

학생 가정집 방문
학생집에 직접 방문하여
동티모르 가정을
체험하였습니다.

운동회 활동
동티모르는 정전이 자주 일어나요.

해변 자연정화 활동
아이들은 자연을 지키는 수비대.

2020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발　행 • 국립국제교육원
발행인 • 김영곤 원장
발행일 • 2020년 12월

※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2020

교원해외파견사업

우수사례집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